

리아호나





밀레니엄 라이언 하우스, 그랜트 폴니 클로슨

입구 높이 꼭대기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 동상을 보지 못한 듯한 한 여인이 우산을 쓰고 라이언 하우스의 정원을 한가로이 지나가고 있다. 1856년에 건축된 라이언 하우스는 주님의 사자로 더 잘 알려진 브리감 영의 별명을 따서 명명되었다. 그는 나무에서 특별히 힘있는 설교를 한 후에 그 별명을 얻게 되었다. 윌포드 우드렘 장로는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사자가 오늘 밤 다시 포효했다."

리아호나

2 2002년 4월 연차 대회와 본부 청년 모임의 색인

토요일 오전 모임

4 교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7 어린이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10 십일조의 법
얼 시 텅기 장로

13 내적인 힘을 발전시킴
매리 앨런 더블류 스무트 자매

15 나를 따르라
조셉 비 워스린 장로

19 숨겨진 책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토요일 오후 모임

23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24 교회 감사부 보고서
웨슬리 엘 존스 형제

25 2001년도 통계 보고서
에프 마이클 왓슨 형제

26 완전한 개종이 가져오는 행복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29 참된 친구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32 순종의 신앙
알 콘래드 솔츠 장로

34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
로버트 알 스튜어 장로

36 우리 생활에서의 복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39 내가 행한 일을 성결케 하시리로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신권 모임

42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시다
엘 톰 페리 장로

46 인생이라 불리는 길
벤 비 벅크스 장로

48 인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됨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51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54 그들은 기도하고 갑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58 신권을 행사하기 위한 개인적인 합당성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62 기도라는 구명 밧줄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69 또 다른 탕자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72 네게 유익이 되고
리처드 시 예즐리 감독

74 사랑의 언어
게일 엠 클레그 자매

77 어둠에서 나와 그의 놀라운 빛으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80 우리는 신앙으로 생활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83 굳도다 그 기초
러셀 엠 넬슨 장로

87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존 엠 매드슨 장로

89 요셉 스미스의 역사가 주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가르침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

91 사랑: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진 알 쿡 장로

94 주님의 사랑을 느낌
보니 디 파킨 자매

95 봉사할 기회
제럴드 앤 렌드 장로

97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윌리엄 알 워커 장로

98 왕국의 평화로운 것
엠 러셀 벨라드 장로

101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본부 청년 모임

103 거룩한 곳에 섬
새론 지 라슨 자매

105 가정과 가족을 강화함
캐롤 비 토마스 자매

108 햇불을 높이 드십시오
마가렛 디 네이들드 자매

111 완전케 이르는 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6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115 어린이들에 관한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

116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116 참고 지도서

122 교회 소식





연사들(가나다 순)

게일 엠 클레그 74
 고든 비 힝클리 4, 58, 80, 101
 닐 에이 맥스웰 39
 델린 에이치 옥스 36
 러셀 엠 넬슨 83
 로버트 디 헤일즈 77
 로버트 알 스투어 34
 리차드 시 에즐리 72
 리차드 지 스코트 26
 마가렛 디 네이들드 108
 매리 앨런 스무트 13
 벤 비 뱅크스 46
 보니 디 파킨 94
 보이드 케이 패커 7
 새론 지 라슨 103
 스펜서 제이 콘디 48
 알 콘래드 슐츠 32
 얼 시 팅기 10
 엘 톰 페리 42
 엠 러셀 벨라드 98
 윌리엄 알 워커 97
 제럴드 엔 런던 95
 제임스 이 파우스트 51, 62
 제프리 알 홀런드 69
 조셉 비 워스런 15
 존 엠 매드슨 87
 진 알 쿡 91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89
 캐물 비 토마스 105
 토마스 에스 몬슨 19, 23, 54, 111
 헨리 비 아이어링 29

주제 색인

가르침 7
 가정 105
 가족 62, 105
 간증 10, 87, 94, 97, 101
 감사 91, 94, 111
 개종 26
 결심 39, 97
 겸손 34
 경건 103
 경전 89
 관대함 69
 교만 32
 교회의 성장 4
 구원의 계획 72, 83
 그리스도의 빛 77, 98
 기도 54, 62, 74, 80, 89, 105
 단합 13
 명상 89
 모범 29, 42, 108
 목표 46
 배움 111
 보호 7
 봉사 13, 36, 48, 69, 95
 빛 77, 80
 사랑 7, 29, 69, 74, 91
 상호 부조회 13, 94
 선교사업 54
 선택 46
 성스러운 곳 103
 성신 29, 34, 42, 46, 77, 103
 성전 사업 83
 속임 32
 속죄 72, 83
 수양 51
 순종 10, 32, 34, 36
 시샘 69
 신권 42, 58
 신성 103
 신앙 26, 32, 48, 51, 54, 62, 72, 80, 101
 십일조 10, 80
 빼기 19
 어두움 77
 어린이 7, 74
 역경 72
 역사, 교회 4

영구 교육 기금 4
 영생 87
 예수 그리스도 15, 36, 62, 77, 87, 98, 101
 예언자 42, 95
 은순함 34
 요셉 스미스 89
 용서 19, 98
 우정 29
 유순함 39, 95
 유혹 15, 51
 의로움 108
 일 111
 자비 91
 잠재력 51
 정속함 108
 제자의 신분 15, 111
 조정 19
 준비 48
 진리 83, 89
 징계 111
 축복 10, 54
 출석, 교회 36, 89
 친절 58
 탐욕 69
 평화 98
 표준 108
 학대 58
 합당성 58
 행복 26, 46, 74, 111
 헌납 39
 환대 4
 회개 26
 희생 15, 105
 힘 13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제7호
2287 320

리아호나는 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관장단 고든 비 한블러, 토마스 에스 문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앨 톰 베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라셀 영 냐슨, 앨런 에이치 옥스, 얼 러셀 발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나인스윈더

고문: 제이 켈트 줄리, 더블류 톰프 커, 스티븐 에이 웨스턴

교회 과정보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온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롬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말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로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캐니 케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크트 맨 캠퍼
신일 디자이너: 세리 록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슨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데니스 커비, 헬리 프랫, 로널드 에프 스파크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아너
디지털 교정 인쇄: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텐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436호, 제39권, 제7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리-3166
발행일: 2002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리투아니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키르비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름함)

©200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연차 대회 녹화 제품 구입
여러 언어로 된 연차 대회 모임 녹화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대회 후 2개월 안에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대회의 DVD에 관한 사항은 이번 호 126쪽을 참조하십시오.

대회 말씀 인터넷 게재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대회 말씀을 찾아 보시려면 인터넷에서 www.lds.org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메시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방문할 사람들의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메시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사진 촬영
앞: 크레이그 다이몬드, 뒤: 제드 클라크

대회 사진 촬영을 한 사람들
크레이그 다이몬드, 제드 클라크, 캔디 라슨, 엘리 카터, 로버트 케이시, 태오라 래티에타, 알렉시스 두스, 마크 해딘그런, 리처드 롬니, 아니 앵글, 케이시 맥파랜드

January 2002 No.7.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토요일 오전 모임
2002년 4월 6일

교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미국 땅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거나 널리 퍼진 교회는 없었으며 ... 그것은 전례없는 현상입니다.



서 영광이 싹뻗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대의 절정에 서서 우리 주변을 둘러봅니다.

처음 시작한 여섯 명이 이제는 1천 1백만 명 이상이라는 거대한 신앙의 가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지구촌 160개국에 산재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눈부신 발전이 아닙니까.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 더 많은 교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눈부신 일이 아닙니까. 미국에 토대를 둔 어떤 교회도 그렇게 빨리, 그렇게 널리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 거대한 품 안에는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과거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거대한 세계 대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72년 전 오늘, 요셉 스미스와 동료들은 뉴욕 주 페이테트라라는 조용한 마을에 있던 피트 휘트머 농장의 초라한 통나무 집에서 모임을 갖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출발은 미약했으나 참으로 괄목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업의 역사는 위대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온갖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 희생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수고는 가치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진 시련 속에

는 용단을 펼쳐 놓고 보니 마침내 아름다운 무늬가 나타납니다. 행복하고 훌륭한 성도들의 삶에서 묻어 납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조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155년 전 처음 이 계곡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언자의 시현을 통해 위대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씩 정말로 그분들이 그 시현이 얼마나 크게 펼쳐질지를 인식하셨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교회 본부가 있는 이 도시에서는 최근에 제19회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는 숙고한 끝에 이 올림픽을 전도의 기회로 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요한 행사를 통해 교회에 의미 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위대한 건물들, 바로 성전, 태버나클, 이 웅장한 컨퍼런스 센터, 요셉 스미스 기념관, 가족 역사 시설들, 교회 행정 건물, 교회 본부 건물, 복지 시설들, 그리고 이 계곡에 있는 수많은 예배당들이 이 도시와 인근 지역의 거리를 걷는 분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마이크 월러스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건축물들이 무언가 확실한 의미를 심어 줄 겁니다."



참석자들이 가득 찬 제 172차 연차 대회에서 음악을 제공하고 있는 태버나클 합창단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상당수의 성도들이 이 거대한 행사 때 자원 봉사자로 기꺼이 봉사하려고 했습니다. 의지할 만하고 유쾌하며 총명하고 친절할 회원들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특출한 능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막대한 자산이라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구태의연하고 잘못된 인상을 가슴에 간직한 채 의심과 주저하는 마음을

갖고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신자들 때문에 원하지 않는 탓에 걸릴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웅장한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이 지역의 절경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최고로 발휘된 국제 대회의 훌륭한 정신과 이 도시의 아름다움에도 놀랐습니다. 그들은 우아하고 친절하며 기꺼이 도우려 하는 이곳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만 그런 친절을 보였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온 주민 전체가 그 친절의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

에서도 이 교회가 단연코 돋보였습니다. 대개 거칠고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언론인들은 이곳에서 접한 독특한 문화와 사람들과 그들이 느낀 환대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정확하게 보도해 주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전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전송했습니다. 신문과 잡지에도 수많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템플 스퀘어를 구경했고, 장엄한 주님의 집에 찬사를 보냈으며, 태버나클에 앉아서 합창단이 연주하는 최고의 음악을 들었습니

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컨퍼런스 센터를 가득 메운 채 교회와 교회의 범세계적인 사명을 다룬 훌륭한 작품들을 감상했습니다. 가족 역사 센터도 많은 분들이 방문했습니다. 요셉 스미스 기념관에는 언론 매체 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미국과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온 텔레비전, 라디오 및 언론 매체의 통신원들이 저희를 인터뷰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라는 독일 언론에만 교회 관련 기사를 거의 4,000건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신문이 그 기사를 다룰 정도로 유명한 기사 기고 작가인 조지 앤 가이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도대체 물론이 주류를 이루는 주에서 세계적인 축제 모임을 주관하는 그토록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던 말인가? 국제 대회의 세 가지 관례라고 할 수 있는 순과 담배와, 심지어 카페인까지 회원들에게 금지시키는 종교가 중심인 이곳에 세계인들이 기꺼이 올 것인가?”

이어서 그녀는 올림픽 예술 축제의 예술 감독인 레이몬드 티 그랜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랜트는 개회식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전체 출연자의 98퍼센트가 자원 봉사자였습니다. 대단한 규모입니다. 사실 대부분이 전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 이유를 물론 문화와 직결시키고 싶습니다. 뉴욕에서 자란 가톨릭 신자로서, 저는 물론 정착지인 유타의 설립자 브리감 영이 가장 먼저 극장을 세웠다는 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런 통계를 내놓았다. 이 주에 6개의 무용단이 있고, 미국 내 어느 주보다 유타에서 피아노와 하프가 더 많이 판매되며, 물론 태버네를 합창단 수가 [360명]이고 유타의 최장수 스타인웨이 피아노 사 판매 대리점은 1862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유타는 학생 한 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 중의 하나에 하나이면서도 학생들은 높은 시험 성적을 자랑합니다. 이런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이어 양은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유타는 신중하고 곧은 종교와 최고의 문화 수준과 함께 최고의 현대 기술 보급을 장려하고 주장하는 가족들 및 전체적으로 현명한 조직 관리가 혼합되어 있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옛 미국을 현대 식으로 혼합해 놓은 주라는 것이다.” (“Salt Lake City and State of Utah Reveal Themselves to the World,” Salt Lake Tribune, 15 Feb. 2002)

시간만 있다면 최고의 극찬을 아끼지 않은 전세계의 훌륭한 언론인들의 기사를 많이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었습니다. 저는 대통령들, 대사들, 기업과 기타 분야 지도자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이 처음 이곳에 도착한 지 2년 후,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된 직후인 1849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실의에 차 있었습니다. 척박한 토양에서 살아 남기 위해 분투해야 했고, 매뚜기 떼가 농작물을 먹어 치우기도 했으며, 겨울은 추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캘리포니아로 가서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 대관장님은 그들 앞에 서서 그대로 남으라고 격려하신 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후를 온화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 도시와 성전을 지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우리의 정착지는 동서로, 남북으로 넓혀질 것이며, 수많은 마을과 도시가 건설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온 나라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많은 나라의 거대한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황제와 귀족과 현자들이 이곳을 찾을 것입니다.” (in Preston Nibley, Brigham Young: The Man and His Work [1936]128)

우리는 요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문화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규모로 또 너무나 친절

하게 참여해 주신 성도들에게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훌륭하고 중요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협력해 준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다소 빨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 하면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영구 교육 기금이 생각납니다. 바로 1년 전에 제가 이것을 연차 대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대한 말일 성도들의 기부로 이 사업이 현재 반석 위에 올라섰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미 이 사업으로 인해 엄청난 유익이 나올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는 국가의 젊은이들, 대부분 귀환 선교사인 그 젊은이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조상 대대로 고생해 온 가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할 것이고 보다 많은 수입과 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을 갖고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교회에서도 성장하여 중책을 맡고 신앙을 계속 지켜갈 가족을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한 가지 간증을 읽어 드리고자 합니



어린이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우리가 믿는 내용들은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쳐야 한다고 권고하고 명하며 심지어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저는 에이 디어도어 터틀 장로님과 함께 페루의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 위치한 쿠스코에서 성찬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방은 길고 좁았으며 길쪽으로 난 문이 열린 상태였습니다. 때는 밤이었으며 공기는 매우 차가웠습니다.

터틀 장로님이 말씀하는 동안 여섯 살 가량 된 어린 남자 아이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지저분한 셔츠 외에는 발가벗은 채였습니다.

우리 왼쪽 편에는 성찬을 위해 빵 성찬기를 놓아 둔 작은 탁자가 있었습니다. 냅마 같은 옷을 입은 이 고아 소년은 그 빵을 보고 벽에 붙어서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탁자까지 거의 다 왔을 때 통로에 있던 한 여인이 그를

봤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엄하게 흔들면서 그 소년을 밤거리로 쫓아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 후에 그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빵과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벽을 따라 기어왔습니다. 소년이 탁자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 여인이 다시 보았습니다. 제가 팔을 벌리자 그 소년이 제게 뛰어왔습니다. 저는 그 소년을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그런 뒤 뭔가 상징적인 것을 떠올리며 저는 그를 터틀 장로님의 의자에 앉혔습니다. 폐회 기도를 마친 후에, 안타깝게도 그 소년은 밤 거리에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김볼 대관장님께 그 소년 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느낌이 크셨는지 연차 대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였고, 저에게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험은 형제님이 알게 된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거리의 어린 고아 소년을 한번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남미에 갈 때마다 그 소년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소년을 떠올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어느 추운 밤, 일본 남부의 한 기차역에 있는데 누군가 객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년과 똑같이 냅마 같은 셔츠를 입고 부어 오른 턱에 누더기 천을 두르고 머리는 움이 잔뜩 올라 있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저지 고아의 상징

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한 청년이 보내 온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 교육이나 미래에 대해 더이상 꿈만 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분명히 밝혀 주셨고 지금 제가 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 나라의 대규모 기술 학교에 다니면서 컴퓨터 기술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 다니면서 제 능력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 때 익힌 원리가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축복 받았다고 느낀 젊은이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영구 교육 기금 덕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잘 준비해서 보다 나은 회원과 지도자와 아버지가 되라고 복음이 부여해 주는 책임감을 더더욱 강하게 느낍니다. "너무나 많이 고생해 오신 제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감격하셔서 밤마다 울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

"이제 저로 인해 제 마음이 축복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온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의 집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이끄는 교회가 보입니다. 번영하는 교회가 보입니다. 제 자신의 가족을 꾸리고 그들에게 자족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가슴이 벅칩니다. 그래서 기필코 제 교육을 마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회원들을 위해 대출 받은 돈을 빨리 갚을 것입니다. ... 구세주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으로 지지해 주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일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 훌륭한 사업이 세상 곳곳에서 실시됨에 따라 우리는 약 2,400 여명의 젊은이들에게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한 이 훌륭한 절기에 이 위대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뻐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한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인 녹슨 양철통과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돈을 주려고 하는데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빈 양철 깡통을 들고 추위 속에서 있던 그 불쌍한 소년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어느 병원에 열과 콧물로 입원한 국립 인디언 학교 1학년의 작은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 그의 어머니가 소포를 보내 왔습니다. 틀림없이 가게에서 얻었을 자동차 부품 라벨이 붙은 마분지 상자에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성탄절 선물로 준비한 나바호 전통의 튀긴 빵과 양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눈에 익은 긴 피난민 행렬을 보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를 업고 가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한 여자 아이가 어머니가 지고 가는 큰 짐꾸러미 위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행렬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나아가는 동안 그 아이는 카메라만 쳐다보았습니다. 그 천진한 검은 피부의 얼굴과 크고 까만 눈망울이 왜냐고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나 어린이는 한결같습니다. 그들은 더없이 소중한입니다. 무죄한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세상은 그만큼 새로워집니다.

저는 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최근에 저는 장애 어린이들의 발표가 있었던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청각이나 시각이나 정신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옆에는 십대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노래하고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우리가 맨 앞줄에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한 소녀가 우리 뒷쪽의 청각 장애아들에게 수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니가 짝박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가 각자 말씀했습니다. 그 부모들은 아이가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무척 비통해 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끝없이 겪어 온 시련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거나 웃곤 할 때 제니의 오빠들은 제니를 꼭 안았습니다. 후에 어머니께서 제니가 가족에게 가져다준 사랑과 큰 기쁨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부모는 “많은 시련을 겪은 후에야 축복이 임”(교리와 성약 103:12)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시련 덕분에 하나가 되고 순금같이 참된 말일성도로 정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제니가 아버지들을 친구 삼으려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니와 악수를 했을 때 “난 할아버지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올라다 보면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역시 할아버지라고요.”

경전이나, 우리의 출판물이나, 우리가 믿거나 가르치는 내용 어디에도 우리나 다른 사람 누구의 자녀를 막론하고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괴롭혀도 된다는 것은 조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전이나, 우리의 출판물이나, 우리가 믿는 내용들은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모사이야서 4:15)쳐야 한다고 권고하고 명하고 심지어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저버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경고와 가장 심한 형벌 중에 어린아이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마태복음 18:6)

예언자 모로나이 시대에,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 없”(모사이야서 3:21)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모로나이서 8:12)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침례하려고 했습니다. 모로나이는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의 능력을 헛되다 하는 자”(모로나이서 8:20)라고 했습니다.

물문은 이런 말로 그들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침례가 필요하다는 자는 쓰디쓴 진장에 빠진 자요, 죄의 사슬에 얽매인 자라, 신앙이나 소망이나 사랑이 없을지니 그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쫓겨나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

“보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권세로 내가 답대히 이르노라.”(모로나이서 8:14, 16)

책임질 수 있는 연령, 즉 주님이 정하신 대로 8세가 된 어린이만(교리와 성약 68:27 참조) 침례가 필요합니다. 그 연령 전에는 무죄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절대 학대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이혼을 빌미로 어린이들을 유기하거나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녀는 장성한 때까지는 양친에게 양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83:4)

우리는 자녀들의 육체적, 영적, 정서적 필요 사항들을 보살피야 합니다. 물문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를 헐벗고 굶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죄의 주인이요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



대관장단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왼쪽부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그리고 대관장단 제2보좌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대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신 악령인 악마를 섬기지 아니하리니, 그는 모든 의의 적이라.”(모사이아서 4:14)

그 자신이 책임감이 강하고 또 한편으로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아버지애 버금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자녀들을 편안하게 해 주고 확신을 심어 주는 어머니애 버금가는 존재 또한 없습니다. 사랑과 보호와 운유 함이야말로 그 가치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93:40)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부부가 해야 할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그 어버이를 굳건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자녀를 고의로 포기하는 부모는 너무나 비통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한 소년을 자주 떠올립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어느 외진 도시의 세미나리 졸업식장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복장은 훌륭했고 잘 양육된 것같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통로로 걸어와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소 높은 계단이 세 칸 있었습니 다. 그 소년은 다리가 너무 짧아서 첫 계단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신장 발육 장애 소년이었습니 다.

그 때 그의 뒤로 건장한 청년 두 명이 걸어나오더니 계단 위로 올라와서 각각 그 소

년의 양쪽에 서서 소년을 단상 위로 부드럽게 올려 주었습니다. 졸업장 수여가 끝나자 그들은 그를 다시 아래로 내려 준 뒤 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바로 소년의 친구로서 소년을 돌봐 주었던 것입니다. 그 소년은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첫번째 계단을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들어 올려 줄 사람, 곧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뒤에 오를 계단을 길고 튼튼한 다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맞게 만든다면 경전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브리서 5:12, 14)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린도전서 3:2)

1830년, 교회가 조직되기 직전에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들이 아직 고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유라야 받아 먹을 수 있음이니, 그러므로 저들이 과멸되지 않도록 이 일을 알리지 말아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9:22)

우리는 그 첫번째 계단을 너무 높게 만들거나 튼튼하고 긴 다리를 가진 사람들에 맞게 설계하고 그들을 들어올려 줄 친구가 없는 이들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부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질책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용납이란 허락을 말합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태복음 19:14)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에 어린 아이를 세우셨습니다.(마태복음 18:2-3 참조) “작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라”(니파이삼서 11:38)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에 대한 염려가 제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김볼 대관장님이 쿠즈코에서 그 거리의 고아 소년에 대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거듭거듭 생각했습니다. “그 경험은 형제님이 알게 된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형제님 무릎에 한 나라를 앉히신 겁니다.”

일흔여덟 살이 된 지금에서야 저는 김볼 대관장님이 보셨던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무슨 뜻이었는지 압니다. 쿠즈코의 그 소년과 일본의 그 소년, 그리고 세계의 다른 어린이들이 저의 생각과 제 감성과 제 기도 내용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어린 아이들과 더욱 위험해져 가는 시대에 그 자녀들을 키우고자 애쓰는 부모님들을 생각합니다.

대관장단처럼 저도 전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대관장단처럼 저도 교육 부문, 사업 부

문, 정보 부문 및 교회에서 자문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책도 썼고, 그분들처럼 존경과 학위와 증서와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그런 영예는 개인으로 보면 자격이 없지만 현재의 위치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가치를 평가해 보면, 제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아니 그 모두를 합한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한 가지, 다시 말해 제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과 그들의 남편과 아내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마찬가지로 손자녀들이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부모와 조부모로서 가장 알아둘 만한 것들을 바로 우리 자녀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이 축복은 제 아내가 선물로 제게 준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여성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에 따라 자녀를 낳고 땅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또 창세 이전부터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또 그들이 영원한 세상에서 저들의 승영에 들어가 인간의 영을 낳기 위하여 [남자에게 아내가] 주어졌음이라. 이로써 나의 아버지의 사업이 계속되며 영광을 누리게 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132:63)

이와 같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성과 더불어, 주님이 왜 “저희 아버지께는 내가 원하는 대로 … 더욱 큰 일을 요구하도록”(교리와 성약 29:48) 하셨다고 계시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이 참되며 복음의 권세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이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고, 그것이 그들을 안내하고 보호하는 것이 되며, 그것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간증을 마음속에 품기를 진지하게 기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

십일조의 법

얼 시 톱기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주님은 그분의 교회의 세입의 법으로서 십일조의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 그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충실함을 보여주는 율법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저는 어머니께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 어머니께서는 제가 열 살 때이던 1944년에 제가 부모님께 처음 받았던 한 작은 책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중하게 보관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저는 매 주마다 이 책에 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1944년 7월 29일에 기재된 그 주의 출납 현황을 보면 저는 그 주에 24.05달러로 시작했고 가족 농장에서 일하여 7달러를 벌었습니다. 지출로는 사랑 사라고 5 센트, 물건 구매에 45 센트, 영화 관람에 20 센트, 의복 구매에 2.37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또한 전쟁 국채에 20 달러를 투자했고 70 센트를 십일조로 냈습니다.

저는 그 주에 잔액 4.28 달러를 남기고 마감하였습니다.

시간당 25 센트 하던 제 보수를 올려 주실 수 없는지 아버지께 여쭙 보았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영화 한 편에 20 센트, 사탕 값이 5 센트였던 것을 기억하면 제가 받은 돈이 많은 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0년이 지난 이 일지를 살펴보면, 이 일지를 기록했던 1944년부터 1945년 동안 매주 그 주 수입의 10 퍼센트를 십일조로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44년 12월에, 저는 그 해의 십일조로 12.35 달러를 냈다고 기록했는데, 그것은 완전한 십일조였습니다.

저는 십일조 내는 것을 바로 이 일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받거나, 아기 돌보기 혹은 특별한 일을 하여 돈을 벌 때마다 십일조를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십일조를 조그만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십일조를 금식주일에 감독님에게 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입의 상당한 금액을 장래의 선교 사업과 교육을 위해 저축함으로써 돈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손자, 손녀들도 비슷한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원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십일조를 내는 것을 보게 합시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돈을 벌 나이가 되

면 그들에게 십일조 내는 것을 가르쳐 그들의 이름이 주님의 율법의 책에 기록되게 ... 하여야 합니다.”¹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이런 짧은 시를 배웠습니다.

십일조란 뭘까요

늘 하는 말 있죠

1 달러가 있으면 10 센트

10 센트가 있으면 1 센트

십일조를 내는 교리는 경전의 이곳 저곳에 수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습니다.²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십일조를 주께 가져오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³ 느헤미야의 시대에 백성들은 십일조를 주님의 전으로 가져오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⁴ 아마도 십일조의 주제로 구약 성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구는 말라기에 나오는 것일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⁵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⁶



회원들과 방문자들이 연차 대회 참석을 위해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하고 있다.

한 렙돈은 매우 작은 동전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가장 작은 청동 동전입니다. 그것은 로마 은화 한 닢의 64분의 일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십일조의 법을 그분 교회의 재정 수입을 위한 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목적들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께 우리의 충실함을 보이고 특권과 의식 및 축복에 대해 우리의 합당함을 증명하는 율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는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 머무는 때, 북쪽으로 한 시간 거리인 파웨스트로 차를 몰고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836년에 말일성도들은 박해로부터의 피난처로 파웨스트에 정착했었습니다. 파웨스트는 대략 3,000 명에서 5,000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 군청 소재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이곳은 교회 본부였습니다. 저의 조상들도 그곳에 살았습니다. 파웨스트에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보이는 것은 온통 넘실대는 농지뿐이었습니다. 옥수수며 곡류, 건초용 풀, 기타 농작물들이 넘실대는 아름답고 향긋한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도, 길도, 건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네 개의 주춧돌만이 남아 있는, 평화롭고 풀로

덮인 성전 부지가 평범한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1838년에 성도들은 파웨스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요셉 스미스와 몇몇 사람들이 체포되어 인근의 리버티 감옥으로 끌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6 개월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참혹한 환경 아래서 쇠약해져 갔습니다. 저의 조상들도 파웨스트에서 혹독한 고통을 겪었으며 거의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파웨스트에 서서 그 옛날의 모습들을 그려보면서, 저는 경전을 열어 교리와 성약 119편을 읽었습니다. 이 계시는 이러한 박해의 와중인 1838년 7월 8일 파웨스트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이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시작이 되리라.

“먼저 이를 실행한) 연후에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이후부터는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 중 십분지 일을 바치라. 이로써 나의 성 신권을 위하여 저들이 지켜야 할 영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⁷

십일조의 법이 그 당시보다 더 형편 없는 시기에 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질 수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받아들였고, 회원들이 그들의 재



산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는 가운데서도 이 새로운 율법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웨스트를 방문하며, 저는 십일조의 법에 대해 제가 전에 느꼈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고 더 깊은 영적 간증을 얻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부지런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수만 명의 회원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십일조를 내십시오. 이 율법이 침례 받기 이전에 익숙하던 것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새로운 개종자로서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십일조를 내는 것보다 더욱 온전하게 여러분 앞에 기다리는 성전 축복을 비롯한 훌륭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들에게 몇 마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도자들이 복음의 이 훌륭한 원리에 대해 간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구도자들에게 십일조를 가르치십시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어머니는 "미망인 스미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언자 요셉과 함께 순교한 하이람 스미스의 미망인이었습니다. 한번은 그녀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십일조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한 십일조 담당 서기를 그녀가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께서 내게 오는 축복을 막으실 참인가요? 내가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게서 축복을

거두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십일조가 주님의 율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율법과 다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번성하게 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⁸

그녀는 번성했습니까? 그녀의 아들과 손자는 교회 대관장이 되었으며, 오늘날 그 후손들 가운데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한 분과 수많은 저명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언급하며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어머니가 "양과 가축의 심분의 일, 버터의 심분의 일, 닭의 심분의 일, 달걀의 심분의 일, 돼지의 심분의 일, 송아지의 심분의 일, 망아지의 심분의 일 등 모든 것의 심분의 일" 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⁹ 아프리카에서 일단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십일조의 법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말했습니다. "탕기 장로님, 제게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십일조를 낼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사정을 물으면서 그 형제에게 자녀가 일곱 내지 여덟 명이 되는 대가족이 있으며 직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작은 채소밭을 갖고 있으며 거위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거위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알을 낳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거위 동지에서 거위 알 10개를 보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

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알 하나를 가져다가 지부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형제는 이해를 했으며 온전한 십일조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내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는 일에 깊은 뿌리를 내린 가족으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받게 될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은 우리 가족이 영원토록 함께 인봉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축복들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십일조를 내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이러한 특권들을 거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권고는 여러분의 신앙을 행사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시험하며, 여러분의 십일조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십일조를 낸다면,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특별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올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기여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재정, 생활비, 자신과 가족에 대한 보살핌과 관련된 모든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십일조를 내도록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십일조를 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참된 한 원리를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복음 교리, 207~208쪽.
2. 창세기 14:20 참조
3. 신명기 12:6 참조.
4. 느헤미야 10:38 참조.
5. 말라기 3:8, 10.
6. 마가복음 12:41~44.
7. 교리와 성약 119:3~4.
8. 복음 교리, 205쪽.
9. 복음 교리, 205쪽.

내적인 힘을 발전시킴

매리 엘런 더블류 스무트 자매
최근에 상호부조회 회장에서 해임됨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것처럼 진리로 개심하며, 것처럼 신앙으로 가득차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련들을 견디어 낼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시련들에 의해 강화되겠습니까?



제 보좌들과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들을 대신하여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 특별히 여성들에게 충실함과 헌신을 통해 세상 곳곳에서 개인들과 가족들의 생활을 축복하는 데 시간과 재능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성별하여 축복하실 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상호부조회가 베풀 수 있는 봉사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직은 거대한 조직으로 아마도 전세계에 있는 유사한 조직 가운데서 가장 크고 오래된 조직일 것입니다. 그 사명은 선을 행하고, 좌절과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세계 곳곳에 있는 여성들의 삶에 교육과 훌륭한 가사 기술과 다른 기술의 과정들을 도입하는 것입

니다.”

우리에게는 안내자인 상호부조회 선언문,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 그리고 방문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봉사와 단합을 통해 자매들이 내적인 힘을 확대하도록 돕기 위해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적인 힘을 설명드리기 위해, 26세 때인 1856년에 홀로 영국을 떠나 유타로 왔던 수잔나 스톤 로이드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가족 가운데 유일한 교회 회원으로서 윌리 손수레 부대의 일원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개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생명을 위협하는 굶주림, 질병, 피로를 견디어 냈습니다.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자마자 수잔나는 보다 단정한 모습을 보이려고 거울을 빌렸습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몇몇 옛 친구들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¹ 들소고기 한 점을 위해 자신의 거울을 인디언에게 팔았던 터라,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옛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위 산들을 넘고 지독한 역경을 헤치면서 깊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시험을 이겨내었고,

그녀의 개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좋은 거울조차도 비취 줄 수 없는 방법으로 연단되었던 것입니다. 수잔나는 힘을 간구해 왔으며 그 힘을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찾아 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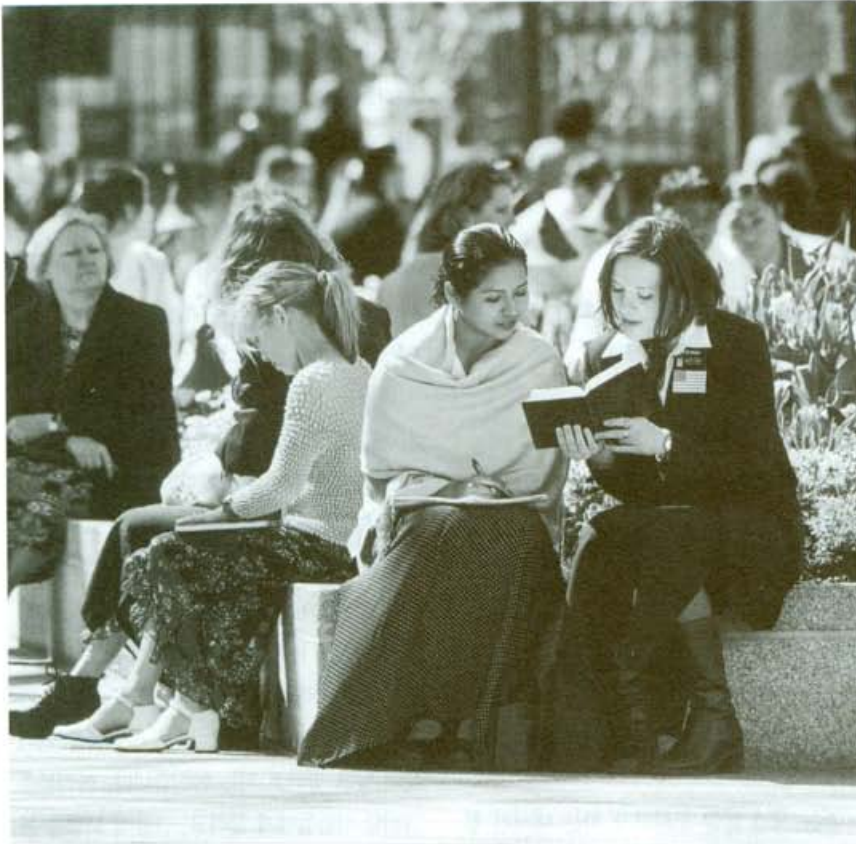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적인 힘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것처럼 진리로 개심하며, 것처럼 신앙으로 가득차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련들을 견디어 낼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시련들로 강화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거의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역경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 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기 자신을 바꿔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끌리고, 그들의 모범을 통해 고무되며, 또 나아가 강화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개척자들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저들이 보여 준 내적인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그들이 전하는 간증의 깊이에 고무되었습니다. 그 자매들은 상호부조회 선언문에 나와 있는 진리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선언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이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원리에 따라 생활할수록, 우리는 더욱 풍성한 내적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내비출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 및 경전 공부는 구세주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내적인 힘을 발전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그에 덧붙여 추가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봉사

우리가 진정으로 개종한다면, 우리의 초



점은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옵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내적인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관심과 욕구로 인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원수를 더 기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에 우리가 머무는 데 봉사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여성 대회나 가정, 가족, 개인 강화 모임,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서, 저는 여러분이 보여 주시는 봉사 활동에 의해 고무되어 왔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유럽 중부 지역 회장님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알바니아와 몰도바의 회원 및 선교사들이 매서운 추위를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상호부조회에서 그들에게 누비 이불을 보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인도주의 봉사부를 방문하여 우리가 1,000장의 누비 이불을

보낼 수 있음을 알았을 때 제가 느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불들은 포장되어 발송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선교부장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지역의 회원들은 그들을 생각해 주고 있는 다른 회원들이 있다는 것에 감명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심없는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자매 여러분,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에서 제언된 주제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 보시고 영적인 힘을 쌓으며, 개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가정과 가족을 강화시키며, 복음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문제에 마음을 덜 빼앗기고 보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단합

내적인 힘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

법은 가족이나, 스테이크, 와드, 회장단 안에서 단합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³ 목적과 생각과 느낌의 단합은 향상을 가져오는 자질들입니다. 우리가 차이점을 제쳐두고 서로의 힘을 귀히 여길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이웃의 잘잘못에 대해 우리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며, ...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 자신의 영혼을 넓히는 일이 중요합니다"⁴ 그러한 관대한 정신이 보다 큰 단합을 부릅니다.

저는 단합된 스테이크나 와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의 보조 조직 회장단은 서로를 지지하며 그들의 노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권 지도자들을 지지하며 함께 힘을 모아 가족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전진해 나갈 때,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노력을 하나로 묶어야만 합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방문 교육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⁵ 새로운 메시지들은 자매들에게 경전과, 대관장단 및 다른 총관리 역원들의 가르침을 통해 복음의 원리에 관해 일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자매들은 그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그들 생활을 어떻게 축복하였는지에 관해 느낌과 경험을 나눌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매 여러분, 이러한 방법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동반자와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녀들과 더 긴밀하게 단합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자기 연민과 낙담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감히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고하였듯이,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자기 자신을 살펴 볼"⁶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보

다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수잔나와 같이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평원을 지나기 위해서 거울을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알지 못할 수도 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개척자 여성들의 내적인 힘에 관해 깊은 사랑의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역경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추위나 비나 더위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느끼고 알고 바랐던 모든 것은 하나님 왕국의 승리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갖는 진지함을 갖고서 이렇게 역설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성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전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교회 상호부조회에 그러한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더욱 강하게 뭉쳐진” 여성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주님께서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업이며 그분의 왕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삶의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세주의 모습을 지닐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주

1. In Carol Cornwall Madsen, comp., *Journey to Zion: Voices from the Mormon Trail* (1997), 634.
2. 교리와 성약 38:27.
3.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1976), 228
4. “이때를 위하여”,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18~23.
5. 고린도전서 11:28.
6.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 189.
7. 엘마서 17:2.
8. 이터서 12:27.

나를 따르라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앙을 갖고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구세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부름을 받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사렛 예수가 그들에게 와서 눈을 들여다 보시며 “나를 따라 오라”는 간단한 말을 했을 때 그물 던지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마태는 그 두 어부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인자는 배에서 부친과 함께 그물을 잡고 있는 다른 두 어부에게 접근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야고보와 요한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구세주께서 사시던 시대에 살았다면 어떠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 그곳에 있었다면 “나를 따라

오라”는 그분의 부름에 따랐을까요?

어쩌면 다음의 질문이 더 현실적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세주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의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현상 상태에서 그물을 두고 떠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물은 크기와 모양에서 다양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버린 그물은 만질 수 있는 물체로 그들이 생계를 꾸려 가도록 돕는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네 명의 어부가 평범한 어부로서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구세주를 따랐을 때 별로 회생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반대로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변창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동업자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선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한 물질적인 희생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으셨다.”

부의 그물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에 순종했다고 주장하는 한 부자 청년에게 덮어 되었습니다. 그가 구세주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 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¹

그물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좀더 좁고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물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르는 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물은 우리의 일, 취미,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혹과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물은 하나님 아버지나 그분의 회복된 교회와의 동반 관계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내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유용하고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쓸데 없고 비생산적이고 때로는 파괴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그것



은 얽어매는 그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즐겨 봅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선수에 관한 모든 것은 알고 있으면서 가족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잊거나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도와 주는 봉사 활동의 기회를 무시한다면, 그 운동은 얽어매는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시대 이후로 인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에 열중한 나머지 생활에서 영적인 면이 무시된다면 일 또한 얽어매는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도한 부채의 그물에 갇혀 있습니다. 이자의 그물은 그들에게 채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팔아 버릴 것을 요구하며 재빨리 그들을 잡아맴니다. 그들은 자유를 포기하고 과도한 낭비의 노예가 됩니다.

구세주를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방해할 수 있는 많은 그물을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자 하는 진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세상의 복잡한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인류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얽어매는 그물이 이처럼 다양하게 가득 찬 시대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 쉽게 약속과 모임 그리고 일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많은 그물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들로부터 도망치라는 제언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심지어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우리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중국에 가면 실제로는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그것들을 이리저리 정신없이 처리하며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힘을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쏟

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주변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리 오시오” 혹은 “저리 가시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끄는 음성과 유혹 속에서도 “나를 따라 오라”고 조용히 우리에게 외치는 한 사람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은 쉽게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에게 어려웠던 몇 년을 기억합니다. 그 때 우리 가족은 일곱 자녀로 불어났습니다. 저는 와드에서 감독단 보좌로 봉사하다가 그 다음에는 감독의 거룩한 부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오랜 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제가 주님께 봉사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 준 훌륭한 아내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주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희생시키는 대신, 저는 보다 일찍 일어나서 사업을 돌보고 나서 좋은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충실한 교회 회원으로서 그에 요구되는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자명종이 울리면 억지로 눈을 뜨고 시계를 바라보며, 오늘도 시계 네가 밥값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제가 하기로 작정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시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구세주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르겠다는 선택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빚진 것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으로 “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² 세상에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그들의 필멸의 삶에 단지 몇 년, 몇 달 혹은 심지어 며칠의 시간을 더해 줄 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 기꺼이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 그들이 지닌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

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구세주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영생입니다.*

구세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불사 불멸이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승영한 상태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과 더불어 무한한 사랑과 커다란 기쁨과 영광에 둘러싸여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이 승영의 상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릴리 사람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주셨던 은사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물에 사로잡혀 그 부름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구세주를 따릅니까?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따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오늘날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따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로 인해 슬픔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버림으로써 구세주를 따릅니다.

침례의 물에 들어가고, 죄를 사함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아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위로하도록 함으로써 구세주를 따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세주를 따릅니까? 그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를 따릅니다. 그분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벌하거나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생과 다가올 끝없는 영원한 세상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죄와, 쾌락과 우리의 책임

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고, 성신의 영향을 거부하며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제쳐놓을 때, 우리는 자신을 단단히 얽매고 있는 그물에 갇혀 자신만의 갈릴리 해변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물을 뒤에 남기고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는 오늘도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인식하겠습니까? 그를 따르겠습니까?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구세주를 따를 경우, 우리의 삶이 근심, 고통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세주께서도 간고를 많이 겪은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랐던 초기 제자들은 큰 박해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초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녀는 18살 때 구세주의 부름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른 교회에서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녀에게 화를 내며 침례를 받지 못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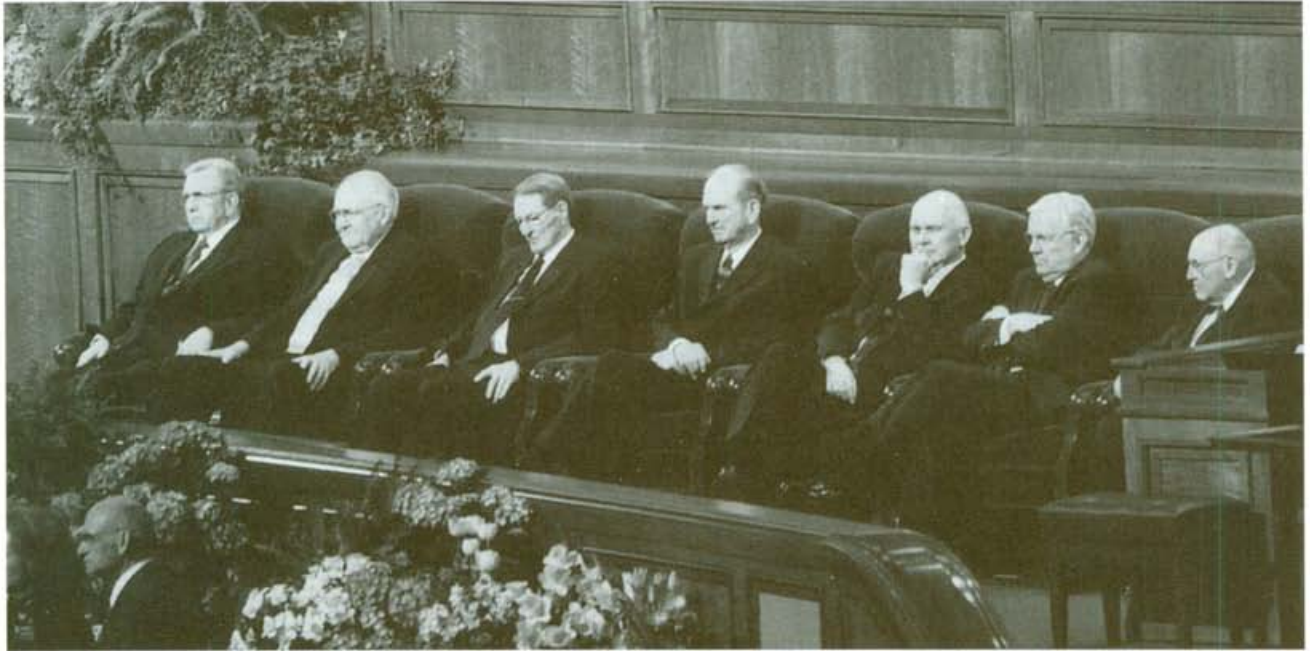
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만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다면 가족으로부터 의절을 당할 줄 알라고 했습니다. 희생은 엄청난 것이었지만 이 젊은 여성은 구세주의 부름에 귀를 기울였으며 침례의 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며 강압적으로 그녀의 새로운 신앙을 저버리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교회 회원이 된 딸의 결정을 심하게 비난했으며 새로운 종교를 거부하고 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분노와 비통함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앙을 강하게 지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구세주의 부름을 받아들였다는 점과 결과가 어떠한지라도 그분을 따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언어나 감정적인 학대를 견뎌 냈습니다.

결국, 이 젊은 여성은 아버지의 위협과 불친절로부터 멀리 떨어져 친절한 회원 가정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충실한 청년을 만나 성전에서 결혼하여 성전 결혼에 따르는 훌륭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구세주의 부름에 따르기 위해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결코 그 길이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

요셉 스미스 기념관이 솔트레이크 성전 동쪽에 있는 언뜻엔 반사되어 보인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그리고 조셉 비 워스린 장로가 연단에서 청중들을 마주보고 있다.

는, 신앙을 갖고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구세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리라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이 교회의 훌륭한 회원들을 만나면서, 저는 구세주의 부름을 듣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충실함에 의해 격려 받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점심 시간에 경전을 읽는 것을 보고 동료들이 놀리지만 30년 이상을 그렇게 해 온 한 제철소 직공은 매일 매일 구세주를 따릅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70세 된 미망인은 그녀가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북돋아 주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른다고 해 줌으로써 구세주를 따릅니다. 기도를 통해 우주의 주님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어린이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 이웃을 위해 후하게 바치는 부유한 회원도 구세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충실한 어부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에 충실한 어부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나를 따라 오라"는 음성을 들으려 하

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부름을 발하시며 오늘날 서 계십니다.

우리는 돌보아야 할 그물과 손질해야 할 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땅과 하늘의 주님께서 "나를 따라 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적인 그물 뒤에 남기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형제 지매 여러분, 저는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음을 기쁜 음성으로 외칩니다. 하늘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열렸으며,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존재의 신성한 인도와 지도 아래에서 영원한 진리가 다시 한번 인간에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진리에 매일 자신의 증거를 더하는 또다른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시대에 살아 계십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께서는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그분의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곁에는 고귀한 보좌들이 계십니다. 그와 더불어 그분에게는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정원회,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분을 돕고 있는 수백만의 회원들

이 있어 그분을 지지하는 힘이 되고 있으며, 이들 각자는 다시 한번 인간에게 회복된 영광스러운 복음의 회복을 외치며 자신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 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저는 오늘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가 구세주의 사랑 많은 눈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임을 간증합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분을 따른 우리의 결정의 가치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부름을 듣고 즉시 우리를 얽어매는 그물을 버리고 기쁘게 그를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4:18~22 참조.
2.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222쪽.
3. 마태복음 19:21~22.
4. 요한복음 11:25.
5. 마태복음 11:28.
6. 교리와 성약 14:7.
7. 요한복음 10:26~27.
8. 이사야 53:3; 모사야서 14:3 참조.
9. 요한복음 14:6.

숨겨진 썰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 시대의 불평거리와 분노를 미래의 시대에 넘겨주지 맙시다. 파괴 이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숨겨진 썰기를 제거하도록 합시다.



“철제 썰기의 이야기는 현재 그 호도 나무가 서 있는 농장에 사는 반백의 농부가 그 소년이었던 시절에 시작된다. 그 당시 계곡에서는 제재소가 이주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이주자들은 그 주변에 흩어진 연장이며 벌난 장비들을 발견하곤 했다. 바로 그 날 소년이 남쪽 목초지에서 발견한 것은 넓고, 납작하고, 무겁고, 한 자나 되는, 심하게 두드러 벌어진 벌목공의 썰기였다. [벌목공의 썰기는, 나무를 쓰러뜨릴 때 사용되는데, 톱으로 자른 자국에다 끼워 넣어 큰 해머로 두드려 그 톱을 넓힌다. 이미 저녁 식사에 늦었기 때문에, 그는 부친이 앞 문 부근에 심어 두었던 어린 호도나무 가지 사이에 썰기를 올려 놓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나 그 쪽으로 갈 때가 있을 때 헛간에 갖다 두려 했던 것이었다.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이었지만, 소년은 곧 잊어 버리고 말았다.

“그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썰기는 가지 사이에 꼭 끼어 있었다. 그가 결혼하고 부친의 농장을 물려 받았을 무렵, 썰기는 이미 나무에 박혀있었다. 탈곡 인부들이 나무 아래에서 점심을 먹던 때에는 이미 반쯤 들어가 있었다 ... 완전히 들어가 아문 채로, 얼어붙는 듯한 폭풍우가 치던 겨울, 썰기는 여전히 나무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겨울 밤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 세 개의 큰 가지 중 하나가 즐기에서 쪼개져 땅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균형을 잃은 나머지 부분도 또한 쪼개져 떨어졌다.

폭풍이 끝났을 때, 한때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나무에는 잔가지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이른 새벽에, 농부는 밖에 나가 호도나무를 잃은 것을 슬퍼했다 ... 그러다, 산산히 쪼개진 잔해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남쪽 목초지에서 찾았던 썰기.’ 그는 자책하듯 중얼거렸다. 한눈에 나무가 왜 넘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 썰기가 가지 안으로 파고 들어, 가지가 섬유질로 단단히 결합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숨겨진 썰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오랜 친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레오나드입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교회에 다녔지만, 그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초등학교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아들은 명예롭게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의 딸과 아들은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결혼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가졌습니다.

레오나드를 알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으며,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에서 부름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교회에서 후원하는 여러 행사에 그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는 훌륭하고 깨끗하게 살았으며, 친절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레오나드가 어떤 이유로 복음이 회원들에게 주는 축복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지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레오나드는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입원하게 되었으며 임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레오나드와 나는 마지막 대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톰, 난 자네가 소년이었을 때부터 자네를 알아 왔네. 내가 왜 교회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느낌이 드네.” 그런 후에 그는 아주 오래 전에 그의 부모가 겪었던 경험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 가족들은 마치 못해 농장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할 지

19 66년 4월, 교회의 연차 대회에서, 스펜서 터블류 김볼 장로는 잊혀지지 않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는 사무엘 티 휘트먼이 쓴 “잊혀진 썰기”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오늘 저도 사무엘 티 휘트먼의 글을 인용한 후 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티 휘트먼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겨울의 얼어붙는 듯한 폭풍우는 그다지 파괴적이진 않았다. 물론, 전선이 조금 끊어지고,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갑자기 늘어났다. 큰 호도 나무가 가지를 뒤덮은 얼음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무를 해친 것은 나무 중심에 박혀 있던 철제 썰기였다.

경에 이르렀으며, 마침 사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이웃에 살던 농부가 더 낮은 가격에 농장을 자신에게 팔라고 하며, “우리는 아주 가까운 친구로 지내왔소. 그래서 내가 이 농장을 소유하게 되면, 잘 돌볼 수 있을 것이요” 하고 부연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모님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농장을 팔았습니다. 이웃이던 구매자는 교회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터라, 그에 대한 신뢰가 그 농장을 그에게 팔도록 가족을 설득하는 데 한 몫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관심을 갖고 있던 첫번째 구매자에게 팔았더라면 돈을 얼마나 더 받았을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 거래가 성사된 지 얼마 후에, 그 이웃은 자신의 농장과 레오나드가 가족에게서 구매한 농장을 하나로 묶어 가치를 최대화하여 판매가를 높인 후에 팔아버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레오나드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오랜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가족이 그 이웃에게 속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마친 후에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면서 마침내 마음 속에 있던 큰 짐을 털어 낸 것 같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비극은 감춰진 죄가 레오나드가 더욱 높이 날아 오르는 것을 막아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한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들은 모두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셋째 아이가 태어났지만, 두 달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장식장 제조업자인 아버지는 자신의 소중한 아이의 시신을 위해 아름다운 관을 만들었습니다. 우울한 장례일의 날씨는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그 가족이 느꼈던 슬픔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관을 옮겼으며, 가족이 뒤따라 예배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수의 친구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바쁜 감독이 장례식을 잊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

용이 없었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아버지는 관을 팔에 안고 가족들과 함께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이 낮은 품성을 지녔더라면, 감독을 비난하며 나쁜 감정을 마음에 담아 두었을 것입니다. 나중에야 그 비극적인 사건을 알게 된 감독은 그 가족을 방문하여 사과를 했습니다. 표정에는 아직도 상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그 아버지는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둘은 이해의 영으로 서로 포용을 하였습니다. 분노의 느낌이 계속되게 할 감춰진 죄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습 니다. 사랑과 관용이 넘쳐 흘렀습니다.

영은 강한 족쇄와 잠들지 않는 약감정으로 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삶이 가벼워져 영혼이 쾌활해집니다. 수많은 가족에게서 상한 감정과, 용서를 꺼려 하는 모습 들을 봅니다. 쟁점이 무엇인가는 사실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입도록 남겨질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비난은 계속해서 상처를 드러냅니다. 오직 용서만이 치유합니다. 17세기 초의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를 때려 부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용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잔혹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거두실 무렵에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 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단 점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죽어 가는 한 여인의 옆에서 그녀를 위로하려 하 지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한 종교 지도 자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구원 받지 못해요. 제 삶과 제 주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망쳤어요. 제겐 희망이 없어요.”

그는 옷장에서 한 사랑스런 소녀의 사진 이 들어 있는 액자를 보았습니다. “이 소녀



는 누구죠?” 그가 물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 딸이에요, 제 인생에서 오직 하나 뿐인 아름다움이죠.”

“그 애가 곤경에 처하거나 실수를 한다면 도와 줄 건가요? 용서하실 건가요? 여전히 사랑하시겠어요?”

“물론이죠!” 여인이 외쳤습니다. “저는 제 딸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겠어요. 도대체 그런 질문은 왜 하시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셨으면 합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옷장 속에 당신의 사진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부탁하십시오.”

그녀의 행복을 가로막는 감춰진 뉘끼가 제거되었습니다.

위험한 시기나 시련의 때에, 그러한 지식, 혹은 그러한 희망, 혹은 그러한 이해는 불안한 마음과 비탄하는 가슴에 위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신약의 전체 메시지는 인간의 영혼에 자각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절망의 그림자는 희망의 빛에 의해 쫓겨나며, 슬픔은 기쁨에 굴복하고, 군중의 삶 속에서 잃어 버려진 느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마음 쓰신다는 명확한 지식과 함께 사라집니다.

구세주께서 한 마리의 참새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을 때, 그분은 이 진리의 확실성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그 아름다운 가르침의 결론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³

얼마 전에 저는 신문에서 연합 통신이 보내온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노인이 그 형의 장례식에서 이런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그 형과 뉴욕주, 캐니스테오 근교에 있는 조그만 단칸 방에서 같이 살아 왔다. 그런데 어느 날 말다툼을 한 후로, 그들은 분필로 선을 그어 방



솔트레이크 성전과 “어머니와 자녀들의 동상”은 모두 영원한 가족의 중요성을 상징하고 있다.

을 반으로 나누고 그 선을 넘거나 서로에게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지내 왔다. 62년 전부터의 일이었다.” 얼마나 강하고 파괴적인 숨겨진 뉘끼입니까!

알렉산더 포프는 이런 시귀를 남겼습니다. “실수하는 것은 인간이요, 용서하는 것은 신이다.”⁴

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화를 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진실한 사과를 받아들이는데 너무 완고합니다. 자아, 자존심, 상심을 굴복시키고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때 우리가 나눴던 우정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시대의 분노와 불만을 미래 세대에게 넘겨 주지 맙시다.” 파괴 밖에 할 줄 모르는 감춰진 뉘끼를 제거합시다.

감춰진 뉘끼는 어디서 유래됩니까? 어떤 것들은 해결되지 않은 논쟁에서 비롯되어 악 감정을 갖게 하고, 마침내 회한과 후회가 따르게 합니다. 다른 것들은 실망이나 질투심, 논쟁, 상상에 의한 상심 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 그것들을 잠들게 하고 썩고 풀아 마침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90세가 넘는 한 사랑스러운 부인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뜻밖에도 후회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오래 전

에 그들 부부가 이따금 이웃의 한 농부와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 농부가 자신의 농지로 가기 위해 그들 소유지를 가로질러 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던 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미, 난 그에게 우리 땅으로 지나갈 수 없으니 먼 길을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지요. 그 일을 후회한다요. 그는 이제 가고 없지만, 그에게 미안하단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다시 한 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존 그린리프 휘티어의 글귀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말로나 글로 나타낼 수 있는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렇게 했더라면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⁵

물론경의 니파이삼서에는 이 영감에 찬 권고가 나옵니다. “다툼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라 ...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 자니 악마가 분쟁의 아버가 됨이라. 저가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여 서로 성내게 하며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고 분노를 돌구어 서로서로 다투게 함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요, 이러한 일을 금하게 함이 나



컨퍼런스 센터로 오고 있는 회원들과 방문자들이 컨퍼런스 센터의 2층 좌석으로 이어지는 입구를 지나고 있다.

의 가르침이라.”

제게는 영웅과도 같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유타 주 미드웨이로 알려진 한 평화로운 계곡에서 행해졌습니다.

여러 해 전에 로이 켈러와 그랜트 르문드는 교회의 여러 직책에서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한 사람은 땅을 경작했으며 또 한 사람은 낙농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들 사이에 오해가 생겨 약간의 틈이 벌어졌습니다. 후에, 로이 켈러는 암으로 매우 위독해졌으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프랜시스와 저는 로이를 방문하여 그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켈러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일생에서 경험한 가장 감미로운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후 그는 그랜트 르문드 사이에 생겼던 오해와 뒤따른 반목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여 저는 건초 더미를 쌓아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자연 발화의 결과로, 건초에 불이 나, 건초며, 헛간,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도대체 뭘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은 캄캄했고, 다 타버린 잿더미에서 식어가는 불씨만 가물거렸습니다. 그 때 그랜트 르문드 집 방향의 도로에서 트랙터와 중장비의 불빛이 저를 향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조팀이 우리 집으로 들어서며 눈물에 젖은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랜트가 말했습니다. ‘로이, 치워야 할 쓰레기가 많네. 자, 우리가 왔어. 시작하자구.’ 그들은 함께 눈앞에 놓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잠시 갈라 놓았던 감춰진 썩기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밤을 지새워 그 다음날까지 일했습니다. 날이 새자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거들었습니다.

로이 켈러는 저 세상으로 갔으며, 그랜트

르문드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같은 와드 감독단에서 함께 봉사해 왔습니다. 저는 참으로 훌륭한 두 가족의 우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모범이 되며 하나님의 모는 계명을 지키는 데 충실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감춰진 썩기도 마음에 품지 말고 이러한 구세주의 훈계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이것이 저의 간청이며 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대회 보고, 1966년 4월호, 70.
2. 누가복음 23:34.
3. 마태복음 10:31.
4. *An Essay on Criticism* (1711), part 2, line 525.
5. “Maud Muller,”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Whittier* (1892), 48.
6. 니파이삼서 11:28~30.
7. 요한복음 13:35.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형제 자매 여러분, 형클리 대관장님의 지시를 받아 이제 제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고든 비트너 형클리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제임즈 에스드라스 파우스트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네스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

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들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이랄드 엔 런드 장로와 윌리엄 알 워커 장로를 칠십인 제2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해 주셨던 케이 에이치 크리스틴슨, 클레

이튼 에스 후버, 데이비드 로페즈, 하이드 엠 메릴, 아델슨 드 파올라 파렐라, 알 고든 포터 형제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 앨런 앤더슨, 데이비드 에스 백스터, 시 앨머 블랙 2세, 지 린 브렌칠리, 일테판소 드 카스트로 데이우쉬 네투, 클레이튼 엠 크리스틴슨, 에어네스토우 에이 다 실바, 액터 에이 다발로우스, 제임즈 던럽, 제임즈 엠 던, 아이 리 엔스, 칼러스 알 패어난테이스, 존 알 김슨, 스티븐 더블류 헨선, 엠마뉴엘 에이 키시, 비 레이나토우 말도우나도우, 제프리 제이 마천트, 제럴드 에이 미드, 민해기, 로드리고우 마이아, 마사우끼 나가노, 야수오 니야마, 칼로스 엘 페이드라자, 칼로스 에이 페이레이스, 디 채드 리치드슨, 모리 더블류 스퀴프, 엠 건잘로 셰이플베이다, 티 라마 슬리이트, 존 시 태거트, 앤터니 알 템플 형제님을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본부 상호 부조회 회장단으로 봉사하신 매리 앨런 스무트, 버지니아 유 젠슨, 셰리 엘 듀 자매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저희는 또한 본부 상호 부조회 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해임합니다. 지

오르간 연주자인 리처드 엘리엇가 토요일 오전 모임 동안 태버내를 함창단의 반주를 맡았다.



지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본부 상호 부조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보니 레이 댄시 파킨 자매를, 제1보좌에 캐스린 히스트 휴즈 자매를, 제2보좌에 앤 크라크 핑그리 자매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직원들과 칠십인 지역 관리 직원 및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헝클러 대관장님을 모두 만장 일치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끊임없는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교회 감사부 보고서

보고자: 웨즐리 엘 존스 형제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

수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존 경하는 대관장단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감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감사부는 본부의 다른 부서와 운영 단체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의 관리 책임자가 직접 정기적으로 대관장단에게 보고합니다. 교회 감사부 직원들은 공인 회계사,

공인 내부 감사관, 그리고 자격 있는 다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관장단의 지시에 따라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부서와 전세계의 모든 운영 단체들을 감사할 권능을 갖고 있으며, 교회 현금, 지출 및 자원에 대해 감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 인력, 부동산 및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

컨퍼런스 센터 안에 대회 참석자들이 가득 차 있다.



습니다. 손해는 감사의 선정과 실행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2001년의 교회 기금 지출은 십일조 지출 평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평의회는 계시에 규정된 대로 대관장단과 심이사도 정원회와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지출은 예산 지출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예산 및 재정부를 통해 관리됩니다. 승인된 예산의 관리 상황은 감사하고 보고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감사에 근거해 2001년 12월 31일 말 기준으로 하는 한 해의 연간 현금 영수와 지출이 모든 면에서 승인된 예산 지침과 현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밝힙니다.

교회와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을 하는 교회 관련 업체들의 재정 상태는 2001년에 교회 감사부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에는 데저렛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 및 계열 회사와 브리검 영 대학교와 다른 고등 교육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업체들의 재정 상태는 독립 공인 회계 회사가 감사했습니다. 이외에 교회 감사부는 각 업체의 감사 위원회와 함께 이러한 감사 결과에 대한 해당 보고가 진실함을 확인했습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감사부

웨즐리 엘 존스

관리 책임자

2002년 4월 1일 □

2001년도 통계 보고서

보고자: 에프 마이클 왓슨 형제
대관장단 서기

형 제 자매 여러분, 대관장단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성장과 현황에 대한 다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수	2,607
지방부 수	618
선교부 수	333
와드 및 지부 수	26,084

교회 회원

교회 회원 총수	11,394,522
2001년에 증가된 기록상의 자녀 수	69,522
2001년 동안 침례 받은 개종자	292,612

선교사

전임 선교사	60,850
--------	--------

성전

2001년 동안 헌납된 성전 수	5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네브래스카 주 윈터 쿼터즈, 멕시코 과탈라하라,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워싱턴 컬럼비아 리버)	
현재 운영 중인 성전 수	107

작년 4월 이후 작고한 교회의 저명 인사들

로렌 시 던 장로, 명예 총관리 역원 및 매사추세츠 보스턴 성전장(작고시); 메를린 알리버트 장로,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함; 조지 알 힐 삼세 장로,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함; 필리스 닐슨 리브, 명예 총관리 역원인 렉스 시 리브 일세 장로의 부인; 에버넬 리차드 오스본,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한 스펜서 에이치 오스본 장로의 부인; 니오미 워드 랜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보좌를 역임함, 찬송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작사자. □



완전한 개종이 가져오는 행복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의 현재와 영원한 행복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어질 개종과 변화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 리 모두는 시종일관 옳은 일을 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이며, 심지어 삶에 대해 열성적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비록 매력적인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서슴없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유혹을 받으나,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 자신들이 맺은 결심에 그다지 융감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강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그들은 보다 잘 하겠다고, 인생의 진로를 바꾸겠다고, 해로운 나쁜 습관을 버리

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변화하겠다는 각오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겠다고 결심한 그 일들로 곧 되돌아 갑니다.

이 두 부류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시종일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경전은 그에 대해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열렬하고 성급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삼년 동안 그는 주님 곁에서 사도로서 봉사하며 기적을 목격했고, 변화를 가져오는 가르침과 비유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의 수행 방문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형을 경험했습니다.¹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구세주께서는 여전히 베드로에게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에 대해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해서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경전에서 다음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²

베드로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말들은 분명히 빈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진

심이었으나 행동은 달랐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는 그의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진지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결연히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³

세계 가장 감동적인 경전 구절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알고, 나아가 올바르게 행하겠다는 강렬한 소망을 갖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 차분하게 일깨워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종종 매우 어렵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도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 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⁴

그 예언의 성취가 베드로에게 고통스러웠던 것만큼, 그의 생애는 영원한 변화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의 계획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흔들림 없는, 바위 같이 견고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구절은 또한 구세주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크게

사랑하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삶에 주어진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던 와중이었으나, 그분의 어깨로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지시고도,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위대한 스승의 사랑은 어려움에 처한 사랑하는 제자에게 전달되어 용기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자신의 부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위협이나 투옥, 채찍질 등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흔들리지 않는 간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참된 개종을 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개종이라는 단어는 진실한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고 결정했을 때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를 제대로 사용한다면, 개종은 새로운 개종자뿐 아니라 오래된 회원에게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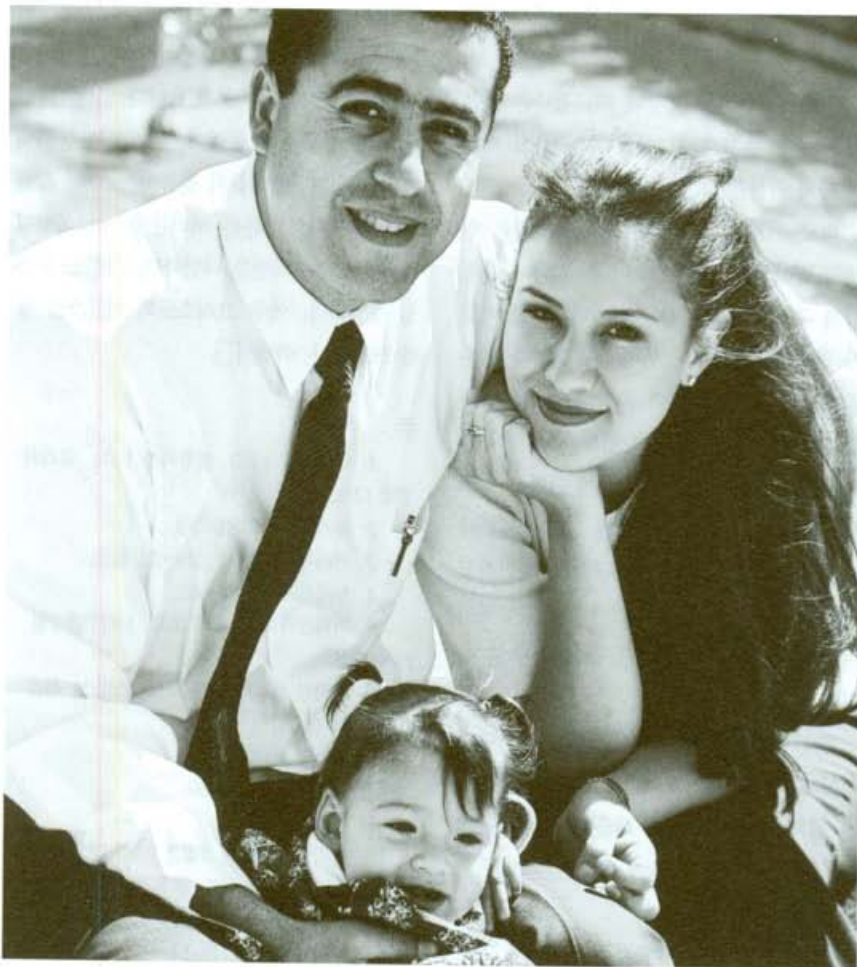
그분만의 독특한 특성이기도 한 교리적 명확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개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종한다는 것은 하나의 믿음이나 행동의 진로로부터 다른 것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종이란 영적이고 도덕적인 변화입니다. 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여 변화의 동기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관심사나 생각, 행동 등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진실로 온전하게 개종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는 그 어떤 한 것들에 대한 욕망도 실제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확고하고도 지배적인 각오와 함께 하나님에 대

한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개종하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확고하고도 지배적인 각오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핵심적 표현을 여러분의 생활에 부지런히 적용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와 영원을 위한 여러분의 행복은 개종과 그 개종이 여러분의 생활에 가져온 변화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로 개종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까? 롬니 부대관장은 여러분이 따라야 할 단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교회 회원 자격과 개종이 반드시 동의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개종했다는 것과 간증을 갖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간증은 성신이 진지한 추구자에게 진리를 증거해 줄 때 오는 것입니다. 심금을 울리는 간증은 신앙에 활력을 줍니다. 다시 말해, 간증은 회개와 계명에 대한 순종을 가져옵니다. 개종은 회개와 순종의 열매 곧 보상입니다.”⁵

간단히 말해, 참된 개종은 신앙과 회개, 그리고 일관된 순종의 열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⁶ 그 말씀에 응함으로써 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받아 들인 것들을 기꺼이 행함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확인의 증거를 성신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⁷ 여러분은 그릇되게 행해진 일들이나 행하지 않은 옳은 일로 인해 기인된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인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꾸준히 순종하는 여러분의 능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신앙과 회개, 그리고 일관된 순종으로 이루어진 이 순환은 여러분을 보다 큰 개종과 그에 따른 축복들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참된 개종은 상황에 상관없이 그렇게 행해야 할 때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주님의 말씀이 전도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일반





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여러분 생활의 각기 다른 상황, 곧 여러분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나 강한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세주의 말씀이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동안, 또는 여러분 자신의 기도와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또는 성신의 인도를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설명을 제가 되풀이 하는 동안 여러분의 삶을 마음 속으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기에 부적절한 상태에 있는 까닭에 행복과 평안 및 발전이라는 약속된 열매를 상실했던 시기는 없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어떤 씨는 길 가에 [뿌려졌다는 것의] ...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잘못된 환경에서 잘못된 교우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에게 그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사람이 부적절한 것을 제외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에 저항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 빠져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뭔가를 너무나도 원하여 여러분의 표준에 예외를 두는 것을 정당화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어떤 이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싶은 인생의 방식임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온전하게 구세주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 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 곧 축복을 거두어 들일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 비유는, 달리 행하려는 자기 합리화를 이겨 내고, 자신이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들에 기꺼이 순종하는 정도가 얼마나 진실되게 개심하였는지를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온전하게 축복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참된 개종은 세상이 혼란스럽고 대다수가 행복하지 않을 때에도 즐길 수 있는 영속적인 행복을 열매로 맺게 해줍니다. 어려움에 빠진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대해 물문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무리가 자주 금식하고 기도

하여 겸손한 중에 더욱 강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 날로 굳건하여져서, 위안과 기쁨으로 가득하여지며 마음이 청결하며 성결하게 되니, 이는 오직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았음이라.”

헝클리 대관장님은 변화를 만드는 것은 참된 개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¹⁰ 참된 개종으로부터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 돌아와 회개하여 개심하고,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 너희가 내게로 오면 영생을 얻으리라.”¹¹

인도를 간구할 때, 성신은 여러분이 온전히 개종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변화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런 연후에 주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신앙이 강화될 것이며, 회개하는 능력이 커질 것이며, 한결같이 순종하는 힘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도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17:3, 열왕기상 17:1, 교리와 성약 110:13.
2. 누가복음 22:31~32.
3. 마가복음 14:27, 29~31 참조.
4. 누가복음 22:56~62.
5. 과테말라 지역 대회 보고, 1977년 2월 21~22일.
6. 로마서 10:17,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7권, 99쪽.
7. 이디서 12:6.
8. 마가복음 4:14~20.
9. 힐라맨서 3:35.
10. 엔사인 1996년 5월호 75쪽 “개종과 결심”, 1984년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더블류 맥 로렌스가 한 말씀.
11. 니파이삼서 9:13~14.

참된 친구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모두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말을 들어 주고, 방법을 보여 주고, 또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 간증하여 주는 참된 친구가 필요합니다.



매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수십만 명의 자녀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삶에서 커다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모두 위대한 약속과 견디어 내겠다는 엄숙한 서약과 더불어 거룩한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 성약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예언자 니파이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과 과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들었나니,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이 참되며 진실하다.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로써 내가 아노니, 살아 계신 아버지의 아들의 본을 따라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수 없느니라.”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가기

시작하여 상당히 가다가 그만두고 그분을 부인하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²

저는 새로 교회 회원이 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계 전역에서 종종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어린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때때로 자신이 겪은 신앙의 시련에 관해 제게 말하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주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책임의 무게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의 짐을 나누어”지겠다고 침례의 물가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³ 그것은 친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의 다음 말씀은 제게 힘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교회 회원을 충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또한 간청합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⁴

헝클리 대관장님께서 새로운 모든 회원과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적어도 한 분에게 친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란 그들이 느끼는 것과 구세주께서 그들을 위해 느끼시는 어떤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구에 관해 편지를 보냈던 아프리카에 있는 응코시야보 에디 루팔라라는 젊은이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999년에 교회에 가입하기 2년 반 전에, 제 친한 친구인 음부티 요나가 저를 물어 물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친하게 지내다가 각기 다른 [학교]로 가는 바람에 헤어졌습니다.

“음부티는 1999년 4월에 침례를 받았으며, 4주 후에 집으로 저를 찾아와서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교회에 관한 소문에 상관없이 제가 처음 교회를 찾아갔을 때 ‘동료 성도들’이 보여 준 따뜻한 환영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일요일에 친구는 제게 선교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복음 토론을 위한 약속을 정했습니다. 제 친구는 토론을 할 때마다 참석했으며 계속해서 활동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같은 가치관, 관심사, 표준과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5시 30분]에 선교사 토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 교육원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종교 교육원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특히 ‘해의 왕국의 결혼을 성취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우리 반 수업을 좋아했습니다. 참석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5월에 첫 학기가 끝났을 때 다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2학기 수업에서는 ‘살아 계신 예언자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는 동안 표준 경전을 구입하여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더하여 교회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1999년 9월 17일에 종교 교육원에서 사귀던 다른 친구에 의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5 개월 동안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봉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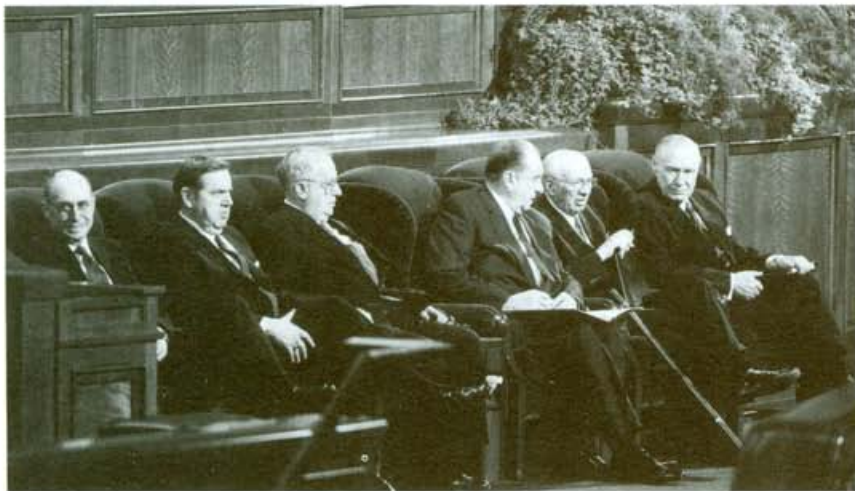
“저는 친구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친구가

저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더반으로 갔으며 그 친구는 남아프리카 케이프 타운으로 갔습니다. 친구가 인생에서 그러한 모든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⁵

자, 이 이야기에는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지혜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찌면 음부리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었거나 아니면 니파이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혹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친구가 견디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친구를 격려하고 도와 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선교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친구가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친구가 침례도 받기 전에 그가 경전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친구가 침례도 받기 전에 그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발견하도록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⁶ 그 말씀은 분명 그에게 경전을 구입하라고 말했을 것이며 또

대관장단이 대회 전에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그리고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가 청중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루팔라 형제는 그가 성신을 불러들이고 또 그에 합당하게 사는 한 그의 끊임 없는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될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또다른 약속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하거니와, 너희가 주의 길에 임하여 성신을 받으면 성신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모두를 너희에게 보여 주시리니.”⁷ 성신은 분명 그에게 선교 사업 준비를 시작하라고 말했을 것이며 또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침례를 받기 전이나 후에 어떤 친구들이 그와 함께 성찬식에 갔는지 모릅니다만 누군가가 평소와 같이 그가 처음으로 교회에 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항상 구세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또 성신이 동반하리라는 약속을 다시 받기 위해 자신의 성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가 봉사하고 가르치는 부름에서 친구들이 어느 만큼의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봉사하고 가르치는 동안 그들이 영을 느꼈을 때 그에게 감사를 표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배웠다고 적었

습니다.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배워 교회에서” 성장했다고 적었습니다. 교회 교육 기구 종교 교육원에서의 경험이 자신을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에게 그러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경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구세주를 믿는 신앙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영을 통해 그는 간증과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라고 영감받은 것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속죄가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기적과 무엇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며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너희가 마음으로 염려함을 아노니, 이 일이 나를 슬프게 하여 이러한 것을 말하게 하였도다. 너희가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는 영에게 귀기울였던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리라. 악령은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가르쳐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힘을 잃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아무것도 주 앞에 행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일이 너희들 영육에 이로운 것이 되도록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성결케 하시리도다.”⁸

성신은 보혜사이며 안내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왕국에서 봉사하는 것이 견디는 데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성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간구할 때 우리 영혼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시험에 대비하여 자신을 강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본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견디어야 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받게 될 힘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완전하신 친구인 구세주를 신뢰하고 침례 받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회개하며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신의 은사를 받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으로 "성신을 받으라"는 하나의 권유가 주어집니다. 그러한 선택은 단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시, 매분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성신이 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영감을 준다 하더라도 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경전을 정기적으로 읽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행하라 말하는 것들을 행하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말씀에서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신앙과 순종을 나타내 보일 때, 성신이 변치 않는 동반자가 되고, 견디는 것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회원들이 그런 선택들을 해야 하긴 하지만, 참된 친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회원의 짐을 나누어지는 데에는 중요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보이고, 경청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세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또 그분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는 동안 그분께서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교훈과 모범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제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구세주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 친구로서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충실하다면, 우리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일부를 느낄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따금씩 성신의 축복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로운 회원들을 위한 구세주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해력과 동정심을 갖고 새로운 회원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들과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에는 영적인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는 달리 행하십니다. 신앙을 갖고 구한다면 방금 만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이 그들을 이해하는 친구가 되도록 도와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예언자들은 그분께서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그를 대신하여 친구가 되도록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리니,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또한 그는 그의 백성을 얹어맨 죽음의 사슬을 푸시려 죽음을 당하실 것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 차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 함이었느니라."¹⁰

셋째, 우리는 새로운 회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성신의 동반을 간구하고 또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만간 속죄를 통해 거듭나는 제자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이 거듭났다는 점을 스스로 분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변화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회원과 영생의 길에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 주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새로운 회원에게 진리에 대해 간증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지해야 하며 단순할 때 가장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재와 사명에 대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그리고 성신의 은사와 동반에 대해 간증할 때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린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으며, 충만한 복음과 참된 교회가 하늘의 사



자들에 의해 회복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신이 그러한 단순한 가르침들을 진리로 확인해 줄 것입니다.

새로운 회원들은 우리가 함께 하여 그들에게 간증을 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듭해서 그러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신의 동반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제까지 얼마나 충실히 왔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말을 들어 주고, 방법을 보여 주고, 또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 간증하여 성신의 동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참된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참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친 친구들이 아직도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값지 않은 그들이 보여 준 사랑과 모범과 신앙 그리고 간증에 대한 추억은 여전히 저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 한 사람에게 보여 주는 여러분의 우정은 이생과 다음 세상에서 그들의 수백 또는 수천의 조상과 후손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가리켜 복되다 할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봉사해야 하고 영원히 여러분의 참된 친구가 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서서 31:15~16.
2. 니파이서서 31:14; 교리와 성약 40:1~3; 41:5~6 참조.
3. 모사이야서 18:8.
4. 모임, Edmonton, Alberta, Canada, 1998년 8월 2일.
5. 개인 서한.
6. 니파이서서 32:3.
7. 니파이서서 32:5.
8. 니파이서서 32:8~9.
9. 요한복음 15:12~15.
10. 열마서 7:11~12.

신앙의 순종

알 콘래드 슐츠
칠십인 정원회

“신앙의 순종”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합니까? 우리는 예언자를 신뢰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물이 늘 보이는 그대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유혹하는 강력한 힘을 깨닫지 못합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뭇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보이는 것과는 달리 속임이 있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유타에서 처 사촌과 그 가족들이 저희를 방문했습니다. 조용한 여름 날 우리는 오리건 주 해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활동은 즐거웠습니다. 연어를 잡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저는 우연히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2.5미터나 되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소리를 지르기가 무섭게 파도가 우리의 뱃전을 덮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배는 그대로 있는데 사촌인 게리가 배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멍 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물이 반이나 차 있는 배를 간신히 움직여서 그가 떠 있는 곳까지 가 그를 건져 올렸습니다.

우리는 소위 예고 없는 파도의 급습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주 있는 일도 아니며 그러한 파도는 사전에 예측할 방법도 없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날 오리건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해변에서 각기 다른 세 건의 배 사고로 다섯 명이 익사했습니다. 모두 예고 없는 파도로 인한 사고였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바다에서 생겨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백사장으로 나갈 때, 바다는 잔잔하고 조용했으며, 어떤 위험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곁보기와는 달리 바다에서 속임을 당할 수 있으며 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인생의 여정을 헤쳐 지나는 길에서 우리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생의 예고 없는 파도는 바다에서와 마찬가지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비열한 한 가지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리와 계명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순종하는 것은 맹종이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방법과 이기적인 야욕을 따라야 한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예언자를 따르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생각하는 것



한 가족이 템플 스퀘어의 북방문자 센터에 있는 그리스도 조각상 앞에서 있다.

이 아니라고 설득함으로써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 계신 예언자 또는 경전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예언자가 그렇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지적인 것은 아니라고 그는 가르칩니다.

주님의 계명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순종하는 것은 맹종이 아닙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198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이 점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일성도들은 순종하도록 강요 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개인적인 자유의지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맹종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며, 이유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Agency and Control", *Ensign*, 1983년 5월호, 66쪽)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 제물로 준비했으며, 신앙으로 순종하여 노아는 배를 지었으며, 신앙으로 순종하여 니파이는 놋쇠판을 구해 왔으며, 신앙으로 순종하여 어린 아이들은 높은 곳에서 그의 아버지의 강한 팔 속으로 뛰어내립니다. "신앙의 순종"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합니까? 우리는 예언자를 신뢰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지혜와 학문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지식의 근원이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니파이의 동생 야곱은 사탄의 계획을 이해하여 이에 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오 악마의 간교한 피여, 오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헛됨이여, 저들이 학식을 얻으매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옆으로 밀어내며, 저들이 스스로 아는 듯이 여기나니, 저들의 지혜가 어리석도다.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

니하니 저들은 필경 멸망하리로다." (니파이서 9:28)

야곱은 우리가 학식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학식을 얻음이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따라야 할 것을 가려 택할 수도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계명들을 소홀히 할 수 있고 또 인생에서 위협적이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작은 것들을 자기 편리대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것에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안식일을 존중하는 일, 경전을 읽는 일, 십일조를 내는 일, 모임에 참석하는 일 등 일일이 언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포함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아주 분명한 방법으로 그의 자녀와 교통하십니다. 복음의 가르침 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는 없습니다.(고린도전서 14:8 참조) 전해지는 말씀 또는 영의 속삭임에 의한 느낌의 의미에 관해서는 일체 의문이 없습니다. 우리는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경전과 예언자와 사랑하는 부모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금 그릇된 길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자신을 사탄의 속임수의 영향을 받게 합니까? 그 속임수에 대한 해결책은 말로는 간단하지만 때때로 그것을 적용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1970년 10월 대회에서 주님과 사탄과 사탄의 속임수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한 해결책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경륜의 시대에 이 교회와 세상에서의 일을 마치시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할 만만치 않은 곳이 몇 곳 있습니다. ... 사탄의 세력은 확장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예언자를 통해 주실 말씀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 인내와 신앙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70년 10월, 152쪽) 그런 다음 리 대관장께서는 교회 역원으로부터 오는 권고가 우리의 개인적인 견해와 상충되거나 사회 생활 몇 가지를 간섭하기 때문에 그 권고를 항상 좋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계속하면서 경고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 주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것처럼 듣고 행한다면 우리는 속지 않을 것이며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순종하게 해 줍니다. 우리는 항상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행복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생과 다음 세상에서 우리의 복리에 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교리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경전은 순종을 가르치며, 이제까지 어느 사도나 예언자도 순종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았던 분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율법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순종을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비록 우리가 그 이유를 훨씬 나중에 가서 알게 되더라도 옳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50쪽 참조)

저는 그 여름 날 바다에서 우리가 입고 있던 구멍 조끼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예고 없는 파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온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의 유혹을 따를 경우 분명히 오게 될 비극을 피할 수 있도록 순종이라는 구멍 조끼를 계속해서 입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다시 한 번 그분과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가르침을 쉽게 받아 들임

로버트 알 스튜어 장로
칠십인 정원회

가르침을 쉽게 받아 들일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속죄의 충만한 힘과 축복을 우리 삶에서 살아 숨쉬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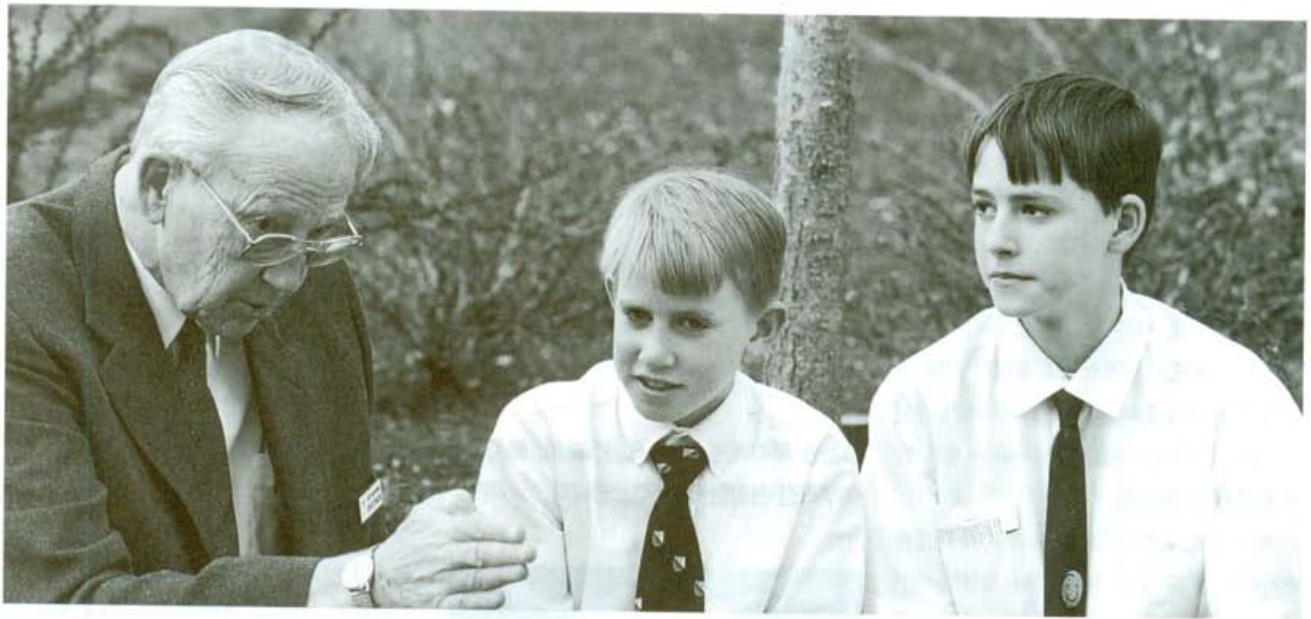


주님의 참된 제자는 가르침을 쉽게 받아 들입니다. 난지 몇 마디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이 커다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많은 통찰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¹ “교훈을 받기 원한다는 것”은 기꺼이 경청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교훈을 받고 원하는 소망이 현재의 상태에 머무는 편안함보다 강한 힘이 될 때 우리는 쉽게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우리의 “첫째 되고 으뜸 가는 의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영혼에 이르는 교훈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²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사망 직후에 그가 꿈 속에서 브리감 영에

게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여 항상 주님의 영을 간직하면 그것이 그들을 의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작고 조용한 소리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것이 왕국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³

어떻게 생활 가운데서 그 신성한 가르침의 힘에 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첫째, 기꺼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의에 굽주리고 목말라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질 수도 있습니다.⁴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가르침에 따르거나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단순히 규칙을 바꾸고 싶어합니다. 나아만은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싶어했지만 요단강에서 그저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예언자의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는 노하여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사소한 일이었으며 그의 조국에 있는 강들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종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을 때 나병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⁵ 그는 이스라엘에 예언자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의 율법을 지니고 계시며⁶ 또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위엄과 솜씨를 보고 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도다. 이 일은 전에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도다.”⁷

둘째, 우리는 마음과 정신의 내면에 적절한 틀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명상과 영적으로 많은 수고를 할 때 옵니다.⁸ 이러한 수고가 참된 수고입니다. 여기에는 경전을 찾고 그것에 순종하고 연구하는 적극적인 단계들을 포함합니다. 겸손해져서 교만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져서 하늘로부터 오는 권고와 가르침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레이먼드의 강력한 왕이었던 라모나이의 부친은 그러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의 커다란 결심을 나타내 보이며 땅에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알아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며 마지막 날에 구원받기 위해 저의 모든 죄를 버리겠습니다.”⁹

셋째, 우리는 받은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엘마는 “나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여 아주 작은 신앙을 품어” 보라고 했습니다.¹⁰ 니파이는 단순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행하겠습니다.”¹¹ 낚시판을 가져오라는 부친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사냥하러 갈 장소

를 들었을 때, 그리고 배를 지으라는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였을 때 보여 준 그의 복종과 순종적인 태도는 얼마나 훌륭했습니까!¹² 각각의 경우에 그는 해야 할 일과 그 결과를 “알아차리기도 전에”¹³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인생은 때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에 적용하기 어려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하기를 바라십니다.”¹⁴

쉽게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배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과 느낌을 행동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길을 열면서 이렇게 우리 신앙을 행사한 결과가 따르는 보상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권고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저들이 지혜를 배울 것임이요]”¹⁵ 그분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하나님 곧 아버지께 나아오느니라.”¹⁶

저는 오랫동안 감독으로 봉사하신 장인에게 그분의 셔츠 주머니에 항상 갖고 다니시

던 손바닥만한 카드에 대해 얼마 전에 여쭙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어떤 느낌이나 속삭임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즉시 카드를 꺼내어 그 느낌들을 카드에 적는 것을 좋아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것들을 가능한 한 즉시 행동에 옮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알려 주는 조용하고 작은 음성이 우리를 위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 속삭임은 더 많이 주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속삭임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없어지고 맙니다.

쉽게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더 큰 간증을 갖게 됩니다. 인생 여정이 그분의 뜻에 따라 간다는 안전과 확신을 얻습니다.¹⁷ 나아가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며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쉽게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속죄의 충만한 힘과 축복을 우리 삶에서 살아 숨쉬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속삭임에 민감하게 되며, 그리하여 예언자와 땅에서 나온 진리에

의해 가르쳐진 의로운 원리들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활 속 깊이 자리잡게 할 수 있습니다.¹⁸ 우리는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이러한 진리를 사랑할 때 우리와 진리 자체의 근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발전됩니다. “예지는 예지와 결합하며, 지혜는 지혜를 받아들이며, 진리는 진리를 품으며, 덕은 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¹⁹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에게서 배운 것들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증거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참된 계시를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받았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쉽게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살아 계신 사도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들을 통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계시들을 더욱 분명하게 보고, 듣고,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아브라함서 1:2.
2.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41쪽.
3. 브리감 영 인용,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41쪽.
4. 마태복음 5:6 및 엘마서 32:13 참조.
5. 열왕기하 5:1~14 참조.
6. 교리와 성약 93:30 참조.
7. 모세서 1:10.
8. 엘마서 17:5 참조.
9. 엘마서 22:17~18 참조.
10. 엘마서 32:27.
11. 니파이일서 3:7.
12. 니파이일서 3:4; 16:23~32, 17:8~11 참조.
13. 니파이일서 4:6.
14. 토마스 에스 몬슨, “구조대에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8쪽 참조.
15. 니파이일서 28:30.
16. 교리와 성약 84:47.
17. 요셉 스미스, *Lectures on Faith* [1985], 38쪽 참조.
18. 모세서 7:62 참조.
19. 교리와 성약 88:40.

“우리 생활에서의 복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분은 우리에게 속죄, 복음, 교회, 불사불멸에 대한 확신과 영생을 위한 기회가 하나로 어우러진 신성한 것을 주셨습니다.



수년 전, 어느 신문 만화에서 한 목사가 오โต바이를 탄 히피족 차림의 부부와 대화하는 내용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한 사람이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교회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여러 해 동안 교회에 가려 하고 있지요 ... 다만 아직 그곳에 도착하질 못했죠.”¹

이와 같이, 확대 가족의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도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따금 참석하긴 하지만, 아직 교회 참여와 봉사를 통해 오는 완전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참석하긴 하지만 전념하는 일을 회피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오는 개

인적인 영적인 거듭남을 포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이 생애에서의 여러 가지 특별한 축복들을 놓치고 있으며 다가올 세상에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놓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베소서 4:12) 위해 사도와 예언자들을 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개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르는 필수적인 경험을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사업은 인간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데 필수적입니다.(모세서 1:39 참조)

저는 지금 제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화하고 승영케 하는 사명의 중요성에 대한 영적인 증거를 갖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특히 교회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전념하는 것에 따르는 온전한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증거를 구하여 얻으며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간구합니다.

거의 10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을 때, 저는 수년 간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한 회원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왜 다시 교회 활동을 해야 합니까?” 하고 이 회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분과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뭔가를 드러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더니 그는 아주 뜻밖의 반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 무엇을 했죠?”

저는 이 뜻밖의 반문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복음에서, 그분의 교회에 참석함으로써 얻으려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일을 그만두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필요 사항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단지 만족스러운 사교적인 경험을 구하는 것이라면, 특정 와드나 지부에서 실망하여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 줄 다른 단체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만족스러운 사교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만 복음을 알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면, 문헌들을 통해 그 목적을 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료는 풍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의 주된 목적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입니까?

누군가 우리는 추구하는 바에 따라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세상적인 본질을 지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로마서 16:18) 사람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주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실망하지 않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태복음 10:39)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

법과 올바른 이유로 주어질 경우,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큰 보상을 줍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교회 조직에서 역원이나 교사로서 이타적인 마음과 효율적인 자세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고]”(모로나이사 10:32) 간청한 예언자가 설명한 개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생을 통해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 자격을 지냄으로써, 그리고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교회가 제 삶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준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원리들에 대한 제 자신의 간증이 개인적인 설득력을 더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매주 교회에 참석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교리와 성약 59:9) 성찬을 취할 기회를 갖습니다. 합당한 준비와 자세로 성찬을 취하면서 올바르게 행한다면 침례의 정결케 하는 효과를 새롭게 하며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 영, 곧 성신의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요한복음 14:26, 니파이서 31:18 참조) 간증과 진리는, 개인적인 개종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렇게 매주 성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거

두게 되는 최상의 수확입니다. 저의 생활에서 일상적인 결정을 할 때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 저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말일성도가 안식일마다 성찬을 바치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는 귀중한 축복을 이해하지 못할 때 안타깝습니다. 생활에서 - 언덕이나 호수나 냇가, 오락 장소나 집에서 일일 신문을 읽는 것에서 - 이러한 축복과 견줄 만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오락적인 쾌락도 매주 안식일에 충실하게 성찬을 취하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약속하신 정결케 하는 거듭남과 영적인 인도와 성장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제 삶에서 저는 그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짐을 감사드리며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 개인적인 죄의 결과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가르침들은 죄에 대해 용서 받을 수 있으며,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희망과 자비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식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평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 부친과 모친, 그리고 아내를 포함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 세상으로 떠나 보내며, 위안을 주는 성신의 계시를 통해 저는 계속해서 전진할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영



은 이 세상에서의 역경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 주며, 부활과, 영원토록 인봉된 가족 관계의 실재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와 가르침으로 축복받았습니다. 경전과 이 교회의 지도자와 교사들에 의해 가르쳐지는 복음은 제 길의 빛이 되어 왔으며 세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진보하는데 동기가 되어 왔습니다. 브리감 영이 가르쳤듯이, 복음의 율법은 “사람들에게 진실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지하고, 근면하고, 검약하며, 모든 좋은 말과 행동을 사랑하고 실행하도록 가르칩니다. … 그것은 사람을 향상시키며 고상하게 합니다. … 온전히 순종한다면, 몸에 건강과 힘을, 지각에 명확함을, 추론하는 능력에 힘을, 영혼에 구원을 가져옵니다.”

제가 복음의 가르침으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들 중에는 지혜의 말씀을 지켰을 때 약속된 것들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건강과 지식,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할” 능력과,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 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교리와 성약 89:18~21) 할 것이라는 약속의 실현 등이 그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바치도록 가르치며, 그렇게 행할 때 오는 축복에 대해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서 이러한 약속들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저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영원한 관점에서 이 세상의 재산과 자부심, 출중함, 힘 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보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기초를 둔 인생의 목적과 그것이 갖고 있는 영원한 것과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오는 초점과 평안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는 지 모릅니다.

가장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과 결혼을 거쳐 중년 및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져왔습니다. 주일학교와 초등학교, 스카우트 및 기타 청소년 활동, 정원회와 와드와 스테이크 활동을 통해 만난 교사와 급우들은—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갖게 된 모든 교제는—제가 훌륭한 모범과 친구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좋은 사람들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놀랍도록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조직에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교회와 다른 조직에서 소양을 갖춘 사람들과의 교제를 인식하고, 감사하고, 확대할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친께서 세가 여덟 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에 다른 아이들이 누리며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를 제게서 취해 간 주님의 목적에 관해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관점은 그 공백을 메워 주었습니다. 저는 남동생과 여동생과 제 자신이 홀로 되신 뒤에도 늘 신앙을 행사하신 어머니로부터 양육될 수 있었고, 부모님께서 성전 결혼을 하신 덕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늘 그분이 우리 생활에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잠시 멀리 가신 것뿐이었습니다. 필멸의 생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영원한 세상에서의 잠재력을 아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영원을 위해 인봉된 결혼은 모든 자녀와 어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교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저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족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들에 관해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와 영감에 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스테이크 대회와 연차 대회, 신권 정원회, 주일학교 공과반 등에서 저는 거듭해서 훌륭하고 경험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가르침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원토록 지속될 교제에서 제 참여를 향상시키고자 그러한 가르침에 따랐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는 단지 병고침의 축복만이 아닌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아버지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위안과 인도의 축복인, 신권 축복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리를 배우고 사용하면서 저와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권이 영원한 가족에게 미치는 중요함을 느끼는 데서만 오는 감미로움과 친밀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한 경전과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피해야 할 것에 관해 경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권고에 따름으로써 우리는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그 멍에 걸려 노예가 되었을 함정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술, 담배, 마약, 외설물, 도박 등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경고한 위험한 물질들과 중독적인 습관의 몇 가지 예입니다. 저는 특히 청소년들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도자와 교사로 부른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일 것을 호소합니다. 자신의 지혜나 욕망을 창조주의 계명과 그분의 종들의 경고보다 우선하는 일을 억제한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갑옷”을 입어 “악한 날을 견딜 수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가슴판”과 “신앙의 방패”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날날이 끌”(교리

와 성약 27:15~17)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순종하여 그러한 축복들을 얻기를 추구합니다. 그러한 축복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되도록 도와 주는—“우리 마음 가운데서 큰 변화”(모사이사서 5:2)—개인적인 영적 개종이 포함됩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구세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6~17)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베냐민 왕과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축복을 받은 행복한 상태를 마음에 기억하라. 보라 이들은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범사에 축복을 받으며, 이들이 끝까지 충실할진대 하늘에 영접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이 그치지 아니하는 곳에 거하시리라.”(모사이사서 2:41)

현대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0)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그분은 속죄와 복음과 교회, 즉 불사 불멸과 영생을 위한 기회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됨을 증거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세우신 분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속죄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Calvin Grondahl, [Ogden, Utah] *Standard-Examiner*, 1990년 5월 26일.
2. 1869년 1월 7일 Jed Woodworth가 *Religio-Philosophical Journal*의 편집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용, “브리검 영과 물몬교의 사명” *Brigham Young University Studies* 40, no. 2 (2001):11.

내가 행한 일을 성결케 하시리로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정원회

현납을 깊이 생각하고 추구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도 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같은 위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분함이라.” (교리와 성약 17:8)



불 완전하지만 여전히 신앙의 권속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일차적인 청취자는 바로 제 자신입니다.

우리는 현납을 단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소유한 물질을 바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현납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은, 이따금씩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해야 하는, 첫째 계명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핵심어입니

다.(마태복음 22:37 참조) 그 계명을 지킬 경우, 그에 따라 우리가 행한 일들이 우리 영육의 지속적인 복리를 위해 완전히 헌납될 것입니다.(니파이이서 32:9 참조)

그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관적인 순종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어찌 섬기지도 아니하며, 알지도 못하며 마음에 생각해 보지도 않은 주인을 알 수 있으리요?”(모사이사서 5:13)

많은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거창한 것 같다는 이유로 현납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들은 발전해야 하는 데도 완전한 현납이 자꾸 지연되는 것 때문에 불만족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방향에 대한 확신과, 여행을 계속하게 하는 격려, 그리고 위안과 함께 애전어린 권고가 주어집니다.

영적인 순종은 한 순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향상에 의해,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단계 되어 있는 연속적인 디딤들의 활용에 의해 성취됩니다. 우리의 뜻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모사이사서 15:7, 모사이

아서 3:19 참조)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상의 격장을 맞닥뜨리게 되고 부분적으로 방향전환마저 있게 될 것입니다.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헌납한 사람들의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았을 때, 그들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사도행전 5:1~11) 그와 같이 우리는 대부분 한 특정한 “일부”에 집요하게 집착하며, 심지어 자신의 집념을 소유물로 간주하려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미 다른 모든 것들은 주었을지라도, 마지막 부분만큼은 하나님께 바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부분적인 포기가 여전히 칭찬할 만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무실에서 났어요”라는 핑계와 분명히 너무도 많이 덮았습니다.(야고보서 1:7~8 참조)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이유에선지 자신이 소유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특정한 기술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에 더욱 매달린다면, 첫째 계명의 헌납 앞에서 주춤거리게 될

대회 참석자들이 컨퍼런스 센터의 남쪽에 있는 폭포 쪽으로 향하고 있다.



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호흡을”(모사이사서 2:21) 주시는 것에 매달리는 것과 이러한 심란한 상태에서 초과 호흡은 추천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시간과 돈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봉사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내적 자아의 일부를 보류할 때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그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과제가 그들의 황혼기에 들어갈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늘어남을 보고 이렇게 말한 침례 요한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한복음 3:30) 현재의 임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라고 여기는 그릇된 생각은 그만 손을 떼는 것을 더욱 망설이게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개인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 이미 “위대한” 것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는 증진 시장처럼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디딤돌들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부유하고 의로운 젊은이처럼,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기꺼이 극복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마가복음 10:21 참조) 그럼으로써 남아 있는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회피는 여러 모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달의 왕국은 분명히 거짓 증거 하지 않는, “존경 받는 자들을” 받아 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이 강렬하지 [않았습니다.]”(교리와 성약 76:75, 79)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간증을 얻는 최상의 방법은 지속적으로 더욱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는 헌납입니다.(니파이삼서 27:27)

앞서 이야기한 어려움들을 이겨 내고자 할 때, 영적인 겸손은 다행히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종종 세상적인 것과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게” 하고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니파이일서 8:30)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여 강력한 바로와 그의 군대의 손아귀에서 탈출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은 알았으나, 근시안적인 레이멘과 레뮤엘은 하나님께서 일개 지방 호족에 불과한 레이벤을 상대하는 그들을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신앙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직장이나 여흥의 장소에서 너무 지나치게 뒷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다 보면 정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또한 첫째 계명을 위배하는 것입니다.(출애굽기 20:3)

우리는 때로 자신의 특이한 성격을, 마치 그것이 개성의 일부인 것처럼, 옹호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의 길은, 예언자 요셉이 증언했듯이, 일종의 “격투기” 같습니다.

“나는 커다란 거친 바위와도 같습니다. ... 그 모든 악이 거친 돌과 같은 나의 이 모서리 저 모서리를 깨뜨려 둥글게 하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통에 꽂힌 부드럽게 잘 다듬어진 화살대가 될 것이니.”[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기르침, 287쪽]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저 무릎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일부 지성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돕거나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을 배웠던 모세처럼 온유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모세서 1:10)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독특한 개성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헌납하기를 주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 실제로 승리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발전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더 높은”(이사야 55:9 참조) 길로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반어적으로, 지나친 정성은, 심지어 좋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스포츠와 자신의 신체 관리에 너무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연을 경외하지만, 자연의 창조자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음악이나 직업에 대해 극도의 경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더 중한”(마태복음 23:23; 또한 고린도전서 2:16 참조) 문제들이 흔히 생략됩니다. 오직 가장 높은 신 이만이 여러분과 제가 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선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위대한 두 계명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예수님은 강조하여 선언하셨습니다.(마태복음 22:40 참조) 보다 낮은 선을 열정적으로 추구한다는 이유로 첫째 계명을 뒷전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은 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노력의 수확을 누리기에 앞서, 우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신명기 8:17)고 합리화할 것입니다. 또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뽐내며,(사사기 7:2) (기드온의 사려 깊은 소규모 군대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손”을 과대 선전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것을 두 배나 힘들게 합니다!(엘마서 14:11, 교리와 성약 59:21 참조)

트리바라 하는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인 모세는 물을 부르짖는 백성들때문에 지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모세는 “경솔하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말했습니다.(시편 106:33; 민수기 20:10~12; 또한 신명기 4:21 참조) 주님은 훌륭한 모세에게 “우리”라고 잘못 사용한 대명사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후 그를 더욱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해지는 것이 잘 하는 일일 것입니다.(민수기 12:3 참조)

예수님은 초점을 잃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비록 그분은 너무나도 많은 선행을 베푸셨지만, 언제나 속죄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셨으며, 그것을 직시하며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요한복음 12:27, 또한 5:30, 6:38 참조)

여러분과 저는 더 많은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키울수록,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인류에게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은 능력이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디딤돌들은 우리가 개척하기를 매우 꺼려 할지도 모를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디딤돌 사용자들은 그 밖의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동기 부여자가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말없이 칭송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배고픈 탕자는 집에서 먹던 식단을 기억했겠지만, 그는 또한 다른 기억들에 끌려 결심했습니다.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누가복음 15:18)

궁극적인 순종을 위한 노력이 있어서,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해서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일상적인 선물들은 반송 스탬프가 찍혀 되돌려 보내질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선물을 받으시면, 그 답례로, 온전히 충실한 사람들에게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교리와 성약 84:38)을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교환이 아닙니까?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의지, 재능, 기회 등을 주셨으며, 우리가 가진 재산을 주셨으며, 정한 생명의 기한과 필요한 호흡을 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64:32 참조) 그러한 관점에서 인도될 때, 우리는 심각한 비율의



오류를 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 중 어떤 것들은 여덟 명으로 구성된 사중창단의 노래를 듣고 태버나를 합창단으로 혼동하는 실수처럼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헝클러 대관장께서 희생이 “속죄의 본질”임을 들어 성찬식과 십일조, 성전의 성약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성약의 백성임을 역설하신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고든 비 헝클러의 가르침 [1997], 147쪽) 구세주로 하여금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 까지 하게 하였[던]”(교리와 성약 19:18) 속죄의 고뇌와 고통을 구세주께서는 겪으시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작고 불완전한 척도에서, 우리는 극복해야 할 일들에 직면하며 그러한 것들이 없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다음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겿새마네 동산과 갈보리 언덕에서의 초월적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성역이 여전히 중요하겠습니까? 그분의 다른 기적들은 일부 사람에게 축복된 생명의 연장과 고통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들은 보편적인 부활이라는 최고의 기적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고린도전서 15:22 참조) 떡과 물고기들을 증가시켜 배고픈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은 곧 다시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에 반해 생명의 떡을 취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시는 주리지 않을 것입니다.(요한복음 6:51, 58)

헌납을 깊이 생각하고 추구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같은 위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분함이라."(교리와 성약 17:8) 참으로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은 또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더서 12:27 참조) 참으로 그 과정을 기꺼이 감수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기꺼이 감수하여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일부를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이 더욱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교리와 성약 84:38) 받을 수 있는, 확장되고 더욱 유능해진, 증진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뜻이 더욱 그분의 뜻과 같아지기 전까지 어떻게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의 진가를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엇이든 "일부"를 감춰둠으로써 우리가 배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여 내니이까"(마태복음 26:22)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보다는 우리의 개인적인 장애물에 대해 물어 보시다, "주여 이것이나이까?"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응답을 알고 있었으며, 그분의 응답보다는 결심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한 계획에서 가장 큰 행복은 기꺼이 펼치며 그분이 다스리는 왕국까지 여행하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종적으로 예비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새롭게 갑시다."("Come, Let Us Anew," 영어 찬송가 217장)

팔을 널리 펼치신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리와 성약 103:17, 136:22) □

신권 모임
2002년 4월 6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됩시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은 우리의 충실함에 따라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엄숙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신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거룩한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권세와 능력과 분별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신권을 가졌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 특권을 통해 받는 축복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두 분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의 부친은 제사였을 때 독특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고향에는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교육을 더 받고 싶어서 할아

버지게 시골을 떠나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긴 했지만 모두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한 부친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 댁에 일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언자님 댁의 젓소 두 마리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정의 밤 시간이 되면 초기에 예언자님 댁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해 달라고 부친을 조르곤 했습니다. 덕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곤 했습니다.

스미스 자매님께서 부친에게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젓소는 말예요] 고귀한 존재니까 잘 다뤄야 해요. 깨끗하게 씻기고 잘 훈련시켜서 내가 언제든지 응접실로 들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청결하게 해 줘야 해요." 부친은 우유 짜는 법은 알아도 젓소를 씻기는 법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짜기 전에 부친은 준비된 더운 물과 비누와 수건으로 젓소를 철저히 씻기고 말려야 했습니다. 최상급의 건초를 먹였고, 하루에 두 차례씩 정확한 시간에 젓을 짰습니다.

스미스 가와 그들의 "고귀한" 젓소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간헐적으로 다른 집안 일들까지 부탁받았다고 하시면서, 부친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서리 내린 어느

아침, 나는 교회 대관장님 관저로 이어지는 계단을 밟고 있었지. 하마터면 그분이 미끌어질 뻔했어. 말리기 전에 물기가 얼게 놔뒀기 때문이야. 그런 뒤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얼음을 녹이고 수건으로 돌들을 닦았지. 계단이 거의 깨끗해졌을 때였는데, 일이 다 끝나기도 전에 우리 반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길에 그곳을 밟고 지나가버렸어.”

그것은 겸손케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혹시 저희 부친이 신데렐라와 쌍둥이 형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미스 가에서는 아이다호의 이 불쌍한 시골 소년을 데려다가 고등학교도 마쳐 주고 유타 대학교까지 다니게 해 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분들은 부친을 가족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가족 기도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친은 예언자 조셉 에프 스미스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서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가족과 가족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간구하시는 예언자님의 기도를 들었을 때, 난 이 미천한 젖소마저도 그분의 축복 간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단다 … 대부분의 위대한 사람들도 친하게 시내다 보면 그 위대성이 감소되어 보이지. 그런데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아니셨어. 평범한 일상의 행동들을 통해서 난 그분이 더욱 위대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 나로서는 심지어 손을 씻거나 구두끈을 푸는 모습에서도 그분은 진정한 예언자라는 생각이 들었던단다.”

이 경험의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자에 대한 큰 감사와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에 대한 부친의 묘사를 생각하면 애굽의 요셉에 대해 바로 왕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창세기 41:38)

부친의 이야기는 스미스 대관장님과 그분

의 가족과 젖소들에 대한 내용이지만, 20세기 초 이후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지도 보여줍니다. 제 부친은 조그만 책상 위에서 기가 헤르쯔라고 하는 그 속도와 기가바이트라고 하는 저장 용량을 자랑하는 현대의 컴퓨터는 상상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이 그와 똑같은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행할 수 있는 악에 대해서도 상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은 악한 방법을 통해 새롭고도 감염력 좋은 바이러스들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우리가 강력한 방어책

을 갖지 못하면 우리 영에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 제거 프로그램은 바로 성신의 은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신의 은사에 대해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신의 은사”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침례 받은 사람들에게 인봉된 특별한 축복으로서, “늘 곁에 있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일시적인 영향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서 특별한 목적과 경우를 위해 인류에게 거룩한 빛과 권세가 임하게 할 수도 있

신권 모임에서 노래한 브리감 영 대학교-아이다호 남성 합창단



습니다. 그러나 성신의 은사는 오순절에 사도들이 받았고, 지금은 확인 의식 때 부여되는 것으로서, 불변하는 증인이자, 더 높은 차원으로 부여된 것입니다.”(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권 [1965~75], 5:4)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울 때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때 우리 모두 성신의 은사에 의지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애굽의 요셉이 보여준 모범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주님의 영에 온전히 의지하였기에 상상 승배의 관습에 눈이 멀어 있던 사람인 바로 왕 조차도 요셉의 비범한 용모와 힘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저녁 경전 속의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대해 공부하면서 어떤 훌륭한 메시지들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복음 질의 응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대에도 소년들이 부름받고 성임받았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아주 길었던 대홍수 이전 시대에 어떤 이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녹은 아담으로부터 성임받았을 때 스물다섯 살 밖에 되지 않았으며, 노아는 겨우 열 살에 신권을 받았습니다.(교리와 성약 107:48, 52)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이 신권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기록에 없지만 매우 어렸을 때였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는 겨우 열일곱 살에 형들에 의해 상인들에게 팔렸는데, 애굽 땅에서 신권을 행사한 것을 보면 팔리기 전에 신권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창세기 37:2; 40:8~19; 41:14~36) (Joseph Fielding Smith, Jr., 5권 [1957~1966], 2:9)

구약전서의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제가 11명이나 있었

고, 그 중 10명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형들보다 그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화려한 외투를 만들어 주고 집 안에 있게 했으며 때때로 형들이 가족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살펴 보게 하곤 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형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살펴보러 간간 어느 날, 가족을 치고 있던 형들은 요셉을 몹시 싫어하여 없애 버리기로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있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순식간에, 요셉은 풍습도 낮설고 종교도 다른 낯선 땅에 있게 되었으며, 더구나 노예 신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일을 너무나 잘하고 유능했기 때문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창세기 37:36)에게 팔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또한 늘 동행하는 영이 도와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창세기 39:2~6) 요셉이 집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 온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잘못된 처지에 놓인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매”(창세기 39: 9, 12절) 우리는 요셉에게서 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유혹을 받았을 때 즉시 악의 형상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처지에 놓일 경우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음악이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든 인터넷이든 간에, 우리를 그릇되게 이끄는 악하고 저속한 상황에 닥치게 될 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힘이 되었습니까. 요셉이 “밖으로 나가매”(창세기 39:12)

그는 유혹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고 불평했습니다. 보디발이 무척 노했습니다.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다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곧]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창세기 39:20~23)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고, 감옥에 있는 동안 다시 한 번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 두 명이 역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둘 다 꿈을 꿔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흘 만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신분으로

복귀하게 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둘 다 맞았습니다. 바로의 신하로서 고위직에 복귀한 술 말은 관원장은 2년이 지나도록 요셉에 관한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술 말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요셉의 해몽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창세기 41:14)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인상을 받은 바로가 요셉을 자신의 신하로 삼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요셉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곧 요셉은 애굽 온 땅에서 바로 다음 가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다른 모든 신하와 다른 무언가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다른 모든 신하들과 어떤 면에

서 다른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창세기 41:38)

여러분은 요셉이 처한 각각의 상황에 주님이 그와 함께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생활 자세와 그를 인도하는 주님의 음성을 좇았던 태도 때문에 그에게서 특별한 영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에 인도되고 이끌릴 때 사람들은 우리 각자에게서도 그와 똑같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를 맞게 되면 작고 고요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부적당한 종류의 음악을 끄거나 저속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멀리하거나 마음속에 악한 생각만을 가져다 줄 뿐인 인터넷에서 나가라는 경고의 음성이 강하게 들릴 것입니다. 있지 말아야 할 영역에 있게 될 때 성령이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신의 경고 음성을 따르고 그의

지시를 따른다면 천사의 보호를 받고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영광을 더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충실성에 따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성약을 지키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성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하고 우리 안에 그 권세와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상에 사셨던 위대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분들의 삶에서 우리를 창조주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해 주고 구세주이신 주님의 복음에서 나오는 축복과 열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겠다는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



인생이라 불리는 길

벤 비 벙크스 장로

칠십인 회장단

여러분이 옳은 길에 머물러 있을 때 받게 될 여정 끝의 보상은 여행 동안의 고난을 감수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 또한 특별히 아른 신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대관장단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대단히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책임과 기회뿐 아니라 유혹 또한 가장 큰 이 시대에 태어난, 특별히 선택받은 영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필멸의 삶을 지나는 인생 여정의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기쁨에 차며 다시 여러분을 그분의 면전으로 인도하시기를 바

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들은 앞으로의 인생뿐 아니라 영원토록 내내 뒤따를 많은 것들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소책자, 2001년도 2쪽)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칠십 년에 가까운 저의 인생 여정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조부모들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평생 열두 살일 것처럼 느끼지만 다음 순간 어느새 백살이 늘어가는 일흔 살 노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권 대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이 거의 십 삼 년 전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시에 저는 형제님들께 제 아들과 함께 했던 자전거 여행에 대해 말씀드리며,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인생 여정에 대해 잘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했던 다른 여행들과 거에서 배운 교훈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 중 몇 명은 미국 몬태나주 보즈먼에서부터 와이오밍의 잭슨 홀까지 자전거 여행을 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백이십오 마일에 달하는 이 여행은 삼일이 걸리고, 세 번에 걸쳐 대륙 분수령을 건너야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맑은 날씨 속에서 산속을 여행하며 주님의 창조물들에 대해 감사하는 훌륭한 경험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면밀한 계획과 준비 끝에 두 아들과 외동딸, 그리고 저는 첫 아영지인 몬태나 빅스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 날 아침 날씨는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는 유쾌한 여행을 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하던 중 검은 구름이 몰려들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마침내는 진눈깨비가 흩날려 우리는 비에 젖고 지독한 추위에 떠는 괴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행 첫날을 마감하고 아영지에 도착한 그 날 저는 인생이 꼭 그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온갖 종류의 날씨에 미리 대비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첫째 날 여행을 완주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우리는 온전한 희망과 낙관적인 생각을 품고 나아가야 하지만 어느 지점에선 가 맞이하게 될 저항과 역경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확립하게 될 행동 방식들은 인생 내내 여러분을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들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후에 맞게 될 차갑고 모진 바람을 견디도록 도와줄 행로를 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에 빠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습관을 바꾸고 중단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지금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깨끗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어 성신의 동반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길 말입니다. 선교 사업을 하게 되어 영원한 동반자인 성신과 함께해야 하는데, 마음 속에서 나쁜 언어가 불쑥 불쑥 떠오른다면 얼마나 곤란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 둘째 날에 우리는 웨스트 엘로우 스톤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적이었습니다. 자전거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고, 우리의 다리도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우리는 두 번째 목적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 저는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그 시기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교회 본부 건물 광장에서 바라본 솔트레이크 성전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우리의 행복에 대한 공로를 스스로에게 돌리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로움, 성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1976], 240쪽)

물론경에는 주님께 축복을 받은 후, 자신들의 업적을 뽐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침내 교만으로 인해 그들은 올바른 길을 떠나 모든 것을 잃고 진리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 옛날의 니파이인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이 오는 참된 근원을 늘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여행 셋째 날 저는, 인생에서는 때로 오르막길을 오르며 고전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태도가 고난을 맞이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해발 4,800 피트에서 8,300 피트에 달하는 대륙 분수령을 세 번 넘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를 때에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만 올바른 고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여러분은 자기 수련에 대해 배우게 되고 많은 것을 달성하게 됩니다. 물론, 가파른 산의 경사를 오르는 일이 힘겨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표에 시선을 고정했으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론 신권 청남 여러분, 세미나리 과정을 마친다든가, 명예롭게 선교사로 봉사하는 일, 대학 졸업, 성전 결혼을 하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목표를 세우시도록 촉구합니다. 여러분 나이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커다란 목표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지금부터 노력한다면, 후에 여러분은 그 일들을 이루는데 있어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년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과 저는 카누를 타고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퀘티코라는 미개척 지역에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수에서 호수로 카누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큰 호수의 중간 지점쯤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갑자기 매우 나빠졌고 잔잔하던 호수의 물결이 사납게 일더니 우리의 작은 카누는 이리저리 밀려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예정된 목적지까지 여행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가까운 섬으로 방향을 돌려 폭풍이 지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지금 보기엔 답이 분명한 것 같지만 당시에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여행을 하면 예정된 캠프장에 도착할 수도 있는 일이었고 일정을 늦추면 매우 늦게 도착하거나 어두운 가운데 여행을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할 때, 우리는 서둘러서 가까운 섬으로 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한 폭풍우가 우리 곁을 지나쳤습니다.

계속 노를 저어 갔더라면 목숨이 위태로울 뻔 했던 것입니다.

지상 생활에서 우리에게는 중대한 결정들이 요구됩니다. 그 결정들의 결과는 우리의 영적인 미래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늘 합당하고,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 주는 영을 구하시기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몰몬경에서 니파이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너희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곧고 좁은 길에 입하니, 너희는 이제 그 문에 들어섰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계명대로 행하였고, 성신을 받았으니 …”(니파이 이서 31장 18절)

225마일의 자전거 여행을 마쳤을 때 우리 가족은 인생이라 불리는 이 길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딘 자들 앞에는 커다란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론 신권 청남 여러분들은 영원한 목적지에 집중하고 굳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굴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이 힘겹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옳은 길에 머물러 있을 때 받게 될 여정 끝의 보상은 여행 동안의 고난을 감수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서 대관장단은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위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구세주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책임을 수행하는데 합당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3쪽)

젊은 친구 여러분, 예언자의 권고에 따르는 현명함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 여정 내내 행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아멘. □

인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됨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찰십인 정원회

저는 훌륭한 청소년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천사를 영접하기에 합당하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성역을 베푸는 천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18 34년 11월5일, 27살 된 청년 윌포드 우드럽은 제사에 성임되었습니다. 8일 후에 그는 남부의 여러 주에서 2년 간의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¹ 어느 날 저녁, 그와 동반자는 한 가족을 만나 그들 집에서 맨바닥에 자게 되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60마일을 걸은 후라 아주 힘들었다”고 기술했습니다.²

그 다음날 그들은 비를 맞으며 12마일을 걸어 한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는 미주리 폭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드럽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어 갔을 때 그 가족은 마침 아침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

다. 당시에는 비록 상대가 적일지라도 식사하도록 청하는 것이 미주리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침 식사를 하라고 청했으며, 우리는 그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몰몬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 먹기 시작하자, 그는 몰몬에 대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탁자에는 베이컨과 달걀이 담긴 커다란 접시와 충분한 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욕설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심하게 욕할수록, 우리는 더욱 열심히 먹었습니다. 든든하게 먹은 우리는 탁자에서 일어나, 모자를 들고, 아침 식사를 대접해 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는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서 우리에게 아침 식사를 베푸는 것으로 인해 그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³

그는 선교 사업을 한 첫 해 말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합 5,197킬로미터를 걸었으며, 170 차례의 크고 작은 모임을 갖고, 43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⁴

남부 여러 주로의 첫번째 선교 사업 이후에 그는 메인 주 근해에 있는 폭스 섬으로 두 차례 짧은 기간의 선교 사업을 했고,⁵ 뒤이어 영국으로 두 차례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⁶ 1840년 영국에서 두 번째 선교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8개월 사이에



대회 참석자들이 북방문자 센터의 그리스도 조각상을 보기 위해 경사로를 오르고 있다.

1,800여 명을 교회로 데려오는 도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⁷

월포드 우드립은 물문경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이 신앙을 통하여 위대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으니, 참으로 선견자는 자기 동포에게 크나큰 유익을 주나이다”라고 약속한다고 입증했습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젊은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선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며, 인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드리 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 시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완전을 향한 이 세상에서의 노력은 더욱 구세주와 같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욱 사랑스러워져야 하겠습니다.

신권 정원회 활동 및 청년과 함께 하는 상호 향상 모임 활동은,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밀하게 계획하고 토의한다면,¹⁰ 저활동 및 우리 교회의 회원이 아닌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청년과 청년들이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됨에 따라, 지혜가 자라나며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¹¹과 관련된 상호 향상 모임 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에서 함께 협의하는 것은 평의회에서 함께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할 미래의 모든 지도자 세대를 위한 귀중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청남 여러분은 포크 댄스와 스포츠, 훌륭한 스포츠 정신이 발휘되는 건전하고 우정어린 운동 경기에 참여할 때 키와 육체적 힘이

자랄 것입니다. 가족 역사 탐구를 하고, 죽은 조상들을 위해 성전에서 대리 침례를 받고, 충실한 가정 복음 교사가 되고, 자주 교회 건물을 청소하고, 양로원을 방문하고, 마을을 미화하는 일을 도울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너희가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라는”¹² 베냐민 왕의 권고를 실천하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현명한 청소년 지도자는 기금 마련 활동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심 없는 봉사를 하는 것을 더욱 크게 강조할 것입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은 다양한 직업에 대해 좀더 배우고 말씀을 하고, 독창적인 단막극이나 재능 발표회에 참여하여 보다 큰 자신감을 키움으로써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질 것이며 선교 사업과 결혼과 장차의 직업을 보다 잘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활동은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¹³라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해야 하며, 우리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눠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현재 솔트레이크 계곡에 살고 있는 동부 출신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기독교의 충실한 회원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일 성도들 사이에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잘 지내요. 하지만 십대인 제 딸 아이는 걱정이 돼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쯤에 이웃에 사는 여러 소녀들이 우리 집을 지나 함께 어디론가 가는데, 한번도 우리 집에 들러서 열네 살 된 딸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할 적이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아주머니께는 행운의 날이군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요.” 그녀는 정말로 딸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었으며 우리는 스테이크장과 세미나리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자녀

들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정원회의 회원 중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만족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저활동 회원들과 다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청년 청년 상호 향상 모임 활동과 세미나리, 주일 학교 반, 성찬식 등에 참여하도록 따뜻하게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부활한 침례 요한으로부터 아론 신권을 받을 때, "천사의 성역의 열쇠"¹⁴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성임될 때 그 열쇠를 받았습니다. 저는 훌륭한 청소년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천사를 영접하기에 합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젊은 윌포드 우드러프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행사하여 "강력한 기적"을 일으켜 동료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성역을 베푸는 천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탄은 큰 기적을 일으킬 여러분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여러분이 지닌 신권의 힘을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호하는 힘인 성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몬경의 첫 장에서 우리는 리하이가 경전을 읽어 나감에 "주의 영으로 충만해 졌"¹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파이의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제낀다면 ...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다."¹⁶

여러분은 선교 사업과 장래 직업,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혼에 관한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책에 기록된 대로의 응답을 받게 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약속된 대로 성신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모두를 너희에게 보여"¹⁷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읽으면서 큰 감명을 받거나 속삭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여러 형태의 탐닉적인 행동에 내맡기게 하려 하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이 진실한 금식을 통해 육욕을 억제한다면, "홍약의 결박을 풀고", "명예를 꺾"¹⁸도록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이라고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금식을 통해 실제로 그 약속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의 공복은 복음의 충만함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신성하게 하는 것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전 공부와 금식은, 기도로 시작하고 끝맺을 때, 참으로 "밤도 낮되게"¹⁹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전생애는 기도의 힘과 "너희가 구하면 계시에 계시를 [받을 것이요]"²⁰라는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실제로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한 중요한 계시는 어떻게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린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장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성찰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 할 때, 히클리 대관장님의 다음과 같은 현명한 권고를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성신은 진리의 증언자로, 사람들에게 그들이 서로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²¹

고든 비 히클리 대관장님은 새로운 개종자들이 계속 활동하게 하고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돌이키는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십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아름다운 시로 이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처럼 축복받았다면
나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고, 친구의
성벽을 쌓으리, 내 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정다운 친구들이
지켜본다면, 내가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으리.²²

만년에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윌포드 우드러프 대관장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 사람이 제사인 사도이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제사는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사도로, 칠십인으로, 장로로 있었을 때, 제가 제사 직분을 가졌을 때 받았던 주님의 보호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제게 시현과 계시와 성신을 통해 제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것을 계시하셨습니다."²³ 사랑하는 젊은 형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강한 기적을 일으키는 데 신권의 권세를 사용하여, 동료들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Matthias F. Cowley, *Wilford Woodruff: History of His Life and Labors*, Salt Lake City: Deseret News, 1909, 47쪽.
2. 같은 책, 50쪽.
3. 같은 책, 50쪽.
4. 같은 책, 58쪽.
5. Matthias Cowley, *Wilford Woodruff: History of His Life and Labors*, Salt Lake City: Deseret News, 1909, 70~86쪽.
6. 같은 책, 11장 11 "Call to Great Britain, 1838," 99~128쪽; Chapter 12 "Mission in Great Britain, 1840," 114~128쪽; Chapter 13 "British Mission, 1840~41," 129~146 쪽.
7. 같은 책, 119쪽.
8. 모사이야서 8:18 참조.
9. 누가복음 2:52.
10.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 *교회 지침서 2권 신권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318~319쪽.
11. 신앙개조 13조 참조.
12. 모사이야서 2:17 참조.
13. 니파이이서 2:25.
14. 교리와 성약 13편 참조.
15. 니파이일서 1:8~12 참조.
16. 니파이일서 32:3 참조.
17. 니파이이서 32:5 참조.
18. 이사야 58:6.
19. 찬송가, "오늘 네 집 떠나올 때" 76장.
20. 교리와 성약 42:61 참조.
21. 고든 비 히클리, "아버지, 아들, 성신," *Ensign*, 1998년 3월호, 7쪽.
22. Browning, Robert, "Paracelsus," in *The Poetical Works of Robert Browning*, 2 Vols. London: Smith, Elder & Co., 1902, 1:25.
23. 윌포드 우드러프, "Discourse," *Millennial Star* Vol. 53, no. 40, (5 October 1891): 628~629.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여러분의 미래에 명성과 재물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더 오래 지속되고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영원의 세계에서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님의 신권을 소유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영감과 인도를 간구해 왔으며 여러분이 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일반적인 한 가지 통념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적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유혹에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자신들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자신을 현혹시킵니다.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버트란트 러셀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추수 감사절 아침에 평소처럼 점심 식사를 먹을 것을 기대하며 잠에서 깨어나는 칠면조와 같다. 일은 언제라도 잘못될 수 있다” 형제 여러분, “그런 일”은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많은 일들이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감지하는 힘의 영향을 받습니다. 찰스 더블류 펜로스 부대관장은 *타이타닉호*에 있던 한 고급 선원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말씀하셨는데 그 선원은 타이타닉호가 너무나 견고하게 건조되어 다른 배와의 충돌은 물론 빙산을 비롯한 그 어떠한 다른 힘에 접촉되더라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어떠한 인간이나 악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¹ 사실상 *타이타닉호*는 축구장 3개의 길이에 12층 건물 높이로 가장 좋은 강철로 건조되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그 운명의 밤에 다른 배들은 빙산이 앞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는 계속 속력을 높여 차가운 대서양을 가르며 전진했습니다. 망보던 사람들이 빙산을 발견했을 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제 때에 방향을 돌릴 수가 없었으며 빙산은 배의 우현을 스치며 여기저기 구멍을 냈습니다. 2 시간 40분 만에 건조된 지 얼마되지 않은 *타이*

*타닉호*는 바다 밑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익사했습니다.

빙산은 대개 8분의 1만이 수면 위에 떠 있습니다. 차가운 내부에 있는 얼음은 매우 단단해서 빙산의 8분의 7은 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만났을 때처럼, 그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앞에 놓여 있는 위협의 일부밖에 보지 못합니다. 역사에는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가졌으나 약해지는 한순간에 전도 유망한 삶을 내던져 버린 사람들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 왕이 비극적인 한 예입니다. 젊었을 때 그는 잘 생기고 용감하고 신앙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을 죽였으며,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새바를 보았을 때, 그녀가 다른 한 남자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인 헛 사람 우리아를 죽게 하려고 그를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싸우다 죽자 다윗은 밤새바와 결혼했습니다. 이런 사악한 행동의 결과로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유산을 잃었습니다.² 중대한 개인적인 결함에 굴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성취한 모든 훌륭한 일들의 많은 부분들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그 아들에게,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너보다 더 절벽 가까이까지 운전할 수 있단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은 그 상황에 따르는 실재 위협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경험을 안내자로 삼을 때 생기는 문제는 학기말 시험을 먼저 치른 후에 수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⁴ 어떤 사람들은 나이와 경험으로 인해 유혹에 보다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께서 그의 한 자녀가 데이트를 하러 나가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 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분은 그 자녀에게 몇 시까지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늘 들던 성가신 그 말을 듣고 언짢아진 [십대의 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대답은 그 자녀에게 분명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주님, 물론 너를 못 믿지, 내 자신도 못 믿는걸.]”⁵

그러므로 그러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의 권고에서 배운 것을 제안합니다. “같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할까 하고 결정하고 또 결정할 필요가 없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결정은 한번으로 족합니다. 한 가지 유혹을 두고 고뇌에 고뇌를 거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 소모일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대단히 높습니다.”⁶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며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 한 번 한다고 해롭지는 않을 거야.” 별로 해가 없을 것처럼 들리지 모르지만 마약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점을 꼭 알아 두십시오.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마약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조절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바로 마약이 여러분을

손아귀에 넣는 때입니다.”⁷

“느낌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딱 담배 한 개피만 피워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알아야 합니다. 니코틴은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⁸ 담배 네 개피만으로도 한 사람을 상습 흡연자로 만들기 충분합니다.⁹

“맥주 한 잔만.” 우리가 알코올에 중독될 수 있는 잠재성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한 잔은 또 한 잔으로 이어집니다. 첫 잔을 결코 입에 대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다음 잔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권 딱 한 장만 사 볼 거야.” 이것은 다른 중독보다도 더 간교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도박이 육체가 취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중독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 최근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돈보다도 더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활과 가까워지도 위태롭게 합니다.”¹⁰

“인터넷 사이트에서 외설물을 한 번 본다가, 적절치 못한 잡지 중간에 접혀 있는 사진을 슬쩍 훑어보는 것쯤이야.” 그것은 아무런 해도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보는 것을 없애는 것이 육체에 들어온 것을 없애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많은 상습범들은 외설적인 사진을 보는 일에서부터 범죄를 시작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적절한 오락도 때로는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종종 폭력, 부적절한 성 관계, 천박함,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과, 그 밖에 다른, 그에 관련된 악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둔화시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에 대해 다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한다면 훌륭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감미로운 꿈과 기대 이상의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기”¹¹ 때문에 현재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취를 이를 잠재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신의 영향력을 통해 렌즈를 밝게 하여 수정처럼 맑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성신인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¹²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¹³ 하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타고난 우리의 은사와 능력은 한정되어 있지만, 성신의 영감과 인도로 그것들이 더욱 더 커질 때 우리의 잠재력은 몇 배로 증가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례적으로 유용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것보다 더 큰 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청남 여러분은 기회를 갖고 있으며 또 자신의 큰 꿈과 기대 이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명성과 재물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의 미래는 더 오래 지속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영원의 세계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일부 청남들은 아직 여러분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의 신성한 기원에 대해 강한 간증을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셉 스미스가 실제로 시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과, 참으로 물 문경이 금판으로부터 번역되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십일조의 법에 대해, 순결의 법과 지혜의 말씀에 대해 끈질긴 어떤 의문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이의 젊은이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충분히 시험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나 생활 방식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이며,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 지상에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흔들리지 않는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증은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 받기 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¹⁴ 몇 년 전에 두 분의 총관리 역원이 아주 젊은 사람을 새로운 스테이크장으로 불렀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스테이크장은 그 부름에 온전히 헌신할 것이며 스테이크에 있는 어느 회원에게도 자신보다 더 헌신하도록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믿고 있다고 간증하며 그에 따라 생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점심을 하면서 한 총관리 역원이 이 새로운 스테이크장에게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스테이크장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임 사도는 동료 사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장로님만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얼마 후, 이 새로운 스테이크장은 영적인 한 가지 경험을 한 후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해 제 인생에서 얻게된, 변치 않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간증에 대해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드립니다.”¹⁵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¹⁶ 신권 성약을 맺은 청남으로서 여러분은 위대한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¹⁷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의 모든 원리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교회의 신성함

과 권능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신이 알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신앙을 통해 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금판을 보지 않더라도 거기에 있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판이 세 목격자나 여덟 목격자에게 허락된 것처럼 우리가 보고 만질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금판을 보고 만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충실하게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는 것이 대단한 경험이 되겠지만 신앙과 영의 증거를 통해 구세주의 신성함을 알게 되는 것이 더욱 대단한 일입니다.¹⁸

여러분은 또한 전세에서 하나님의 용감한 아들로서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그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고 그것이 계속 밝게 타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지니고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폐막된 2002년 동계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과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특별히 올림픽 경기의 공식 주제 음악으로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웅장한 작품을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의 제목은 “챔피언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챔피언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 작품의 감동적인 첫 가사는: *citius* (더 빠르게), *altius* (더 높이), 그리고 *fortius* (더 힘차게)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그것은 1924년 이래로 올림픽의 공식 모토였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경이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거룩한 사업이 참되다는 것에 대해 더 훌륭한 증거들을 가졌던 때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험뜯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빨리 움직이고, 또한 더 힘찼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높이 오르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서 우리 또한 더 긴박한 마음으

컨퍼런스 센터 강당의 남서쪽에서 바라본 광장, 테라스 그리고 발코니 층.



로 더 빨리 움직이며, 아주 높은 영적 목표를 향해 더 높이 이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더욱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오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살아 계신 예언자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예언자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훌륭한 것들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헝클리 대관장의 음성을 듣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The Oxford Companion to Philosophy*, ed. Ted Honderich (1995), 610쪽.
2. 조셉 필딩 스미스, *Church History & Modern Revelation*, 1:22 참조.
3. 교리와 성약 132:39 참조.
4. 작자 미상, 1,911 *Best Things anybody ever said*, comp. Robert Byrne, (1988)에서 인용, 386쪽.
5. Harold B. Lee 인용, *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edited by Clyde J. Williams (1996), 629쪽.
6. Spencer W. Kimball, *President Kimball Speaks Out* [Salt Lake City: Deseret Book Co., 1981], 94.
7. Guillermo D. Jalil, "Teen Addiction", *Street-Wise Drug Prevention: A Realistic Approach to Prevent and Intervene in Adolescent Drug Use* (1996), 인터넷, www.nodrugs.com.
8. U.S. Department of Education, "Growing up Drug Free: A Parent's Guide to Prevention, Part 2", *KidSourceOnline*, www.kidsource.com 참조.
9. Janet Brigham, "Tobacco: Quitting for Good", *Ensign*, 2002년 2월호, 52쪽 참조.
10. Shanna Ghaznavi, "Don't Bet Your Life," *The New Era*, February 2002, 26.
11. 고린도전서 13:12.
12. 요한복음 14:26.
13. 요한복음 16:13.
14. 이디서 12:6 참조.
15. 히버 제이 그랜트, *Gospel Standards*, G. Homer Durham comp (1941), 192~193쪽.
16. 예레미야 31:33 참조.
17. 여호수아 9:21.
18. 요한복음 20:29 참조.

그들은 기도하고 갑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신권을 지닌 강한 무리로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행합니다.



형 제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웅장한 컨퍼런스 센터에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형제님들이 꼭 찬 것을 보니 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전세계를 통해 이와 같은 신권 소유자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집니다. 주님의 영감이 저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에 영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래 전에 저는 임무 지명을 받아 타히티로 가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레이몬드 바우딘 부장과 타히티 국민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뱃사람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어와 타히티어를 사용하였으나 영

어를 잘 못하는 바우딘 형제는 타히티 사람들이 선장으로 성공하는 비결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배에 물이 셀 수도 있으며, 내적인 느낌과 하늘의 별 이외에 별다른 항해 보조 도구가 없는 데도 그들은 기도하고 갑니다." 그는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말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와 행동 모두 중요합니다.

잠언에 있는 다음 약속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권고에 따를 때, 기도한 다음에 갈 때,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원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 열왕기상에 있는 기록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지역에 심한 가뭄이 있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근이 뒤따랐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주님으로부터 그가 보기도 놀라운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 과부를 찾았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

계로 가져오라”

그녀가 아들과 자신을 위해 변변치 않은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여 먹은 뒤 죽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보인 반응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다음 말씀이 그녀에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말이었겠습니까. “두려워 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라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물문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 가운데서 어느 구절이 가장 널리 읽히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니파이일서에 있는 기사로서, 니파이, 그의 형들, 그의 부친 그리고 레

이벤에게서 늦쇠판을 얻어 오라는 명령에 관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때때로 우리 대부분이 물문경을 다시 읽어야겠다고 각오를 하는 것은 이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대개 우리는 니파이일서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구절은 기도한 다음에 가서 행해야 하는 필요성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우리는 그 계명을 기억합니다. 니파이의 대답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도 기억합니다.

우리 시대에, 기도한 다음에 가서 행한 사람들의 경험에 관한 예들이 많습니다. 호주의 퍼스라는 아름다운 도시에 살았던 한 훌륭한 가족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뉴질랜드 성전이 헌납되기 전인 1957년에 아버지인 도널드 커밍스는 퍼스에 있는 선교부 산하의 지방부장이었습니다.

그와 아내 그리고 가족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일하고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대 밖에 없는 차도 팔고 한 푼이라도 모을 수 있는 것은 다 모았지만 출발 예정 일주일 전까지 여전히 200파운드(현재 가치로 1,500 달러)나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예상치도 않게 100파운드나 하는 선물을 두번이나 받아 그들은 적절한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커밍스 형제는 여행을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은 기차로 광활한 호주 대륙을 횡단하여 시드니에 도착했으며 그곳에서 뉴질랜드로 가는 다른 회원들과 합류했습니다. 커밍스 형제와 그의 가족은 뉴질랜드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받은 최초의 호주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호주의 퍼스에서 와서 뉴질랜드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은 최초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커밍스 가족이 퍼스로 돌아왔을 때, 커밍스 형제는 전보다 더 나은 새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 9년 동안이나 지방부장으로 봉사했으며 그 후에 호주 퍼스 스테이크 최초의 스테이크장으로 그를 부르는 특권을 제가 가졌습니다.⁴ 지금 그가 호주 퍼스 성전의 최초의 성전장이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세난도*에는 다음과 같은 고무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행할 수 없다. 행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이곳에 있는가?” 현재 전세계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전임 선교사의 수는 60,000명이 넘습니다. 이 거대한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녁 이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을 듣거나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 보내질 것인가에 관해 주님을 믿고 있으며, 선교부 내에서 어느 곳에서 봉사할 것인가에 관해 선교부장을 믿으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선교사들의 거룩한 부름에 관한 많은 계시 가운데 저는 다음 두 구절을 좋아합니다. 모두 교리와 성약에 있습니다.

첫번째 것은 100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얼마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가족에 대해 걱정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밝혀 주셨는데, 그것은 전 교회를 통해 선교사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너희 곧 나의 친구 ... 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족은 평안하다. 저들은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저들에게 행하리라. 이는 내 안에 모든 권세가 있음이니라.”⁵ 두 번째 것은 교리와 성약 84편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 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⁶

독일, 프렌츨라우에 살고 있는 발터 크라우제가 행한 선교 사업은 실로 감동적입니

다. 크라우제 형제는 현재 92세로서 주님에 대한 그의 헌신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축복사로서 그는 유럽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회원들에게 천 여 건이 넘는 축복사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당시의 많은 사람들처럼 집을 잃은 크라우제 형제와 그의 가족은 코트부스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살며, 그곳에서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코트부스 지부를 인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4개월 후인 1945년 11월에 지방부장인 리하르트 랑글라크 부장이 크라우제 형제에게 와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크라우제 형제의 대답에는 교회에 대한 그의 각오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는 1945년 12월 1일에 주머니에 20 독일 마르크와 마른 빵 한 조각을 갖고 떠났습니다. 지부의 한 회원이 전사한 아들이 남긴 겨울 외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다른 회원이 그에게 구두를 한 켤레 주었습니다. 이외에 셔츠 두 장, 손수건 두 장, 그리고 양말 두 켤레를 갖고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

한번은, 한 겨울에 프렌츨라우에서 메클렌베르그에 있는 카민이라는 작은 마을로 걸어갔는데 그곳에서 가진 모임에는 4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큰 길과 작은 길 그리고 파여 놓은 발을 지나 여섯 시간 동안 걸은 끝에 그 날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기 직전에서야 그는 커다랗고 하얀 평지에 이르러 쉽게 걸을 수 있었으며, 곧 한 회원 집에 도착하여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렵구 관리인이 그 집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손님이 계십니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관리인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서 그가 온 길을 보십시오.” 크라우제 형제가 걸어 왔던 커다란 평지가 실제로

는 얼어 있는 호수였는데 관리인이 얼마 전에 낚시를 하기 위해 호수 가운데 커다란 구멍을 파 놓았었습니다. 바람이 눈을 몰아와 그 구멍을 덮어 버렸기 때문에 크라우제 형제는 그 위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걸어온 발자국은 구멍 바로 옆으로 해서 회원의 집까지 일직선으로 나 있었으며, 그는 그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배낭과 고무 장화의 무게로 인해 그가 볼 수 없었던 구멍을 향해 한 발자국만 잘못 걸어도 분명 익사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 마을에서 한 동안 이야깃거리가 되었다고 그는 훗날 말했습니다.⁷

크라우제 형제의 온 생애는 기도한 다음에 가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주님께 봉사하라는 신권의 부름에 응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능력에 의심이 느껴질 경우, 다음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⁸

얼마 전에 저는 루이지애나 슈레브포트 스테이크의 축복사인 제임스 위백 형제의 서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봉사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스펜서 터블류 김볼 대관장께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와 저에게 루이지애나 슈레브포트 스테이크의 축복사를 부를 때 있었던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볼 대관장께서는 축복사의 선입에 관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가 어떻게 집견을 하시고, 어떻게 찾고 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추천된 후보자들 가운데는 이 특별한 시기에 이 임무를 맡을 책임자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서 저녁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김볼 대관장은 스테이크장 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예배당 앞에서 뒤쪽으로 약 3분의 2정도 되는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스테이크장이 그가 제임스 위백 형제라고 대답하자,



곧바로 김볼 대관장은 “바로 저 형제가 주님께서 형제님의 스테이크 축복사로 택하신 분입니다. 모임 후에 고등 평의회실에서 저와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케이글 스테이크장은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제임스 워맥 형제의 신체는 보통 사람들의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끔찍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시력의 대부분과 청력의 일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두 손과 한 팔도 잃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법과 대학원에 갈 것을 바랐던 사람은 없었으나 그는 루이지애나 주립 대학교를 반에서 3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김볼 대관장님이 워맥 형제를 만나, 주님께서 그를 축복사로 지명하셨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자, 그 방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맥 형제가 말했습니다. “김볼 형제님, 축복사는 자신의 손을 그가 축복하려는 사람의 머리 위에 얹어 놓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얹어 놓을 손이 없습니다.”

김볼 형제님은 그분만의 친절과 인내심으로 워맥 형제에게 김볼 형제님이 앉아 계시던 의자의 뒤쪽으로 서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워맥 형제님, 앞으로 몸을 내밀어서 형제님의 짧은 두 팔 끝이 제 머리 위에 닿을 수 있는지 보십시오.” 그 두 팔의 끝이 김볼 형제에게 닿았고 워맥 형제는 너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팔이 형제님께 닿았어요! 닿았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닿았습니다.”라고 김볼 형제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닿을 수 있다면, 형제님의 팔은 형제님이 축복을 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닿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형제님 앞에 앉게 될 가장 키작은 사람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워맥 형제의 이름이 스테이크 대회에서 발표되자, “열렬히 지지하는 회원들의 손이 하늘을 향해 번쩍 올려졌습니다.”라고 김볼 대관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지명되었을 때 예언자 사무엘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⁹

형제 여러분, 우리의 부름이 무엇이든, 두려워 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가서 행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¹⁰ 야고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¹¹

신권을 지닌 강한 무리로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행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잠언 3:5~6.
2. 열왕기상 17:9~11, 13~16. 또한 12절 참조.
3. 니파이일서 3:7.
4. Richard J. Marshall, “Saga of Sacrifice”, *Ensign*, 1974년 8월호, 66~67쪽.
5. 교리와 성약 100:1.
6. 교리와 성약 84:88.
7. Garold N. Davis and Norman S. Davis, *Behind the Iron Curtain: Recollections of Latter-day Saints in East Germany 1945~1989*, *Brigham Young University Studies* 35, no. 1 (1995): 54~55쪽.
8. 마태복음 19:26.
9. 사무엘상 16:7.
10. 마태복음 28:20.
11. 야고보서 1:22.

신권을 행사하기 위한 개인적인 합당성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람들 앞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비난을 받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은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표준을 능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제가 깊이 염려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 관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 얼마나 걱정스런 과제인지 모릅니다. 고귀하고 훌륭한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이 얼마나 놀라운 형제애를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까. 이 신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며, 그분은 이 영광스러운 경륜의 시대에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 하늘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이 신성한 권능을 인간에게 부여하기 위해 권능을 지닌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개인적인 합당성은 이 거룩한 권세를 받

고 행사할 수 있는 적격성의 표준이 됩니다. 오늘 저녁 저는 이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위해 교리와 성약 121편에 있는 구절을 읽겠습니다.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

“이 권능은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이니, 이 또한 사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니라.”(교리와 성약 121:36~37)

이것이 주님께서 그의 신성한 권능에 대해 분명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얼마나 막중한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표준보다 높은 표준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고상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비난을 받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은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정

하신 표준을 능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굴복하여 죄를 즐겨서도 안 되며 혼자서 죄를 덮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불의한 야망의 허영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지배하고 통어하고 강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하게 되면 하늘의 권세는 물러갈 것입니다. 주님의 영은 슬퍼할 것이며 신권의 권세는 아무 가치도 없게 됩니다. 그 권능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매일의 행동은 신권을 지닌 남자와 소년으로서 우리의 효과적인 역할에 영향을 줍니다.

신앙개조 제5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권능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어 우리가 성임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이 신성한 권능을 행사할 권리를 무효화시키거나 잃을 수도 있습니다.

121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 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교리와 성약 121:41~42)

형제 여러분, 그것들은 신권의 행사를 가 능하기 위한 척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입었다 벗었다 하는 외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움으로 행사될 때, 마치 우리 몸의 생체 조직처럼 항상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천사의 성역을 베풀 수 있는 열쇠를 지닌 권세가 부여되었습니다. 잠시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자신과 여러분을 위한 천사의 성역을 베푸는 일 사이에 장애물을 만드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도 부도덕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직해서도 안 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거나 불결한 말을 사용하면서 천사의 성역을 베풀 권리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독선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남자답고, 활기차고, 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운동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운동 선수가 되고 승리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 또는 불경스럽거나 불쾌한 언어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려는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앞으로 가기 위해 여러분의 합당성에 의심을 초래하는 그 어떤 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제발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성임된 사자로서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신성한 권세를 약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경고하고 또 미리 경고하는 의미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여러분은 순결의 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을 포함한 가장 높은 행동의 표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 결코 혼자서 [지명된 동반자 이외의] 남자나 여자, 어린이나 어린이, 어느 누구와도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죄한 선교사에 대한 거짓 고소조차도 그것을 밝혀 내는 데 몇 달씩 걸리며 선교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문하고 있는 가정에서라도 동반자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음으로 해서 그러한 고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First Presidency statement on missionary conduct, 2002년 3월 22일)

선교사 규칙을 항상 준수한다면 이러한



대회에서 노래하고 있는 칠십인 위원회의 회원들

것들에 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을 잘 지킨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오점이나 의식 또는 후회 없이 영예롭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자신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일을 하

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 결혼 이외의 대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훌륭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구애를 엄격한 자기 통제 하에서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계명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

을 장식하라.” 그렇게 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교리와 성약 121:45~46) 될 것이라는 약속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택하는 아내는 여러분과 동등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11)

결혼의 동반 관계에는 열등이나 우월도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앞서 가지 않고 남자가 여자보다 앞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옆에서 나란히 영원한 길을 걷습니다.

아내는 여러분의 종이 아니며 소유물도 아니고 그와 유사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아내를 학대하는 일은 얼마나 비참하고 비열한 일입니까. 이 교회에서 누구든 아내를 학대하고, 인격을 손상시키고, 모욕하고,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신권을 소유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임되었다 하더라도,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고, 주님의 영은 슬퍼하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권의 권능은 아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관련된 사람은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흉한 상황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고 말하기가 마음 아픕니다. 아내에게 언어로 또는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의 어머니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남편을 학대하는 소수의 여성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저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남성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신권을 부여하신 남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혹시 제 말씀이 미치는 곳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혀와 강한 손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내와 자녀들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맥케이 대관장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J. E. McCulloch, *Home: The Savior of Civilization* [1924년], 42쪽 인용; Conference Report, 1935년 4월, 116쪽). 또한 리 대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업은 자신의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해롤드 비 리, *Doing the Right Things for the Right Reasons*,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1961sus 4월 19일], 5쪽)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 생애에서 재물을 얼마나 모았는지, 혹은 우리가 어떤 명예를 이룩 했는지에 대해 별로 언급이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가정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누구든 동반자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감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만이 영원한 재판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들을 것입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태복음 25:21)

다른 종류의 학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바로 노인 학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혼란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우리 회원들 거의 모두가 다음과 같은 고대의 계명을 준수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애굽기 20:12)

그러나 노인 학대는 얼마나 비참한 일이며 얼마나 지독히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현대 과학과 의술의 기적 덕분에 점점 더 장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게 되면 신체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능력이 퇴보하게 됩니다. 황금기라 불리는 노

년기에는 몸이 낡듯이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 마음속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들과 딸이 친절과 자비와 사랑으로 연로한 부모를 도우러 가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대중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다른 형태의 학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른들 특히 남성들이 저지르는 추악하고 사악한 어린이 학대입니다. 그러한 학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비열하고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우리 가운데에도 이 추악한 악을 행하는 자가 있음에 가슴 아픕니다. 그것은 용납되거나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마태복음 18:6)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평강의 왕께서 하신 강력한 말씀입니다.

교회 지침서에서 인용하겠습니다. “학대는 어떤 형태이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다. 배우자, 자녀, 그와 가족들, 또는 다른 누구든 학대하거나 잔학하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모두 어기는 것이다. 그러한 회원들은 교회에 의해 선도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교회 부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전 추천서를 소지할 수 없다. 어린이를 성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한 사람이 교회 선도 조치를 받은 뒤에 완전한 회원 자격을 회복하거나 침례를 통해 재입교 한다고 해도, 지도자들은 대관장단이 그 사람의 회원 기록상의 특기 사항을 삭제하도록 승인하지 않는 한, 그를 어린이나 청소년과 함께 하는 직책에 부르지 말아야 한다.

“학대 사건의 경우 교회의 일차적인 책임은 학대 받은 사람을 돕고 학대를 받을 소지가 높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제1권: 스테이크장단 및 감독단, 157쪽)

우리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해 왔습니다. 감독, 스테이크장 및 다른 사람들에게 이 희생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강화시키고, 일어난 일이 잘못된 것이며, 그들이 겪은 일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게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안내 책자를 발행하고 전화를 설치하여 교회 역원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LDS 가족 서비스 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 본질에 있어서 종종 범죄와도 같습니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야 할 책임에 관해 감독과 스테이크장들을 돕기 위해 변호사와 사회 사업가들을 포함하여 전문 상담자들이 상담 전화를 통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

라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의 지역 회장들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의 사업은 구원의 사업입니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돕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은 피해자에게 가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해자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하지만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법의 절차가 그 방법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때로는 파문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심하고 심각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벌을 받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고 나면, 친절한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또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제한 조치는 계속될 수도 있으나 또한 항상 친절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부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전세계에

있는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훌륭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에는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갖고 말하며, 그분의 헌신적인 종으로서 행동하며, 병자를 축복하고, 우리의 가족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충만함으로, 그 권능은 죽음의 장막 너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원의 세계까지 미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그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소중히 간직하며, 사랑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6)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제 축복을 남기고 저의 사랑을 전하며 드리는 저의 겸손한 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기도라는 구멍 밧줄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 각자는 기도를 통하여 보다 높은 힘의 근원에 다가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극복할 수 없는 약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하고자 합니다.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자에게 나아가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 생활의 커다란 특권이자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기도가 지닌 힘이 크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지상의 어떠한 권능도 우리가 창조자를 직접 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계적이거나 전자적인 문제는 결코 없습니다. 매일 기도할 수 있는 횟수나 얼마 동안 하느냐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구하고 싶은 필요 사항의 양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에 나아가기 위해 비서를 거치거나 약속을 미리 정해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든 다가갈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상에 두셨을 때,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구멍 밧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세대에 사람들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세대를 내려오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인간의 필요를 채워 왔습니다. 우리 각자는 기도를 통하여 보다 높은 힘의 근원에 다가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극복할 수 없는 약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²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지식과 이해, 사랑과 동정심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구세주께서는 기도를 드리실 때 주 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³

첫째,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자 구속주이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죄와 범법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며 용서에 대한 간구입니다. 셋째,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입니다. 넷째 창조자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명하는 기회입니다.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 "축복을 당신께서 주셨음을 알고 있나이다 ...", "당신께 감사를 표하나이다, ..."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기도는 하나님께 구체적인 축복들을 간구하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은 채로 수많은 간구를 드립니다. 구세주께서도 겹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⁴ 그러나 마음으로 드리는 무언의 기도 또한 하늘에 상달됩니다.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소망 말하든 안하든"⁵ 이라고 노래합니다. 진솔한 기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참으로 진솔하게 되려면, 구세주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질책하셨던 사람들과 같이 중언부언하거나 가식적으로 꾸미기보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가장 진지한 느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⁶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노래"와 "기도"가 되어 하늘에 닿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줍니다.

예레미야는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기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⁸ 이노스는 어떻게 그의 영혼이 굶주림을 느껴 하루 종일 기도하였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⁹ 기도는 그 강도에 있어서 매우 다양합니다. 구세주의 경우 격심한 고통의 시각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¹⁰ 어떤 기도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한편 그러한 축복을 간구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커다란 아픔이나 필요 사항이 있는



교회 본부 건물에서 바라본 솔트레이크 성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2002년 4월

대관장단



토마스 먼스 부대관장
제1보좌



고든 비 윙클러 대관장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제2보좌

십이사도 정위원회



보이드 케이 파커



톰 퓌엘리



데이비드 비 켄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블덴



멜빈 에이처 옥스



조셉 비 위스린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엠 홀렌드



헨리 비 아이머링

침신인 회장단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감리 감독단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오후의 석양이 컨퍼런스 센터 광장의 입구 안쪽에 있는 넓은 로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컨퍼런스 센터 외부 광장의 남서쪽 모퉁이에서 광각 렌즈를 사용하여 바라본 컨퍼런스 센터

때에는 단순한 간구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¹ 기도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축복은 때로 우리의 자신의 일과 노력과 부지런함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때로 금식이 진지함을 나타내는 강한 증거로서 적합할 때도 있습니다. 엘마는 제이라헤틀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러한 것을 스스로 알려 하였으며 이제 그것들이 참됨을 스스로 아나니,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알게 하셨음이라.”¹² 금식하면 우리의 영혼이 낮아지며,¹³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목적에 보다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 가면서 크고 작은 염려에 대해 매일 기도할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들에서는 양 떼를 위해, 집에서는 식구들을 위해 아침, 낮, 저녁으로 기도할 것을, 그리고 원수와 악마의 권세를 막아 주실 것을 기도하며, 우리 곡식을 위해 그분께 외치며,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 우리의 영혼을 쏟아 부을 것을 권고한 앰올레크의 말씀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외치지 않을 때에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¹⁴

다음에 나오는 한 아내의 진정어린 기도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앰올레크의 권고라 할 만합니다. “이 전쟁의 시기에 조국을 위해 군복무하는 제이슨을 축복하사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제 사랑하는 딸 제인을 축복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 주소서.” 한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아들 자니를 축복하셔서, 문들이 그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주소서.” 어린이가 혀 짧은 말로 간단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버릇 없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해 주세요”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게 먹을 것이 충분하도록 해 주세요” 또는 “어머니가 곧 낮게 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에서 올려 퍼지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나타내는 것보다도 우리의 필요 사항들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나,¹⁵ 우리가 신앙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와 축복과 안전과 위안을 간구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에 제가 겪었던 경험을 전에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쟁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의무는 다했습니다. 저는 견디어 냈으며 살아 남았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에즈까지 가는 브리티시 리버티라는 배에 배속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잠깐 기항한 것을 제외하고는 83 일간을 계속해서 그 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에 탑승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일요일마다 저는 군인용 경전 및 찬송가 세트를 들고 뱃머리로 혼자 가곤 했습니다. 세찬 바람 소리 속에서 저는 혼자서 경전을 읽고, 기도하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흥정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전쟁에서 살아 남아 아내와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침례 받을 때 맺었던 신성한 성약과 신권의 맹세 및 성약, 성전 서약에 계속해서 참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노력하겠다고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임무로서 불에 타버린 대형 유조선이 뉴질랜드의 오클랜드까지 견인하라는 명령이 우리 작은 화물선에 떨어졌습니다. 그 유조선은 동력도 없었으며 도움도 없이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적의 잠수함들이 주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끌고 가는 동안 심한 폭풍에 휩싸였었는데, 그 폭풍이 많은 배를 침몰시켰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견인하는 유조선의 무게로 인하여 덮쳐 오는 거대한 파도를 뚫고 나갈 충분한 힘이 우리에게 없었으며, 우리



배는 몰아쳐 오는 파도의 골 사이에서 이쪽 저쪽으로 휩쓸렸습니다. 배가 삐걱대며 이리 저리 흔들렸으며, 파도가 물러올 때마다 거의 전복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기도를 드렸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때나 그 이후로 위험에 처했던 다른 때에 저의 기도가 가져온 위안과 지지하는 힘에 대해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¹⁶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가족 기도를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한 어린 소년에게 매일 밤 기도를 하는지를 묻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소년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초동회 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침에도 기도를 하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뇨, 하지 않아요, 낮에는 무섭지 않거든요.”¹⁷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아침이나 밤에 기도를 드리는 유일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기도는 강력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영향력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암울한 시절 동안 500 파운드의 폭탄이 영국 리버풀에 살던 젊은 아버지, 패티 형제의 자그마한 집 밖에 떨어졌으나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기에, 그는 혼자서 다섯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긴박한 이 시간에 가족 기도를 드리고자 자녀들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 진지하게 기도했으며 기도를 마쳤을 때 자녀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오늘 밤 우리 집에 별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무시무시한 폭탄이 반쯤 땅 속에 박힌 채 집 밖에 있습니다. 폭탄이 터졌다면 아마도 사오십 채의 집들이 날아가고 이삼백 명 정도는 죽었을 것입니다 …



“그 다음날 아침 … 온 마을이 48 시간 동안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폭탄이 마침내 제거되었습니다. …

“돌아오는 길에 패티 형제는 공습 예보대의 대장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알아 내었습니까?’

“패티씨, 당신 집 밖에 있던 폭탄에 접근했을 때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폭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터지지 않았는지 저희도 의문입니다.”¹⁸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함부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권고하셨습니다.¹⁹ 이 원리가 종종 우리의 기도에서 간과되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탄원은 강력했고, 그의 동기는 순수했으며, 하늘의 축복이 꾸준히 임했습니다. 예언자의 동료였던 다니엘 타일러는 한 중요한 사건을 들려주었습니다. “윌리엄 스미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커틀랜드에서 예언자에 대해 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요셉이 감리하던 … 한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약간 일찍 학교로 쓰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았는데, 나는 그의 얼굴에 슬픔이 깃든 것과 그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알아챘다. 잠시 후에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 예언자가 기도로 모임을 시작했다. 그는 청중을 향하지 않고 돌아서서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자신의 슬픔과 눈물을 감추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빈약한 이들에게서부터 하식이 있고 표현력이 풍부한 이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들, 특히 남자들이 기도 드리는 것을 들어왔다. 그러나, 그 때까지 어느 누구도 것처럼 마치 친절한 아버지가 충실한 자녀의 슬픈 사정을 귀 기울여 듣듯이 창조자께서 그곳에 함께 하여 듣고 있는 듯이 그분께 간구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요셉은 당시에 비록 배운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는 그가 타락하여 죄에 빠졌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실 것을 간구했다. 보잘것 없는 내 생각에도 그 기도가 하늘에서 주신 확신과 유창함을 담고 있었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걸치레도, 열의에 차서 음성이 높아지는 일도 없이, 다만 통상적인 대화의 음성으로 마치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했다. 만일 장막이 거두어졌다면, 주님께서 내가 이제껏 보아 온 모든 주님의 종들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종을 마주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그것은 이제껏 내가 들었던 모든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것이었다.”²⁰

죽음과 부활이 임박하던 시각에 구세주께서는 위대한 중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께 사도들을 추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는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며, 우리 모두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며,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²¹

겻세마네 동산에서 구세주께서 친히 드렸던 기도보다도 더 감동적인 기도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도들이 있는 곳에서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²² 겻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본보기, 곧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본보기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최우선적인 목적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²³ 우리 각 사람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실”²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사랑하는 지도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과 함께 계속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그분의 보좌들조차도 그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그분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

주

1. 창세기 4:26.
2. 니파이서서 32:9; 니파이삼서 20:31.
3. 마태복음 6:9~13.
4. 누가복음 22:41.
5. 찬송가, 61장
6. 누가복음 18:10~14 참조.
7. 교리와 성약 25:12.
8. 예레미야 29:13.
9. 이노스 1:4.
10. 누가복음 22:42~44.
11. 교리와 성약 9:7.
12. 앨마서 5:46.
13. 시편 35:13.
14. 앨마서 34:20~27 참조.
15. 마태복음 6:8.
16. 니파이삼서 18:21.
17. Tal D. Bonham, *The Treasury of Clean Church Jokes*, as quoted in *Holy Humor*, eds. by Cal and Rose Samra, 23쪽에서 인용.
18. Andrew K. Anastasiou, *Conference Report*, 1946년 10월.
19. 마태복음 5:44.
20. *Juvenile Instructor*, 1892, Vol. 27, 127~8쪽.
21. 요한복음 17:21.
22. 누가복음 22:41~42.
23. 요한복음 15:7.
24. 요한일서 5:14.

또다른 탕자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다른 사람보다 덜 존중되거나 덜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와 우리 안에 있는 불안정함, 염려, 자아상,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구 세주께서 전해 주신 가장 잊혀지지 않는 비유들 가운데에는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한 뒤 집을 떠나 경전상의 표현으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탕진한 어리석은 작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¹ 돈과 친구들은 항상 그렇듯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사라졌으며,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인해 그 후에 무서운 결산의 날은 늘 그렇듯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내리막길을 거치면서 그는 돼지를 지키는 자가 되었으며, 너무나 배가 고팠고, 재산과 품위를 완전히 잃고 난 그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러한 위안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은 그가 “스스로 돌이켰!”² 다고 희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종으로는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집으로 갈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 아들을 염려하던 충실한 아버지가 아들을 맞으러 달려나가 수 없이 입을 맞추는 애뜻한 장면은 거룩한 경전에 있는 모든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 애정어린 장면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보호의 팔 속으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에 심취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큰 아들에 관한 기사를 지나치기 쉬운데,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의 첫 줄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어쩌면 “두 아들을 모두 잃었는데 그들 모두 돌아와야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가락지를 끼었을 때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밭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일했으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니다. 그들이 각기 있었던 장소는 달랐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묘사하는 언어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음악과 웃음 소리를 듣습니다.

“한 종을 불러 [그에게 종이 있었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이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기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나눈 대화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 이 아버지는 집을 뛰쳐 나가 돼지와 함께 뒹굴던 빛나간 아들에 대한 고통스런 마음에 덧붙여, 오래 형들이 그러하듯이 소년 시절의 영웅이었던 이 현명한 형이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보고 화를 내고 있다는 생각에 그 고통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제 말씀을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이 아들은 다른 사람이 집에 왔을 때에는 그다지 화가 나지 않았으나 부모님께서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한 것에는 화를 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아마도 필요 이상으로 자기 연민을 느끼며, 이 충실한 아들, 놀라운 정도로 충실한 아들은 잠시 동안 더러움이나 절망, 두려움이나 자기 혐오를 자신이 결코 겪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잊었습니다. 그는 목장에 있는 모든 송아지가 이미 그의 것이며, 옷장에 있는 모든 옷과 서랍에 있는 모든 가락지가 모두 자신의 것이



라는 점을 잠시 동안 잊었습니다. 충실함은 늘 보상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을 그는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을 하여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던 그는 자신이 근접해 있던 완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한 가지를 지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아직 동정심과 자비, 그리고 동생의 귀향이 경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는 넓은 시야와 성숙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볼 것을 간청했던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잃었다가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이 동생은 죄수, 곧 죄와 어리석음, 그리고 불결한 생활 속에 사로잡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도 어느 정도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신의 보이지 않는 감옥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먼 질투의 괴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² 그는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과 동생에 의해 권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지 않은 모욕의 희생물로 빠져 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탄탈루스라도 된 것처럼 물이 목에까지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말라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삶이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좋은 운명에 만족을 느꼈던 사람이 단지 또다른 사람 역시 어떤 좋은 운명을 지녔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매우 큰 불행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선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간교하게 속삭이는 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지을 때, 분명 우리에게도 얼굴을 찌푸리신다고 믿게 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그는 모든 거짓의 아버지입니다.³ 그는 우리의 공동의 적인 루시퍼입니다.

그는 창세 이래로 항상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영예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쳐 왔습니다.⁴

질투는 아무에게도 선뜻 고백할 수 없는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지는 “질투가 열병이었다면 온 세상이 그 병을 앓았을 것이다.”라는 덴마크의 한 오래된 격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서의 *켄터베리 이야기*에 나오는 사제는 그 영향이 너무 멀리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탄식합니다. 그것은 덕성과 재능을 위시하여 어떤 것도 원망할 수 있으며, 모든 선과 기쁨을 위시하여 모든 것에 의해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⁵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크게 성장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 따라서 우리가 보다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게도 종종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일은, 특별히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에도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 주는 이런 저런 유혹을 우리가 매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 상태의 자신보다 더 멋있고 더 부유하고, 더 박수를 받거나 더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해 줍니다. 우리는 충분한 재산도 모으지 못하고 재미있는 곳에 충분히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의 척도에 의해 저울질 당하며 또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수없이 공격을 받아 왔습니다.⁶ 머지않아 우리가 크고 넓은 건물 안에 있는 작은 칸막이 안에 갇히게 되고 그곳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일한 것이 헛된 망상이라는 제목의, 결코 그 끝이 없는 매우 어지러운 연속극을 보는 것같이 될 것입니다.⁷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자녀들을 애태우지 않습니다. 그는 무자비하게 그들을 이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을 서로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한

아들에 대한 동정심어린 몸짓은 다른 아들에 대한 사랑을 취소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두 아들 모두에 대해 하나님처럼 관대합니다. 두 자녀 모두에게 아버지는 자애를 전합니다. 제 소중한 아내 팻이 제 노래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팻은 재능있는 음악가로 음악적으로 비범한 일면을 가지고 있으나 저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음표들을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래하려 할 때 아내가 저를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을 아내의 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아내의 눈은 사랑이 가득한 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비교하고, 지성과 매력, 그리고 성공의 적고 많음의 것대로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는 세상에서는 그와 같이 하지 않는 [신의] 사랑을 믿기란 정말로 쉽지 않다. 누군가가 칭찬받는 것을 들을 때에는 내 자신이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선행과 친절에 대해 읽을 때에는 내 자신이 그들만큼 선행하고 친절한가 하고 의심하게 된다. 트로피와 보상과 상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내게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하고 자문하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감정을 거부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세상에서 온갖 것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이러한 경향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분노를 돋우고 그 품위를 손상시키며,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끔찍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주어졌지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경향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두 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만큼 서두르고 겸손한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는 길에서 우리는 자신이 받은 많은 축복을 세어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성취한 것에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것은 사람의 가슴을 위해 이제껏 처방된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잃어버려진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지만, 항상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분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도와 줄 것을, 그분들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받아들이시며, 그분들께서 준비하신 향연에 우리를 데려다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경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약속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느 누구도 싸우거나 경쟁할 수 없는 하나의 무대입니다. 니파이는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며 또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선하심을 취하지 말라고 명하시더니?"라고 니파이는 묻습니다. 아닙니다! "만민에게 각각 선하심을 취할 권세가 주어져 있음에, [그분의 손에서] 금지 당한 자"는 없습니다.

그분은 "땅끝의 모든 백성들이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값이나 상 없이 젖과 꿀을 시라고 호소하십니다.¹⁰ 모든 사람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거나 저 사람이거나 마찬가지로입니다. 평화롭게 생활하십시오. 자신있게 생활하십시오. 두려움이나 시기하는 마음 없이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항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확인하십시오.



템플 스퀘어 어셈블리 홀의 첨탑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축복을 간구할 때에라도 그들에게 축복이 내려지기를 진지하게 간구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재능과 능력이 어느 곳에서 주어지더라도 그것들을 북돋아, 이곳에서의 삶을 하늘에서 이루어질 삶에 보다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덕성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는 바울의 간결한 다음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¹¹ 그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또 모든 지체가, 아름답든 연약하든 간에, 흠모할 만하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¹² 한다는 그의 깊은 권고를 느끼게 됩니다. 비견할 수 없이 훌륭한 이 권고는 관대함(*generosity*)이라는 말이 계보(*genealogy*)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이 두 단어는 모

두 같은 태생 또는 종류, 같은 가족이나 성을 의미하는 라틴어 *genus*에서 유래되었습니다.¹³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관대해지기가 더욱 쉽다는 점을 늘 알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다른 사람보다 덜 존중되거나 덜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중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와 우리 안에 있는 불안정함, 염려, 자아상,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재능이나 외모로 우리를 재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직업이나 재산으로 우리를 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 하시며 그 경주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치십니다. 우리가 충실하다면, 완전하게 맞추어 지어져 준비된 의의 옷,¹⁴ 곧 “어린 양의 피에 ... 회개”¹⁵ 된 옷이 모든 각 사람을 기다리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을 얻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 가운데 각 사람을 격려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15:11~32 참조.
2. 윌리엄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 3막, 2장, 110줄.
3. 니파이서 2:18 참조.
4. 모세서 4:1.
5. Geoffrey Chaucer, *The Canterbury Tales*, ed Walter W. Skeat (1929), 534~35쪽.
6. 다니엘 5:27 참조.
7. 니파이서 12:18 참조.
8. Henri J. M. Nouwen,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1992), 103쪽.
9. 이디서 12:26; 모로나이서 10:32; 교리와 성약 17:8 참조.
10. 니파이서 26:24~28 참조.
11. 고린도전서 13:13 참조.
12. 고린도전서 12:25~26 참조.
13. 이 어린 관계를 지적해준 헨리 누웬에게 감사 드립니다.
14. 이사야 61:10; 니파이서 4:33; 9:14 참조.
15. 요한계시록 7:14.

네게 유익이 되고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으며, 어려움을 통해 “네게 유익이 되리라”는 익숙한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될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이라 불리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그의 일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아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교리와 성약 121:1) 주님은 그에게 이러한 말로 위안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이다.”(교리와 성약 122:7) 우리의 개인적인 비극이나 고통에서 유익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가슴 아프도록 생소합니다. “네게 유익이 되고”라는 말이 너무나도 모순되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계획에 대한 이해는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도록 도와 줍니다. 전세의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엘마가 “행복의 계획”(엘마서 42:8)이라 설명한 필멸의 세계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지상에 옴으로써 고통이나 괴로움, 절망적인 상황, 죄, 죽음과 같은 그다지 내키지 않은 시련들을 포함한 지구 생활에서의 모든 경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해했었다고 믿습니다. 대립과 불행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그 계획에 대해 우리가 이는 것의 전부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행이 앞에 나서서 자신이 내려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 계획이 주목을 받았고, 받아들일 만한 뿐만

언젠가 저는 비탄에 잠긴 한 어머니로부터 심각한 죄를 저질러 무죄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상처를 준 아들로 인해 겪게 된 괴로움과 고통을 전하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익명의 편지를 받은 후, 그녀의 절망적인 심정을 느끼면서, 저는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그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제 사랑을 표현하며,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홀로 힘겹게, 오직 자신들과 하늘에 계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무거운 짐을 진 분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기회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익명의 자매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자매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을 상기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그에 덧붙이는 또 다른 간중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범법에서 회개와 용서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망에서 산 자의 부활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한 설명과 함께 제시된 가장 관대한 제안을 듣고, 우리 모두는 각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난 그것을 할 수 있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모험이야.” 그렇게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속죄가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하다는 것이 물론경의 앨마서 34장에서 앰올레크에 의해 설명됩니다. 앰올레크는 “최대 최후의 희생”(앨마서 34:10)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희생이 이미 인간에게 알려진 것과 같은 짐승이나 새의 희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희생은 오직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은 끝이 없고 영원한 희생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희생이 이루어졌고, 신앙에 따라 우리는 필멸의 삶이라 부르는 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가슴은 설명할 길 없는 자녀의 상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때 이른 병이나 불구로 인해 슬퍼집니다. 홀로 된 부모들은 그들의 가정에 재정적 안정과 위안을 주는 복음의 영향력을 제공하기 위해 허덕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죄와 범법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며 겪게 되는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연단하는 자의 불행 불행과 절망을 겪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불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그것을 조용히 감추거나 개인적으로 견뎌 내고 있습니다. 오늘이었다면 대부분의 번민과 고통과 괴로움을 선택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계획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을 때 선택했습니다. 구세주께서 우리를 구조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가졌을 때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이해가 우리가 처음 그 선택을 하던 때처럼 오늘도 그렇게 명확하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선택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역경을 이겨내도록 신앙을 간직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처음 선택할 때 행사했던 그러한 신앙을 어려운 시기에 그대로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의구심이나 심지어 분노조차도 모든 힘과 축복과 희망의 원천인 그분에게서만 올 수 있는 힘과 축복과 희망을 인정하게 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복음 계획의 일부이고 의를 위한 것이며, 그릇되어 보이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바르게 되리라는 지식과 확신을 가져옵니다. 위엄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인내하도록 이끄는 이러한 평안과 이해는 감미로운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비록 인생의 길이 가시와 영경퀴와 거친 바위 위로 놓였다 하더라도 유익함을 보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요한복음 9:2~3)

저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비극과 비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어나게 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눈먼 자를 고치시는 데서 나타났듯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련을 겪는 그 길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 흔히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관련이 있고 그것에만 국한되는 감미로움과 유익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과 고뇌로 인해 감춰지는 그러한 기억할 만한 순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데서 오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엄숙함과 감사함을 갖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가장 많은 고통을 겪으신 그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어 평안한 마음으로 짐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는 데 있어서, 저는 *infinite*(끝없는)과 *eternal*(영원한)의 사전적인 정의를 좋아하는데, 그 정의가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을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Infinite* (끝없는): 경계나 한계를 갖지 않은. *Eternal* (영원한): 시작이나 끝이 없는.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2000], pp. 611, 898) 입니다. 익명의 자매님, 속죄가 괴로움 속에 있는 자매님을 위한 것이란 것을 보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자매님의 시련과 슬픔을 이미 겪으셔서 그것들을 상세하게 아시는 연고로, 속죄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즉 심각한 죄를 범한 아들조차도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헤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냈는가 아니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물론, 우리들 대부분은 인생의 힘든 교훈들을 주일학교의 안전한 안락함 속에서 가정의 밤 동안 화롯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리버티 감옥의 춥고 어두운 구석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나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위안을 주는 경전 구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이다." 또한, 역경에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구할 수 있으며, 어려움에서 "네게 유익이 되고" 라는 친근한 말의 의미를 이해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우리의 범법과 고통을 위해 궁극적인 값을 치르기 위해 겹새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몸의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9편 참조) 익명의 자매님, 저는 그분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매님을 위해 한 방울의 피를 흘리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자매님의 아드님을 위해 피 한 방울을 흘리셨으며, 저를 위해 또 한 방울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믿습니다. 신앙을 믿습니다. 회개를 믿습니다. 저는 구속의 힘을 믿습니다. 익명의 자매님, 저는 자매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사랑의 언어

게일 엠 클레그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우리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매우 귀중한 존재이다. 너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너는 선한 아이이다." 라고 정기적으로 말해 주는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점은 엄마였을 때, 저는 남편과 함께 큰애가 여덟 살이 채 안 된 우리의 다섯 자녀들을 데리고 남미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그 나라 말을 할 줄 몰랐으며 여섯 살 된 자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을 특히 힘들어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1학년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네 살짜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과 어울리면 아이가 겁을 좀 덜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에게 낯설었던 것처럼 제 딸 역시 그 아이들에게 낯선 존재인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매일이 험겨웠고 저는 아이가 맞이해야 할 매일 아침을 겪

정하며 그 애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하루가 끝날 무렵, 풀 죽어 돌아오는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몇 명의 아이들은 제 딸에게 특히 더 불친절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피부 색깔을 가지고 놀리며 돌을 던지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겁먹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 교실에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텅 빈 운동장에 앉아 있는 동안 아이는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 가르쳐 주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자녀들 곁에 가까이 계시며 잠자리에 들기 전뿐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이의 마음속의 언어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운동장 한 구석에서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던 아이는 아빠와 엄마가 와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는 동안 초등학교 노래 하나가 딸아이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크로바 풀밭에서 산보하면서
한아름 파랑꽃 따서 모아요
온 들 위의 꽃들을 따서 모아요
꽃을 보면 어머니 생각나요*
(크로바 풀밭에서, 어린이 노래책, 109쪽)

딸아이가 눈을 떴을 때, 시멘트 틈에서 자

라하고 있는 조그만 꽃 한송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꽃을 따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의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그 아이는 부모가 자신과 함께 있다고 느끼면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각자는 여섯 살짜리 제 딸처럼, 타국에서 소외당하거나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타국은 대수나 화학 언어를 배우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고국에서 교회에 들어 오게 되었을지라도 타국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개종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름"이나 "감리 감독단", "총관리 역원" 등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 해설집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가 참되다는 성령의 속삭임을 이해하고 그 속삭임에 따랐지만 그 후엔 복음과 외국어를 동시에 배워야 하는 과제를 떠안아야 하는 우리의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용기를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낯선 언어를 배우며 좌절



을 경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 공통의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꽃을 보면 어머니 생각나요"라는 가사는 어린 소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노래와 야생화는 응답된 기도라는 친숙한 언어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바운티풀에 있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잠시 가르치신 후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다음날 그분이 다시 오실 일에 대해 준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다시 눈을 들어 무리를 보시매, 무리가 눈에 눈물을 머금고 조금이라도 예수가 저들과 함께 더 머물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색은 보시고 ...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저들이 눈을 들어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 와 어린 아이들을 애워싸매, 어린 아이들도 불로 둘러 싸였으며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니파이삼서17:5, 21, 23~24)

우리 자신의 간증의 불로 "에워 싸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말하고 이해하기를 배워야 할 언어입니다.

초등학교에 참석하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배우는 첫번째 수업은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8개월 정도의 어린이들은 자신을 가리키며 다음의 시에 맞추어 손가락 놀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요,
나의 이름과 사는 곳도 알고 계세요,
나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초등학교1, 제1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 [1994],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알고 계셔

요", 2쪽)

매우 오래 전에 제가 6학년을 가르쳤을 때, 불량배처럼 옷을 입은 열네 살 된 한 소녀가 제 교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30명의 학생들보다 두 살이 더 많았으며 몸집은 네 살은 더 먹었을 만큼 컸습니다. 저는 곧 브라이언이 글을 읽을 줄 모으며 학교에 규칙적으로 오지도 않고, 각양각색의 보호인들과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표를 배부할 시기가 되어 저는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 기록하고 성적 매기는 일을 마치기 위해 비번인 날에 학교에 갔습니다. 성적표를 가지러 교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교실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브라이언을 보았습니다. 저는 동료 교사에게 브라이언을 데려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림이 잔뜩 그려진 1학년용 교과서 몇 권을 들고, 우리는 미식 축구에 대해 얘기하며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한 책상에 자리를 잡았고,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성적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성적표를 받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제가 좋은 아이라고 쓰여 있거만 하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장점을 강조하는 특별한 성적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이름과 성을 쓴 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그 아이의 능력에 대해 썼습니다. 또 스포츠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습니다. 보통 성적표와는 좀 달랐지만 아이는 그 성적표가 매우 마음에 드는 듯했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브라이언은 우리 학교를 떠났고, 다른 주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좋은 아이라고 쓰여 있는 그 성적표를 그 애

가 어디에 있는지 주머니에 갖고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최종 성적표를 받을 것입니다. 아마도 서로의 선한 점을 얼마나 잘 말해 주었는가에 대한 점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우리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매우 귀중한 존재이다. 너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너는 선한 아이이다.”라고 정교적으로 말해 주는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척자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걸은 그 어린이들의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노래의 가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척자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용감한 남자와 여자들을 떠올려요.

저는 어린이들도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어요.

나도 그때의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개척자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영문 어린이 노래책, 222쪽)

수잔 매드슨은 윌리 손수레 부대에 있었던 아그네스 콜드웰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폭풍을 만나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구조 마차가 식량과 담요를 전달하기 위해 왔지만 모든 사람들을 실어가기에 마차들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한 계곡에 도착할 때까지 수마일을 힘겹게 걸어야 했습니다.

아홉 살이었던 어린 아그네스는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마부는 마차를 따라 잡으려는 이 어린 소녀의 결심을 감지하고 마차를 타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내 손을 잡더니,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을 계속 달리게 하여 나를 뛰게끔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다리로 나는 몇 마일처럼 느껴지는 거리를 계속 뛰어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렇게 나쁜 사람은 난생 처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는 마차를 세우더니 저를 안으로 잡아당겨 태웠습니다. 그리고 담요로 따뜻하고 편안하게 저를 감싸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 생각이 바뀌었는데, 마차 안으로 들어 올려진 제 몸이 얼지 않도록 그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 정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I Walked To Zion*, [1994], 59쪽)

그 구조대의 마부는 이 어린 소녀를 필수 있는 만큼 빨리 뛰게 만들어서 그녀의 언발과 다리에 피가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소녀가 스스로를 돕게 만들으로써 소녀의 다리와 어찌면 소녀의 목숨까지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오늘날 서부로의 이주만큼이나 끔찍하고 고생스러운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행을 하는 동안 갖가지 재난을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짐을 감당하고 인생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종종, 어린이들의 신앙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달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니파이삼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축복하실 때 “만면에 미소를 띄우시고 저들을 바라보시니 예수의 얼굴 빛이 저들에게 비쳤습니다.”(니파이삼서 19:25)

만면에 띤 미소는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어린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기쁘게 반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은 “어린이들은 밝은 햇빛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리아호나*, 1995년 1월호 54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복음 교육

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국어 가 무엇이든 간에, 진심어린 기도와 기쁨에 찬 간증의 언어로 말하고 가르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천사들이 지상과 천국 모두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정과 칭찬의 언어를 들려주는 복음 교사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선함을 확인해 주는 정규적인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그들의 힘으로 달릴 수 있는 만큼 빨리 달리게 하고, 자기 자신의 간증에 대한 힘을 기를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축복입니다. 만국 공통어인 사랑의 언어로 위대한 여정 내내 우리는 미소를 보내고 사랑의 담요로 그들을 감싸 주어야 합니다.

저는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는 훌륭한 축복에 대해 감사합니다. “어린이들도 왔다”는 노래 가사를 저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컨퍼런스 센터 광장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남자



어둠에서 나와 그의 놀라운 빛으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세주의 속죄의 상징물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그의 빛을 항상 지닐 수가 있습니다.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민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의 친구 및 이웃들과 함께 나란히 봉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눈에서 빛을 보았으며 우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예언자 미가가 일컬었던,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밝게 비추인 침담과 함께 전세계 35억의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세계의 여러 국민들이 태버내클 합창단의 훌륭한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이 대강당에서 **세상의 빛: 삶을 경축함-인간의 영혼, 하나님의 영광**이란 제목의 실황 공연을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공연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한 기타 여러 수단을 통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희미하고 어두운 데서” 계속해서 나아오고 있는 것에 대해 겸손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성화, 빛의 소년, 그리고 올림픽 테마였던 “마음의 불을 밝혀라”⁹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빛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기억에 남을만한 빛은 선수들 개개인의 눈에서 타오르는 빛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더 깊은 진리, 곧 우리들 개개인의 내면에 타오르는 빛의 근원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그 빛은 무엇입니까?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제 자신과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빛을 항상 지닐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의 은사

우리 개개인은 세상에 빛을 가져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요”¹⁰라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만물 안에 있어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¹¹

“끊임없이 선으로 이끌어 인도하는”¹²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습니다].”¹³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빛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위대한 빛인 성신의 은사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및 거룩한 신권의 회복을 통해, 이 말일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신의 은사를 주는 권능을 갖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이 은사는 신권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안수례를 통해 주어지며, 신앙과 회개의 원리를 따르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의식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성신은 신화의 세 번째 일원으로, 영의 인격체입니다.¹⁴ 그분은 보혜사이며, 하나님의 영이며, 약속의 성신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사업과 지상에서 이뤄지는 주님의 종들의 사업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정화하고 성결케 하는 죄 씻음의 행위자로 작용합니다.¹⁵ 성신과의 변함 없는 동반은 우리가 필멸의 존재로 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신의 속삭임이란 빛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 면전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¹⁶

어둠과 빛

어렸을 때 우리는 빛을 밝힘으로써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따금 저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인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한 만방의 시민들을 가리켜 존 테일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분의 종교의 원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들이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정의와 의를 행합니다.”¹⁷

“어두운 데서” 이끌어 내음

솔트레이크 시티가 2002 동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유치한 결과, 우리는 많은

년 때 부모님이 외출하셨을 때, 우리는 집 안의 모든 불을 꺼곤 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법칙인 동시에 영적인 율법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패배하여 달아나야만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빛이 약해지거나 떠나지 않는 한 어둠이 빛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신의 영적인 빛이 존재한다면, 사탄의 어둠은 달아납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빛과 어둠의 세력 간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멸망 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¹³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¹⁴

주님은 우리의 빛이며, 문자 그대로, 우리의 구원입니다.¹⁵ 니파이삼서에서 어린이들을 둘러싸던 거룩한 불처럼,¹⁶ 그분의 빛은 여러분과 대적의 암흑 사이에 보호벽을 형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빛을 필요로 합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주의 깊게 공부하고 부모님과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 후에, 현명한 권고에 순종함으로써, 복음의 보호하는 빛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매일같이 그 빛을 일으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빛을 일으킴

지난 겨울에 저는 제 자신의 폐에 대해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산소를 저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숨쉬는 데 필요한 공기

를 모아둘 수는 없습니다. 매 순간 마다, 숨을 쉴 때마다, 우리의 생명은 되살아나야 합니다. 영적인 빛도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빛도 정기적으로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에 생각을 더할 때마다, 대적의 어둠을 멀리하고자 한다면 일상적인 의의 행동으로 그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제가 소년이었을 때, 밤에 농구 연습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타곤 했습니다. 작은 서양배 모양의 발전기를 자전거 바퀴에 연결했습니다. 그런 후 페달을 밟으면, 타이어가 작은 회전자를 돌려, 그곳에서 전기가 발생하여 한 줄기 빛을 밝게 비췄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고 효과적인 장치였지만, 페달을 밟아야만 작동했습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밟지 않는다면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페달 밟는 일을 “힘써 노력할”¹⁷ 때, 빛이 더욱 밝아져 제 앞의 어둠이 물러가곤 했습니다.

영적인 빛의 생성은 일상 생활에서 하는 영적인 페달 밟기에서 나옵니다. 영적인 빛은 기도과 경전 읽기, 금식, 봉사-즉, 복음대로 살고 계명에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으리라”¹⁸,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¹⁹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완전한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서게 될 때일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성찬식에 참석해야 하나요?” 혹은 “왜 지혜의 말씀대로 살고 십일조를 바쳐야 하나요?” 혹은 “왜 한 발을 바빌론에 들여 놓을 수 없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영적인 페달 밟기가 두 발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대로 사는 데 전념하지 않는다면 -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²⁰ 다하여 살지 않는다면 - 여러분은

어둠을 밀어내기에 충분한 영적인 빛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둠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 어둠은 들어올 기회를 노리며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²¹ 그것은 물리적인 법칙처럼 예상이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 영의 빛이 차츰 꺼지거나 희미해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대적의 어둠이 반드시 들어올 것입니다. “저 사악한 재가 와서 불순종으로 인간의 자녀에게서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²²

경전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빛 없이 감감한 데를 더듬[으]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다”²³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다가, 우리는 주위 환경의 어둠에 익숙해져 빛 안에서 걷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빛에 이르는 길

“암흑의 안개”²⁴에서 빠져 나와 이 생과 다가올 세상에서 맞게 될 영생에서의 행복으로 이끌어 줄 길로 들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리라”²⁵

예언자 니파이는 그 길을 간결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마음의 뜻을 다하며, 위선을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참 마음으로 너희의 죄를 회개하며, 침례로써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질 것을 ... [침례로써] 아버지께 증거하여 보일진대 보라, 너희가 성신을 받으리니, 그 때에 불과 성신의 침례가 너희에게 임하리라.”²⁶

우리가 침례 때 맺고 성찬을 취할 때 새롭게 하는 성약은 -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 그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

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²⁷ 구세주의 속죄의 상징물은 우리가 어둠에서 비틀거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빛을 항상 지닐 수 있습니다.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

뉴욕 시 롱아일랜드에서 자란 저는 바다에서 어둠 속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했습니다. 망가진 등대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대는 얼마나 파괴적인 것입니까!

성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그 속삭임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사나 부모나 친구로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²⁸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의지할지 결코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 저들이

회개하여 참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온다면 내가 혹 저들의 아픈 곳을 낮게 할 것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저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²⁹

그분의 빛에 대한 특별한 간증

형제, 자매 여러분, 빛과 암흑의 이 마지막 최대의 격전에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 고난을 받을”³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함께 저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³¹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요 또한 생명이라. 참으로 끝없는 빛이라 결코 어두워지지 아니하실 것임”³² 특별한 간증으로 드립니다.

그분은 필멸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베들레헴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침례 요한에 의해 침수로써 침례를 받았으며, 성신이 영으로 비둘기 같이 내려 임하였던 빛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빛이십니다.

그분은 십이사도와 예언자들과 칠십인으로 조직된 고대 교회의 머리 되신 빛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세상의 죄를 짊어진 겻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사슬을 끊고 무덤에 영원한 승리를 거둔, 살과 뼈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부활하신 주님으로, 텅 빈 무덤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던 빛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나타나,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당시에 세우셨던 비로 그 교회를 회복하신 빛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한 예언자와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에게 주시는 계시를 통해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빛이며, 저의 구속주이며, 저



의 구세주입니다-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회복된 복음이 계속해서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이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그분의 교회가 "흑암의 광야로부터 나와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아" 그분의 "영광이 세상을 가득 채게 하옵[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이사야 2:2.
2. 존 테일러, *Deseret News: Semi-Weekly*, 27 Jan. 1880, 1.
3. 미가 4:1.
4. 교리와 성약 1:30.
5. 솔트레이크 올림픽 위원회.
6. 교리와 성약 93:2.
7. 교리와 성약 88:12~13.
8. 모로나이서 7:13.
9. 모로나이서 7:16.
10. 신앙개조 1조: 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11. See Bible Dictionary, "Holy Ghost," 704.
12. 요한복음 14:16~18, 26~27 참조.
13. 요한복음 12:46.
14. 요한복음 8:12.
15. 시편 27:1 참조.
16. 니파이삼서 17:24 참조.
17. 교리와 성약 58:27.
18. 교리와 성약 93:28.
19. 교리와 성약 50: 24.
20. 교리와 성약 4:2.
21. 창세기 4:7.
22. 교리와 성약 93:39.
23. 욥기 12:25.
24. 니파이일서 12:17.
25. 이사야 42:16.
26. 니파이이서 31:13.
27. 교리와 성약 20:37, 77, 79 참조.
28. 마태복음 5:15~16.
29. 니파이삼서 18:32.
30. 디모데후서 2:3.
31. 로마서 13:12.
32. 모사이야서 16:9.
33. 베드로전서 2:9.
34. 교리와 성약 109:73~74.

우리는 신앙으로 생활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내닫게 되지만 신앙으로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키워 나가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일은 없습니다.



오면서 보니 아름다운 4월의 안식일 오전입니다. 화단에 튜립이 영글어 금새라도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의심의 겨울이 가고 희망의 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봄이 올 줄 알았습니다. 예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있었기에 말입니다.

영과 영혼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사노라면 의심과 낙담과 환멸이라는 암울한 계절을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의 빛을 들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 곧 바울

이 설명하셨듯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브리서 11:1)인 신앙을 가지시라고 당부하려 합니다.

개종의 과정에 있는 교회 구도자는 조금 듣습니다. 그는 조금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내용의 경이로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탐구하고, 기꺼이 무릎 꿇고 간구하면, 영이, 어쩌면 너무나 부드럽게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올바른 방향을 그에게 가리켜 줍니다. 그러면 그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조금 보게 됩니다. 인식하든 못하든, 그는 신앙을 통해 안전한 걸음을 몇 발짝 내딛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욱 밝은 전도가 펼쳐집니다.

오래 전, 저는 이 서부 산악 지역을 관통하는 열차를 운영한 철도 회사의 한 역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기차를 탔습니다. 그 당시는 증기 기관차가 움직이던 시대였습니다. 철로 위의 그 괴물 덩어리는 크고 빠르고 위험했습니다. 가끔, 기관사는 어떻게 그 어둠을 뚫고 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은 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짧은 길의 지속적인 연결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관차에는 4~500미터 전방을 환히 비춰 주는 성능 좋은 헤드라이트가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그 부분만 볼 수 있고, 밤이 가고 새벽이 올

때까지 자기 앞의 그 거리만 계속 보고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턱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어두움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3~24)

우리의 영원한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미지의 세계로 내닫게 되지만 신앙으로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키워 나가면 어둠 속에서 해매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분이 당황하지 않도록 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부인이 삶에 뭔가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 회원인 친척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친척이 선교사에게 연락해 보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부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선교사들에게 통명스럽게 대했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가정에 관한 기록을 본 다른 선교사가 동반자와 함께 다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키가 큰 장로였는데 항상 환하게 웃는 선교사였습니다.

그 집의 문을 두드리자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몇 분간만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단도 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기도 하는 방법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는 주기도문은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죠. 하지만 제가 직접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렇게 했습니다. 그런 뒤 선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 건강, 친구, 음식 같은 축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가장 소망하는 바를 표현합니다.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아멘' 하고 끝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빛과 이해력과 신앙의 감촉을 얻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내딛을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인내심을 갖고 말씀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귀기울였으며 희미한 이해력의 빛으로 신앙이 뻗어 갔습니다. 지부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에게 확신을 주고 질문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테니스를 쳤고, 그와 그의 가족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았으며, 그것은 곧 신앙의 큰 도약이었습니다. 지부장이 그에게 소년 네 명의 스카우트 대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곧 다른 책임도 맡게 되었고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할 때마다 그의 삶에서 신앙의 빛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 그는 유능하고 사랑 받는 스테이크장이 되어 있으며, 큰 지혜와 이해력을 가진 지도자이면서, 무엇보다도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그 다음 걸

음을 내딛고 심지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책임이라도 주어진다면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자신의 앞길을 비추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신앙을 갖고 수행해 나가야 할 과제를 부여 받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자매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하신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교에는 등록금이 밀린 학생들은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저는 월급을 받으면 먼저 십일조와 현금을 따로 떼 놓은 뒤 나머지를 등록금과 다른 비용에 배당했습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이 월급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달 예산 내역을 본 뒤 저는 십일조와 등록금 둘 다를 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격월로 실시되는 시험이 바로 그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만일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그 학기는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 앞에 고통스런 결정의 순간이 닥쳤는데, 도무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십일조를 내느냐 아니면 학교에서 인정받는 데 필요한 학점을 따기로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이 고민 때문에 기력이 떨어질 정도였으며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침례 받았을 때 십일조의 법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번민이 사라지고 평안과 결단의 유쾌한 느낌이 자리했습니다. …

“그날 저녁 기도 하면서 저의 우유 부단함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일요일에 성찬식 시작 전에 감독님을 뵈고 기쁜 마음으로 십일조와 헌금을 바쳤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행복하고 평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한 뒤에 그 다음 수요일에 시작되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도무지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는데, 변호사님은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엄한 분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날 무렵 변호사님이 오시더니 그날의 마지막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 뒤 그 분은 가방을 들고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보고 물어 보셨습니다. ‘대학교는 잘 다니죠?’ 저는 깜짝 놀라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한 것이 ‘네 그럽요!’ 라는 한 마디였습니다. 그 분은 저를 찬찬히 보시더니 다시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

“갑자기 비서가 방에 들어와서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오늘부로 언니의 대학 등록금과 책값 전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퇴근 전에 제 자리에 와서 내일 언니한테 얼마를 지급해 줘야 할지 알려 줘요.’

“그녀가 간 뒤에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평평 울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주님의 사랑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치 등록금만 내

면 되는데, 제가 받게 된 금액과 비교하면 제가 일요일에 바친 십일조는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 날 기도하는 동안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그 순간까지 저는 그 경전에 들어 있는 약속의 규모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 계명이 참으로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지상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이 사업을 강건케 하는 원천입니다. 이 교회가 서 있는 곳이 세계 어디이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특정 국가나 민족이나 언어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해당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생활합니다. 우리는 한번에 한결음씩 영원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충실한 성도들에게 하신 주님의 이 약속은 위대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나를 두려워 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 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 하리다.

“또 저들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리니, 곧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미래에 이르기까지 숨겨 온 나의 왕국에 관한 모든 비밀을 알려 주며 …

“참으로 영원히 놀라운 일도 저들이 알게 될 것이요, …

“그리하여 저들의 지혜는 커질 것이요, 이 해력은 하늘에까지 미치리니, 저들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소멸될 것이요, 분별력이 있는 자의 이해력이 없어지리라.

“이는 나의 영으로써 깨닫게 하며 나의 권능으로써 나의 뜻의 비밀 곧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에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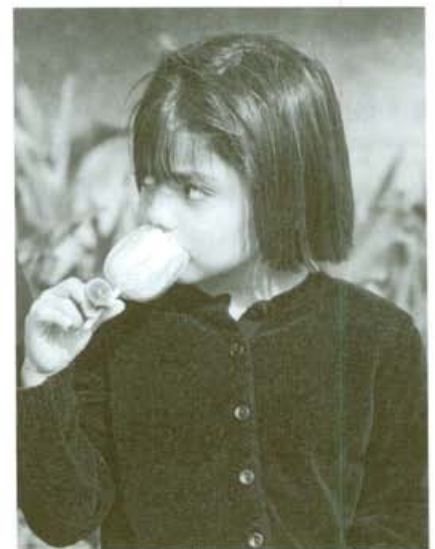
와 본 적도 없는 것들을 저들에게 알려줄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76:5~10)

누가 어떻게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사업이 참으로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신앙으로 생활할 때 그분의 방법들은 얼마나 기이합니까.

구도자의 신앙은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 던져진 한 개의 마르지 않은 장작과도 같습니다. 불꽃으로 인해 따뜻해진 그 장작은 이내 말라 불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덩이 속에서 떨어져 나오면 스스로는 불꽃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결국 그 희미한 불꽃은 이내 꺼져 버립니다. 그러나 불덩이 속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 그 장작은 점차적으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곧 불덩이 속의 일부가 되어 좀 더 마르지 않은 다른 장작을 지킬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넓은 지구상의 백성들이 주님의 모범을 따를 때 오는 더 큰 행복과 주님의 방법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이 신앙의 사업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신앙으로 생활할 때 번영을 허락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



굳도다 그 기초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개인적인 신앙의 기초가 영원한 진리에 굳게 뿌리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각자가 영원한 시야를 갖고 위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20년 전에 성전을 멕시코시티에 건축하려 할 때, 건축사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멕시코시티는 물 위의 분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일부 건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가라앉아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특수한 기초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220개의 대형 강화 콘크리트 파일들을 지하 30m 깊이로 박았습니다. 이러한 파일 위에 보조 강판을 고정시키고 그 위에 건물의 수평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조정될 수 있는 장치를 고정시켰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확실한 기초 위에, 오늘날

성전이 견고하고 굳게 서 있습니다.

견고한 기초는 어떠한 건물이나, 단체, 혹은 개인이라도 견디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살펴봅시다. 그런 후에 어떻게 교회의 굳건한 기초가 교회의 개별적인 회원인 우리 신앙의 기초를 지지하는지 알아봅시다.

I.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

이 교회는 독특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데, 그 기초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암반 위에 난란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거룩한 대의는 1820년에 뉴욕 주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의 토대는 세상이 놓이기 전에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경전에서 되풀이하여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가 형성되기 이전의 영원한 순간들과 관련된 경전의 말씀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관련 성구를 인용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의 텍스트에는 그러한 인용을 일부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시간을 초월한 진리들은 이 교회의 기초를 떠받치는

“전세의 기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 왕국에서의 상속 가능성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구원의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⁷ 이 계획에는 하나님 왕국에서 신성한 상속을 받을 영광스러운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계획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전세의 평의회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의 족쇄를 깨뜨리도록 아버지께 의해 예임되었습니다.⁹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라 … 나로 인하여 나를 내 이름으로 믿는 자마다 모든 인류가 영원토록 생명을 갖게 되리라”¹⁰ 후에,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¹¹고 덧붙이셨습니다.

사탄의 반항

세상이 형성되기 이전에도, 주님은 사탄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¹²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구세주의 신성한 사업에 대적해 왔으며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신권을 위한 예임 및 부여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의 자녀로 존재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신권을 지니도록 예임된, 고귀하고 위대한 자들이 많았습니다.¹³ 아브라함¹⁴, 예레미야¹⁵, 요셉 스미스¹⁶, 기타 다른 사람들¹⁷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피가 이 거룩한 대의 안에서 흘러질 것이 예견되었습니다.¹⁸ 신권 부여의 방식은 “때가 시작될 때 곧 태초부터”¹⁹ 조상으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은사를 받은 자매들 자매들은 특별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자매들은, 주님께 따르면, “나의 계명에 따라 자녀를 낳고 땅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또 창세

이전부터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또 저들이 영원한 세상에서 저들의 승영에 들어가 인간의 영을 남기 위하여 저에게 주어졌음이라. 이로써 나의 아버지의 사업이 계속되며 영광을 누리게 되시니라."¹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돌볼 때, 그녀는 지구가 창조의 목적¹⁵에 부합되도록 돕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약의 자녀들

성약의 자녀들은 전세에서 지정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¹⁶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순종에 근거한 축복

그런 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그러한 축복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기초를 두었습니다.¹⁷

말일에 제시될 성스러운 것들

또 다른 기동은 말일을 위해 예비된 계시와 관련 있습니다. 주님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로 오래 전에 계획하셨습니다.¹⁸ 그러한 것들로는 물론경에 기록된 계시들이 포함되었습니다.¹⁹ 또한 거룩한 성전의

햇볕이 컨퍼런스 센터 서쪽에 위치한 문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의식과 성약들²⁰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창세 이전부터 숨겨온,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일을 나의 교회에 드러내 보이려 함이라."²¹

죽은 자의 구속

주님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이 창세 이전부터 제정되었다는"²²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²³ 사람을 위해서도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세대 간을 결합하는 고리가 마련되었으며, 여러 경륜의 시대와 열쇠들과 권세들과 영광들이 전반적이고,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결합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²⁴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보이진 않지만 확실한 기동들은 세상이 있기 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 시대에 완전히 회복된 영원한 복음을 떠받치고 있습니다.²⁵ 그러한 기반을 가진 이 교회는 복천년이 지난다 해도 그 자리에서²⁶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²⁷

II. 교회의 각 회원들의 기초

진물과 단체들이 기초를 가진 것처럼, 우리 개인들도 신앙을 지지하는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강합니다. 우리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이"²⁸ 동요하거나, 또는 시간을 초월한 복음 기동에 뿌리 박은 채로 견고한 기초 위에 서서 우리 자신을 영적인 보조 강판으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²⁹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은 새로운 개종자들이 교회에서 친구로서 지지되고, 또한 봉사할 수 있는 부름에 지지되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요청하셨습니다.³⁰ 우리는 자주 이러한 찬송가를 부릅니다. "굳도다 그 기초 주님의 성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놓인 터"³¹ 우리가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즐기게 됩니다.³²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로다]. 그러할진대 악마가 세찬

바람을 불어 보내며 ... 그의 우박과 강한 폭풍으로 너희를 휘몰아칠지라도, 너희를 넘어뜨려 비참하고 끝없는 저주의 구렁으로 쓸어 넣지 못할지니, 이는 너희가 분명한 토대 위에 세워졌음이라."³³

견고한 기반조차 인생의 문제들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들은 빛나간 자녀들로 인해 비탄에 잠깁니다. 일부 파탄된 가족들은 다시 결합되지 않습니다. 성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자녀를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대는 "돈으로 인하여 죄인과 악인을 별하지 않습니대."³⁴ 어떤 일들은 전혀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³⁵

그렇지만, 강한 토대 위에서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보다 잘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오나

이것만은 알고 있나이다.

당신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은색 빛으로 빛나게 하셨나이다.

당신은 성처 없는 바람을 보내셔서

자유로이 돌아다니게 하셨나이다.

당신은 밤과 낮 사이에

붉게 채색된 벽을 세우셨나이다.

당신은 꽃들을 피어 나게 하시며

별들을 빛나게 하셨나이다;

파 내려간 광산에

귀한 보석 가득한 광석을 숨기셨나이다;

경이로운 모든 숨겨 가운데 으뜸은

모든 계획 가운데 최고는

인간의 마음 속에

당신을 바라보도록 심은 열망이나이다.³⁶

비록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³⁷



성전과 솔트레이크시티의 시내 건물들이 컨퍼런스 센터 뒤에 솟아 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⁴⁰ 그 굳건한 기초 위에서 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견딜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저는 창조자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갖고 부모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용감하게 맞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벨슨 자매와 제게 소중한 한 가족에게, 최근에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사실상 그 작은 몸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주는 다중적 이상 증세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의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 부모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죠?” 하고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셨

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할 것이며 우리의 능력을 다해 돌볼 것입니다.”⁴¹ 그러한 부모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 부부의 친구 남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동생은 언니에 대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난 시절들을 돌이켜보면, 그녀는 사랑하는 아버지에 의해 그녀의 삶에 놓인 구체적인 기술과 경험을 인식하곤 놀랐습니다. 그것은 당시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지만 이 가슴이 무너지는 남편의 죽음에 잘 대처하도록 그녀를 구체적으로 준비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쓰라린 느낌 대신에, 위안 받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현 상황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획해 오셨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앞 일을 두려워할 수 있겠니?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에 놓인 미지의 시간들을 맞이하는 데 필요

한 모든 것을 오늘 제자리에 놓고 계신다고 확신한다.’”⁴²

한 선교사로부터 있을 수 없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왜 제가 [암]으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더구나 주님을 위해 선교사로 봉사하는 시기에 그래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지만, 저는 지극히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제가 그런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화학 요법에서 오는 부작용에 고통 받거나 또 다른 수술에서 오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보낸 날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서 보낸 날들은 없었습니다. ... 경전, 특히 물문경을 공부하며 제가 느꼈던 위안과 평안의 가슴 벅찬 느낌들을 느꼈던 날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친 날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때로 잠자리에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 마음을 다하여 제 목숨을 보존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렸던 밤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그 장로는 이 놀라운 소식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의사를 보러 갔는데, 그는 제 몸에서 어떠한 병의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⁴² 저는 이처럼 충실한 선교사들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기초가 굳건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기초는 세상이 있기 훨씬 전에 놓여졌습니다. 이 기초는 강하고, 참되고, 영원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의 기초는, 영원한 진리에 견고하게 닮을 내린 경우, 우리 각자가 영원한 관점을 갖고 하나님을 찾도록 해 줍니다.⁴³ 그 신앙은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이생과 앞으로 올 영생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파일의 지름은 18인치이다.
2. John Forbes O'Donnal, *Pioneer in Guatemala* (1997), 288 참조.
3. 니파이일서 10:18; 모사이야서 15:19; 엘마서 12:25, 30; 18:39; 22:13~14; 42:26; 교리와 성약 76:12~13 참조.
4. 구 세계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마태복음 25:34) 고대 미대륙에 살았던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믿는) … 자들은 세상의 기초가 마련된 때로부터 마련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리니”(니파이일서 9:18; 또한 이더서 4:19 참조)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5. 요한복음 17:5, 24; 베드로전서 1:19~20; 모사이야서 4:6~7; 18:13; 니파이삼서 26:3~5; 교리와 성약 93:7~9; 모세서 5:57; 요셉 스미스 역 창세기 5:43; 14:30~31 참조.
6. 이더서 3:14.
7. 에베소서 2:20.
8. 요셉 스미스 역 요한계시록 12:6~8.
9. 엘마서 13:3, 5, 7; 교리와 성약 132:28; 138:55~56; 아브라함서 3:22~23 참조.
10. 아브라함서 3:23 참조.
11. 예레미야 1:4~5.
12. 니파이일서 3:5~15; 교리와 성약 127:2; 138:53~55 참조.
13. 교리와 성약 138:53.
14. 누가복음 11:49~51 참조.
15. 아브라함서 1:3.
16. 교리와 성약 132:63.
17. 교리와 성약 49:16~17 참조.
18. 에베소서 1:4; 또한 5절 참조. 바울은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디모데후서 1:9; 또한 교리와 성약 38:1~4; 아브라함서 3:22~26 참조) 것이라고 가르쳤다. 물론경이 “이스라엘의 잔류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크신 업적을 알려주어 저들이 주의 언약을 알게(물론경 표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9. 교리와 성약 130:20~21; 132:5, 11~12 참조.
20. 마태복음 13:35.
21. 니파이일서 27:10 참조.
22. 교리와 성약 124:40~41.
23. 교리와 성약 124:41.
24. 교리와 성약 124:33.
25. 교리와 성약 128:5.
26. 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27. 사도행전 3:20~21 참조.
28. 다니엘 2:28, 31~44; 교리와 성약 65:2~6; 124:45 참조.
29. 브르스 알 맥קי, *The Millennial Messiah* (1982), 672 참조.
30. 야고보서 1:6.
31. 에베소서 3:17~19; 골로새서 2:6~7 참조.
32.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51 참조; 또한 야곱서 6:7; 모로나이서 6:4 참조.
33. 찬송가 35장; 또한 니파이일서 28:27~30 참조.
34. 야곱서 3:2.
35. 힐라맨서 5:12. 현명한 자는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마태복음 7:24~27 참조).
36. 힐라맨서 7:5.
37. 일이 공평해 보이는지의 여부는 사람의 관점의 한계와 관계가 있다.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이니라”(고린도전서 15:19)고 가르쳤다.
38. Harry Kemp, “God the Architect,” in James Dalton Morrison, ed., *Masterpieces of Religious Verse* (1948), 46~47.
39. 창조자의 전지함과 비교할 때, 예를 들면, 우리는 공룡이나 창조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주께서 오시는 그 날에 주께서 모든 일을 드러내시리니, 곧 지난 날의 일이나,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하게 감추인 일이나, 피조된 이 세상의 일과 그 목적과 종말을 드러내리라. 가장 귀한 일이나, 하늘 위의 일이나, 하늘 아래 일과 세상의 일과 땅 위의 일과 하늘의 일들을 드러내리라.”(교리와 성약 101:32:43; 또한 121:29~32 참조).
40. 니파이일서 11:16~17 참조.
41. Virginia H. Pearce, in *Why I Believe* (2002), 245~46.
42. 개인 서한, 2002년 1월 15일.
43. 우리의 필멸의 준비 기간은 3막의 연극에서 2막과 같다. 2막이 끝나고 막이 잠시 내렸다고 해서 연극이 끝난 것은 아니다. 1막과 3막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2막은 너무 짧거나, 너무 길고, 너무 힘들거나, 너무 혼란스럽다. 3막 전체에 대해 잘 안다면 2막의 중요함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영원한 견해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존 엠 매드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와 온 인류는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분의 종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재물을 많이 갖고 있던 한 부유한 청년이 구세주께 지극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마태복음 19:16)

구세주의 가르침과 “와서 나를 따르라”(마태복음 19:21)는 다정한 권유를 “듣고”, 그 부유한 젊은이는 “재물이 많으므로 ... 근심하며 갔”(마태복음 19:22)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자가 곧 부자니라”(교리와 성약 6:7)는 말씀과, 영생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알

지 못하거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영원한 부”(교리와 성약 38:39) 대신에 “세상의 부”를 귀중히 여기고 선택합니다. 영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간단히 말해서, 영생은 주님의 면전에서 가족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교리와 성약 132:19~20, 23, 55참조)

위대한 중재 기도를 드리시며, 구세주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얻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습니까?

구세주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저는 우리와 온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분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와 그분을 알아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과 역할

에 관해 “살아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선언문보다 더 훌륭한 말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였고 신약의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

“그분은 아버지의 장자였고, 육신을 입은 독생자였으며, 세상의 구속주이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린도전서 15:20)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 고대 미대륙에 살고 있던 그분의 다른 양달(요한복음 10:16)에게도 심역을 베푸셨습니다. ...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오래 전부터 약속된 ‘때가 찬 경륜’의(에베소서 1:10) 시대를 여셨습니다. ...

“... 그분의 신권과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통이 돌이 되셨’(에베소서 2:20)입니다. ...

“그분이 언젠가 지상에 돌아오시어 ...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며 만군의 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 우리는 저마다 그분 앞에 서서 ...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합당하게 성임받은 사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인 임마누엘이시며 ...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3)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와 온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분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승영과 생명의 계속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이를 찾는 자가 적나니, 이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나를 알지도 아니함이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알게 될 것이요...”(교리와 성약 132:22~23)

우리가 진실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위대한 여호와이며, 메시아이며, 세상의 창조자이며, 구세주이며, 세상의 구속주이며, 하나님의 불멸의 아들인]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알게 될 것이요”(교리와 성약 132:23)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와 온 인류는 그분을 받아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분의 종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마태복음 10:40, 교리와 성약 1:38, 68:8~9, 84:36, 112:20 참조)

그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인류가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 또는 율법, 성약, 의식 등을 포함하는 그분의 충만한 복음과 영원한 성약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대회 참석자들이 템플 스퀘어의 북문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

충실한 아들들은 그분의 신권을 받아, 그들의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교리와 성약 84:33~35)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와 온 인류는 모로나이가 권고한 대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야만”(모로나이사 10:32)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분과 같이 “되고자” 힘써 노력해야만 합니다.(“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맬린 에이치 옥스, *리아호나*, 2001년 40~42 참조)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27) “...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그분의 질문에서 사용된 “ought(해야 한다)”란 단어의 의미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다” 또는 “의무나 도덕적 책임을 지거나 무

여 있다”입니다.(누가복음 24:26 참조; 단어 ‘ought,’의 정의는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by Noah Webster, 1828를 참조한다). 고대와 현대의 거룩한 경전들은 그분께서 “나와 같이 되라”(니파이삼서 27:27; 또한 니파이삼서 12:48, 마태복음 6:48, 요한일서 3:2, 모로나이사 7:48 참조)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성약에 의해 그렇게 “되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백성과 만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질 때가”(모사이사서 3:20, 또한 모세서 7:62, 이사야 11:9, 참조) 속히 오며,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알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와 그분을 알고, 나아가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요셉 스미스의 역사가 주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가르침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
찰십인 정원회

개종은 개인적이고 영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개인은 스스로 이러한 원리들을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 스미스의 역사는 이 말일에 이뤄진 교회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 취지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쁨과 확실성의 근원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 상황에서 여러 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릴 적에는 저에게 감동을 주었고, 십대일 때에는 인도이며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젊은 선교사였

을 때 저는 용기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그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 이야기는 이제는 놀라움과 깊은 감사의 느낌으로 계속해서 저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을 받은 이후로, 이 시현은 참된 신자들에게 축복과 신앙의 은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공개적인 초대장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구적인 과제입니다.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닌 분들께 저는 열린 마음과 참된 의도를 가지고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읽어 보실 것을 제의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진실함을 느끼실 것이며 또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회복된 교회의 설립에 대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흥미 진진한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이 무척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다섯 가지 원리에 국한시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리들은 젊은 예언자에게 그랬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리 1: 진리를 알겠다는 진실한 소망을 지니십시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그

분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소망을 키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를 인식한다면, 그것에 맞추어 생활해 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원리 2: 경전 읽기의 중요성을 배우십시오

요셉 스미스는 경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경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요셉 스미스 2서 1:11)

요셉 스미스는 또한 짧은 성역의 기간 동안 다른 중요한 많은 계시들을 받았는데 그 모두가 경전을 읽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해 경전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리 3: 기도의 가치를 배우십시오

어린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암흑과 혼돈 속에 머무르든가 야고보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든가의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1:13)

“나는 생후 처음으로 그러한 일을 계획하였는데 나의 생애를 통하여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으면서도 그때까지 소리를 내어 기도하려고 해 본 일이 한번도 없었던 것입니다.”(요셉 스미스 2서 1:14)

“...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 속의 소망을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1:15)

“나는 야고보의 간증 즉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것이며 꾸짖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사

실을 깨달았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1:26)

완전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물질적 필요사항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자 하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께 그분을 찾고 그분께 구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기도했던 까닭에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교회에 속한 수백만 명의 회원들이 또한 회복의 실재에 관해 증거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그 권고에 따라서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응답 받을 동일한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간증이란 하나님께서 참된 의도를 가지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의도를 갖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원리 4: 명상의 축복을 발견하십시오

요셉 스미스는 자주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분석하고, 비교하며, 경전에서 읽은 내용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 혼란기에 있어서 나의 마음은 진지한 반성과 커다란 불안감에 사로잡혔었습니다. ... 이 종파들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 모두가 그른 것인지, 만약 그들 중에서 옳은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하여 보았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1:8, 10)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 때의 이 글처럼 나의 마음속에 힘있게 임한 일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강한 힘이 나의 가슴을 파고 드는 것 같았습니다. ... 이것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 ...”(요셉 스미스 2서 1:12)

영원한 진리에 관해 명상한다는 것은 거듭해서 생각해 보고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

에 대해 진지하게 명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원리 5: 교회에 가는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진리를 알고자 소망하면서 요셉 스미스는 그 지역에 있던 다양한 종교 단체를 다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경험에 관해서 그가 다른 교회에 관해 받았던 가르침들을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그 분들에게 어느 교파가 옳으며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이 때는 모두가 그러다고 마음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18절)

“... 나는 어느 교파에 속할 의무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더 지시해 주실 때까지 이대로 계속해 나가면 되었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26절)

우리 모두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알게 되고 또 그 참됨에 관해 간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은 영을 느끼고, 그분의 교리를 배우고,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

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가기 위해 구원과 승영의 의식들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라는 진정어린 권유가 주어졌습니다.

개종은 개인적이고 영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개인은 스스로 이러한 원리들을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의심이나 두려움, 또는 신뢰의 부족이 떠르는, 마치 못해 건성으로 노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인하여 우리의 진실함에 따라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참된 의도로 구하는 사람들만이 성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도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신은 보혜사 또는 증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신 덕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과 간증을 갖게 됩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약에 합당하고 충실하다면, 속삭임과 감동, 느낌, 꿈, 경고를 통하여 성신의 지속적인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와 경전은 하나님의 실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 관해 듣고, 이야기하고, 한편으로 그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 관해 말해 줍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확신에 참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분을 따르도록 해 주는 것은 육신의 감각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바로 성신의 영향 아래에서 오는 것임을 이 사실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기본 원리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실천하기를 그칠 때,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예언자들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빛과 인도를 잃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징후는 그들이 스스로를 격리시키거나, 저활동이 되거나, 혹은 심지어 교회와 다투려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징후는 그들이 다음의 다섯 가지 것들 가운데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더 이상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1. 더 이상 그들은 모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
2. 더 이상 그들은 경전을 읽지 않는다.
3. 더 이상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4. 더 이상 그들은 영원한 진리에 관해 명상하지 않는다.
5. 더 이상 그들은 교회에 가지 않는다.

커다란 종교적 혼란의 시기에 15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로 반대와 심지어는 핍박 속에서도 요셉 스미스가 참을성 있고 부지런하게 순종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보여 주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우리의 신앙과 신성한 잠재력에 대한 분명한 이해력을 발전시킬 때까지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배워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원리를 지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영을 통하여 느끼는 인상을 매일 같이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사랑: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진 알 쿡 장로
철심인

우리가 점점 더 그분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육으로 난 인간의 속성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순간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간증하기를, 그 사랑에 대한 개인적 간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이 발산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께 많은 빛을 졌습니다.

사랑의 정의

주님께서는 사랑이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서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로 “영원하고 … 완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정의하기 어렵지만, 그것을 지닌 사람의 삶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나이들이 잘 걷지도 못하는, 석간 신문을 구독하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는 신문 배달하는 손주벌 되는 소년을 매일 보기 위해서입니다. 소년을 할머니 무릎가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 곤궁하여 고기를 잘 살 수 없는 한 어머니는 늘 앙상한 닭갈래 부위만 먹어 식구들을 의아하게 만듭니다.

- 한 남자는 과도한 처벌을 받았지만 어쨌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심없는 마음이 이 사랑의 예들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닌 모든 신성한 속성들은 이로부터 흘러나와 이것으로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⁵ 모든 사람이 사랑의 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만 사랑이 허락됩니다.⁶

하나님의 권세의 근원은 바로 그분의 신성한 속성에서 발견됩니다.⁷ 신권의 권세는 이러한 속성들에 의해 유지됩니다.⁸ 우리는 이러한 속성을 추구하고, 사랑, 특히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추구합니다.⁹

사랑과 평화를 파괴하는 자

그러나 악마는 사랑을 파괴하고 대신 분노와 적개심을 불어넣습니다.¹⁰ 제 친구 윌리엄은 그런 적개심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주님의 잘못으로 보였습니다. 질병, 죽음, 비뚤어진 아이들, 개인적 고통, “응답되지 않은” 기도 등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합니다. 순간 불타오르는 그의 내적인 분노는 하나님과 동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불신앙과 고집, 교만, 분쟁, 희망과 사랑과 방향의 상실감이 분출되었습니다. 그는 비참했습니다.

이 평화의 파괴자들¹¹은 윌리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에는 더욱 그랬고, 지금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사랑 대신 분노를 돌려주었습니다. 가끔 우리도 그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인색한 사랑을 드리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¹²

목적물 갖고 고난을 겪음-사랑은 힘을 부여함

그런데, 그리스도와 같은 저의 친구 베티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윌리엄과 마찬가지로 많은 역경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구속주의 이름으로 환난을 겪었고¹³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¹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앙과 사랑, 그리고 어떤 일이 닥쳐와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사람들을 미리 용서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녀는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친절하고, 온화하며 오래 참았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하나님이 그녀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받고 전달함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평화의 끈인 사랑의 끈으로 몸을 [더 잘] 둘러”쌀 수 있을까요?¹⁵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그분의 사랑을 인식함.** 이 은사를 위해 “마음을 기울여 간구하”시기¹⁶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성신으로부터 오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신은 여러분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¹⁷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서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능력은 이 은사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

다. 그분은 완전히 익명으로 베푸시는 분이 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친밀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그런 놀라운 은사들을 부여하시므로 그 손길과 은사들을 발견하려면 평생 동안 열심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잠시 다음의 훌륭한 은사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창조의 영광¹⁸, 지구, 하늘, 여러분이 느끼는 사랑과 기쁨, 지비의 응답, 용서, 기도에 대한 셀 수 없는 응답,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은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은사로서 완전한 사랑을 지닌 아들의 속죄,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¹⁹

2. **겸손하게 그분의 사랑을 받음.** 그 선물들에 대해,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 감사하십시오.²⁰ 진정한 감사는 겸손하게 보고, 느끼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²¹ 감사는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손길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²²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신뢰 위에 쌓여진 친숙하고 성스러운 관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시며²³ 연민과 사랑으로 늘 응답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십시오.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 은사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느껴야 합니다.²⁴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애 동안 동기를 부여해 주는 신성한 것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분노를 포함한 세속적인 모든 것을 생활에서 걷어 내십시오.²⁵ 계속해서 죄 사유함을²⁶ 받는다 면 여러분은 모든 걱정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²⁷

3. **그분의 사랑을 전함.** 주님의 반응은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도 그와 같이 진실한 사랑의 느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은혜는 은혜로, 선은 선으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더욱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께 돌려 드린 은혜에 대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²⁸ 훌륭하게 정제된 성품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그분과 같을 것입니다.²⁹

사람이 처음으로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느낌을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전하면, 영은 반드시 그러한 속성을 더욱 확대시킵니다. 다른 모든 신성한 성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의로운 생각을 품으면 영은 그 느낌들을 더욱 증가시키는 듯합니다. 자신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³⁰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랑 받으려면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³¹

사랑의 은사가 맺는 열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증인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우리 개개인에 대한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사를 영화롭게 하면 새롭고 순수한 마음과 커 가는 사랑, 그리고 평화를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점점 더 그분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육으로

난 인간의 속성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³²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면 그분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³³

여러분 앞에 있는 주님의 예언자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총관리 역원들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영원토록 주님께 돌리³⁴게 되고 "독생자의 기쁨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 [이] 가볍게"³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모로나이서 7:47.
2. 니파이일서 11:22~23; 8:10~12 참조.
3. 니파이일서 15:36.
4. 모로나이서 8:17.
5.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실천한다면 수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미덕, 태도, 또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용서, 오래 참음, 친절함, 그리고 인내에 선행하는 자비 또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검 영, *Deseret News*, 1860년 1월 11일, 353).
6. 모로나이서 7:48 참조. 사랑과 자비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주님께서서는 교리와 성약 4편 5절에서와 같이 여러 번 사랑과 자비를 각각 언급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자비는 사랑에 희생이 포함된 것 즉 원숙한 사랑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자비와 사랑의 관계는 신앙이 믿음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았다. 신앙과 자비 모두 행위, 일 그리고 희생을 요한다. 자비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 및 다른 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포함한다.
7. 교리와 성약84:19~24 참조.
8. 교리와 성약121:41~46 참조.
9.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찬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 받는 축복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 세계와 온 인류에게 축복이 내려지길 열망합니다." (요셉 스미스, *교회 정사*, 4:227).
10. 실제적 고통이 인생에서 생길 때 사탄은 언제나 분노로 마음을 불쾌하게 하지만 주님은 지속적으로 사랑을 발산하신다. 동일한 고통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강박하여졌으나, 한편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엘마서 62:41) 고난에 대응하는 이 얼마나 훌륭한 방법인가!
11. 인간의 사랑과 평화에 대한 파괴를 일삼는 일부 파괴자들은 두려움, 완벽주의, 시기, 허울, 의심, 분노, 질투, 불의, 제어, 불신, 안달, 비판, 마음을 상하게 함, 자만, 논쟁, 투덜거림, 명예를

구함, 경쟁, 거짓말 들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것이 아닌 육욕의 인간들의 것들이다.

12. 요한1서 4:19 참조.
13. 교리와 성약138:13 참조. 나의 친구는 그 고통이 그녀 자신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알았다(아브라함서 3:24~25; 교리와 성약98:13~14 참조);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을 배움(니파이이서 2:18 참조); 시련 후에 축복이 마음을 배움(교리와 성약 58:2~4 참조); 순종, 인내 및 신앙을 배움(교리와 성약105:6; 모사이야서 23:21; 로마서 5:3~5 참조); 죄를 용서함(히라맨서 15:3; 교리와 성약 132:50, 60; 95:1 참조).
14. 베드로후서 1:1~8 참조.
15. 교리와 성약 88:125.
16. 모로나이서 7:48.
17. 모로나이서 8:25~26; 로마서5:5; 니파이이서 26:13 참조.
18. 모세서 6:63; 엘마서 30:44 참조.
19. 요한1서 4:8.
20. 교리와 성약 88:33 참조.
21. 엘마서 5:26 참조.
22. 엘마서 26:16; 모로나이서10:3 참조.
23. 교리와 성약 133:52~53 참조.
24. 엘마서 34:38 참조.
25. 요한1서 2:15~17 참조.
26. 모사이야서 4:11~12 참조.
27. 엘마서 38:12 참조.
28. 교리와 성약 93:12~13, 20 참조.
29. 요한1서 3:1~3 참조.
30. 요한복음 13:34; 교리와 성약 112:11 참조.
31. "자만을 주의하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서로의 선을 위해 행하십시오." (요셉 스미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76), 155쪽(영문)).
32. 고린도전서2:16; 고린도후서10:5 참조.
33. "가장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진정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여러분을 결정할 것이며 주로 앞으로 행할 여러분의 행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이상으로 선택함으로써 우리 내면에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고, 그분과 교제를 갖고 싶어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회 보고*, 1951년 4월, 93쪽, 98쪽(영문)). 여러분이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그분에 관해 생각한다면, 그분과 같이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그분과 같이 행동한다면, 진정으로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34. 엘마서 37:36.
35. 엘마서 33:23.

주님의 사랑을 느낌

보니 디 파킨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만일 제가 이 교회의 모든 자매들에게 일어난 일 한가지를 안다면, 그것은 아마 그들이 모두 다 그들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그는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입니다. 저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며느리들은 아들들이 보다 나은 사람들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밤 이 부름에 대해 말하려고 한 아들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녀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렛과 앤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었다.” 그러자 브렛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교회 전체의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셨다구요?” 여러분의 어린이들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브렛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느껴왔던 것을 말했습니다.

어제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벨기에에 사는 아들, 데이비드와 며느리, 제니퍼에게서



팩스를 한 장 받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냉장고에 이런 성구를 붙여 두셨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저는 수도 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닫았죠, 어머니랑 아버지는 정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에게 조언해 주고, 사랑해 주고, 가르쳐 주고, 믿어 준 교회의 여성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영국 런던 사우스 선교부에서 봉

형제, 자매 여러분, 다음과 같은 영언이 있습니다. “성장하고자 한다면 일상적인 자신을 넘어서게 하는 기회를 환영하십시오.” 저는 제가 성장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스무트 자매와 듀 자매와 젠슨 자매가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 모두를 위해 행한 위대한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보좌인 캐티와 애니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그들의 마음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신앙의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와 아버지께 제게 주신 가르침과 사랑과 일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일해야 할지 압니다. 남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짐은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저는 짐을 사랑하며 그의 지지에 감사합니



사하는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선함과, 성약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고 그 위대한 나라의 한 부분이 되도록 도와 준 영국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제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압니다. 여러분에게 제 사랑과 지지를 드릴 것을 굳게 약속하며, 제가 배울 동안 제게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의 젊은 독신 여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호부조회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그곳에 필요하며,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훌륭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 그들을 초청합니다.

월리스 스테트는 물론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여성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교회의 여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 교회 모든 여성들을 위해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들 모두가 일상 생활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 보았으며, 그 사랑에 대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느껴 온 평안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간증 드립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용서를 느꼈습니다. 선교부를 떠나던 한 자매 선교사가 생각납니다.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나는 간증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게 하기 위해,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선교 사업을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왔을 때보다 더 많은 빛을 지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의 힘에 대해 간증하며, 그분과 그분의 사랑과 저를 신뢰해 준 모든 예언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봉사할 기회

제럴드 앤 렌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34년간 교회 교육 기구에서 일해 오다가, 3년 전에 저는 아내와 함께 은퇴하고 색다른 인생의 길을 개척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좀 더 가까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건대 멋진 몇 가지 사업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는 정말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칠십인 명예 회원인 에프 엔 지오 부쉬 장로 내외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게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어느 날 부쉬 장로가 대신권 정원회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엘마서에 나오는 한 성구를 인용했

는데 엘마가 천사의 목소리를 갖기를 열망하던 그 부분입니다. 엘마는 곧바로 그러한 느낌들을 회개하고, 4 구절을 통해 놀라운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소망을 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래야 할지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엘마서 29:1~5 참조)

그 날 집으로 돌아가서, 제 소망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꼈던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 순간 그러한 소망들이 제 자신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날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주님께서 아시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참으로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말하기는 쉽고 행동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맥스웰 장로님이 어제 말씀하셨듯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 드릴 때만 그분의 정화와 성결과 완전케 하는 과정은 가속화 될 수 있습니다. (힐라멘 3:35 참조) 그 때로부터 삼년 사이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옮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부름이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헝클리 대관장님이 저희 내외를 부른 후에, 신명기를 읽다가 12장에서 저에게 아주 많은 의미를 갖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절은 제명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해라”(신명기 12:18) 우리는 이 새로운 기회를 맞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길로 들어선 후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온전히 사랑하시는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16세가 되고, 아직 많은 것을 알만큼 현명하지 못할 때, 영은 제 마음을 감동케 하며 결혼할 여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주님께서 제 영원한 배필이 될 여성을 저를 위해 찾아 주시기를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기도들이 응답되었

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함께 현재 우리는 모든 것들은 그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심지어 우리가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에라도,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는 무한하고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언제나 사랑해 왔지만, 거의 10년간을 그의 생애와 저술, 가르침, 그를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연구를 하며 보내는 특권을 가졌던 까닭에, 그분이야말로 예언자 중의 예언자이며, 이 말일의 위대한 경륜의 시대에 회복을 가져오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가 회복한 그러한 열쇠들이 오늘날까지 중단없이 계승되었으며 현재 우리의 살아계신 예언자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고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봉사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낮아졌으며 크게 존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아래: 컨퍼런스 센터 로비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윌리엄 알 워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저에게 명하시는 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도 되겠나이다.” 오늘 그러한 헌신을 다시 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를 지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과 그의 보좌들인 몬슨 부대관장, 파우스트 부대관장, 패커 회장, 그리고 모든 십이사도들을 예언자요, 선지자요,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저는 참으로 그들이 예언자이며, 선지자이며, 계시자임을 증거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자신들의 헌신을 존중하고 종교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전세계에 있는 훌륭한, 충실한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임을 증거합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분이 제가 봉사하게 하시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말들의 진실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겸허함과 큰 감사를 드립니다. 캐나다, 앨버타, 레이몬드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저는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찬송가 146장 참조)이란 찬송가를 부를 때 참 좋았습니다. 성찬식이나 주일 학교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노랫말이 제 마음과 영혼에 타오르는 확신으로 다가와, 저는 언제나 주님께서 제가 가기를 원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가며, 주님께서 제가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기를 원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제



대회 참석자들이 컨퍼런스 센터의 입구 밖에 모여 있다.

왕국의 평화로운 것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평안, 곧 참된 평안, 여러분이 온 영혼으로 참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평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참으로 훌륭하게 봉사하시다 최근에 해임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및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또 한 번의 연차 대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간증이 넘친 이 훌륭한 며칠 동안 저는 활력이 생기고 마음이 교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같은 느낌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대회 기간 중에 느끼는 것들은 구세주의 초기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 이리저리 다니며 그분이 가르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접했을 때 경험했던 느낌과 비슷할 것입니다.

많은 면에서 그 당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실망에 찬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고역에 시달리며 그들은 자유와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와서 그들을 육체적 억압과 정치적 압제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복음에 함축되어 있는 영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행복과 평화가 있는 구세주의 복음에 응했습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던 초기의 어느 날, 수많은 군중이 갈릴리 바다까지 그분을 따라 와서는 바닷가에 서신 그분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사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마가복음 4:1~2)

그 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이 가르쳐졌습니다. 하루 종일 가르침과 지시를 하시고 난 후,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다른 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날 밤 그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

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사도들이 바람과 비, 바다와 같은 자연의 요소들이 주님의 조용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거룩한 사도 직분에 부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분을 알았으며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일터와 가족들을 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은 그분이 가르치는 놀라운 것들을 들었으며, 그분이 행하는 강력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들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분명 그러한 놀라움이 그 얼굴 표정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했습니다)”(마가복음 4:37~41)

소란스럽고 때로는 두려운 시대에, 구세주께서 약속하신 무한하고 영원한 평안은 아주 오래 전에 폭풍이 일던 그 날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몰아치던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그분의 능력이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특별한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분이 성역을 베포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처럼, 우리 가운데에는 구세주께서 지닌 놀라운 힘의 표적으로서 물질적인 평안과 번영을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평안이 신앙 안에서 태어나서, 간증에 의해 그 닻을 내리고, 사랑으로 양육되고, 지속적인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적인 평안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음과 영혼 속에 울려 퍼지는 영의 평안입니다. 진정 이러한 내적 평안을 알고 경험한다면, 세상적인 부조화나 불일치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관심을 두는 한 모든 것이 잘 될 것임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안일과 인기, 명성, 나아가 번영이 있을 수는 있으나 평화는 없습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엘머서 41:10) 아닙니다. 계시된 진리와 조화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평안을 느낄 수 없습니다. 비열한 마음과 다루는 정신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천박함과 난잡함, 그리고 자유 방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약물이나 알코올, 또는 음란물에 대한 중독에도 평안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것에도 평안은 없습니다. 학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겸손한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완전한 회개를 통해 용서를 구할 때까지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혼란에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저는 모든 사람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립보서 4:7)을 갈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위한 그 평안은 오직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모로나이사서 7:16) 그리스도의 빛을 따를 때 우리에게 오며, 그 빛은 우리를 이끌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왕국의 평화로운 것을”(교리와 성약 36:2) 알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야고보서 3:18)를 맛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 이웃과 지역 사회에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하고 다툼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일에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경전의 역사 전반에 걸쳐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시편 29:11)라고 적었습니다. 이사야는 구세주를 “평강의 왕”(이사야 9:6)으로 지칭했습니다. 니파이는 “의의 아들이 저들에게 나타나 저들의 상한 곳을 아물게 하시고, ... 저와 더불어

어 저들이 평화를 누리게”(니파이서 26:9) 되는 날이 그의 후손들에게 임할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영광스럽지만 두려운 속죄의 과정을 시작하시기 몇 시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도들에게 이처럼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한복음 14:27)

그분께서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세상이 인정하는 종류의 평화, 곧 다툼과 혼란이 없는 안전과 무사함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역사 기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초대 사도들은 남은 생애 동안 내내 시련과 박해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은 평안에 대한 약속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였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평안, 곧 참된 평안, 여러분이 온 영혼으로 참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평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옵니다. 그 소중한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큰 평화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잠자울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교리와 성약 59:23)

때로 이 평안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활에 가져오는 변화를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래 전에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었을 때, 우리 선교사들

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던 한 가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으며, 그들의 외모에는 일상적 위생 및 청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로, 우리가 언제나 선교사들이 찾게 되기를 간구하는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주는 평안을 느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벨라드 자매와 저는 그 침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가족이 도착했을 때 저는 감독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너저분하고, 불결했고, 다소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감독님은 한동안 다른 곳에 갔다 온 터라 와드의 가장 새로운 회원들이들을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게 말해도 이 첫 번째 대면에서 받은 느낌은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독은 그들과 즐겁게 인사를 나누었으나, 그들이 탄 곳으로 가자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힘을 복돋아 드리고자 이 훌륭한 감독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 감독님께 제가 말했습니다. “감독님, 멋진 일이 아닙니까? 저 분들을 훌륭한 말일성도로 만들어 봅시다!”

감독님이 저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분이 제 말에 동감하여 웃으셨는지 아니면 저를 의욕이 넘치는 또 한 명의 선교사라고 생각하여 웃으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침례식이 진행되었고, 그 가족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그 가족이 새로운 교회 회원으로 모임에 왔을 때 환영 받을지 확인하기 위해 그 와드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가족이 성찬식을 위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단상에서 감독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깨끗하고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품이 넉넉하지 않아 맨 위 단추를 잠그지 못했으며, 제 기억에 우리 선교부 장로들 가운데 한 명이 매고 있던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행복과 평안으로 빛났습니다. 어머니와 딸들은 전날의 모습에서 완전히 탈바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드레스는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깨끗하고 멋졌습니다. 그들 또한 그 특별한 복음의 광채를 보였습니다. 어린 소년들은 하얀 셔츠를 입었는데 그 크기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커서 소매를 겹겹이 접어 올렸습니다. 그들도 넥타이를 맺는데 거의 무릎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합당한 복장으로 성찬식에 올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그들의 흰 셔츠와 넥타이를 이 작은 소년들에게 입힌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과 함께 앉았으며, 문자 그대로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서 빛났습니다. 엘마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모습을 네 몸에”(엘마서 5:14) 지니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저는 다시 감독님에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보고 계시죠, 감독님? 저 분들을

훌륭한 말일성도로 만들어 봅시다!”

복음이 그 가족들의 마음과 삶에 충분히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더욱더 중요한 영적인 변화에 견주어 본다면, 물론 간밤에 있었던 눈에 보이는 변화는 그저 표면적인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지도와 그 뒤를 이어 훌륭한 감독님과 와드 회원들의 우정 증진을 통해, 이 가족은 영적 어둠에서 빠져 나와 복음의 빛과 진리로 들어갔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 가족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오는 평안에 의해 따스함을 느끼고, 새롭게 되고, 활력을 얻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 회복된 복음 진리의 빛이 이 가족에게 성전에 가는 길을 보여 주기 시작했으며 일년 뒤 그들은 성전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겠습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이사야 54:13)

일단 하나님의 평안이란 감미로운 열매를 맛보고 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자연스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씨의 성 프란시스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

하는 이”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동물을 포함하여 주위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봉사를 통해 찾은 평안이 그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 안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여, 저를 평안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비움나니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게 하시며,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는 가운데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 용서 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니다.
(Prayer of St. Francis, St. Anthony Messenger Press, 2002)

헝클리 대관장이 회중들에게 지팡이로 인사하는 것을 대관장단 제 1 보좌인 몬슨 부대관장이 바라보고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하늘의 북극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우리 불멸의 삶의 님으로 굳건히 서 계십니다.

여러 번에 걸쳐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이”가 될 것을 강조 하시면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마태복음 5:9)이라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러한 개념은 경전의 모든 곳에 짜여 들어가, 비유와 선언을 통해 평안이라는 걸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 “니를 고발하는 자와 ... 사화하라”(마태복음 5:25)
-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마태복음 5:44)
- “비판하지 말라”(마태복음 7:1)
-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9)
- “정죄하지 말라”(누가복음 6:37)
- “용서하라”(누가복음 6:37)
-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이상의 구절들은 하나님의 평안이 감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는 경전 상의 가르침 가운데 몇 가지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과, 지역 사회의 주민들과 아낌없이 나눠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 회원 뿐만이 아니라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과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된 복음의 충만함에서 오는 감미로움과 평안을 직접 맛보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으나, 분명히 그들은 우리의 생활에서 그것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평안을 느낌으로써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평안의 메시지는 우리 모범을 통해 자라고 펼쳐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할 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린도후서 13:11)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는 것과, 신앙과 신뢰로 그분을 따름으로써 이 대회 기간 동안에 가르쳐진 대로 복음이 주는 감미로운 내적 평안을 모든 사람이 찾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 또한 이 거대하고 훌륭한 여성 조직에서 충실하게 봉사해 주신 스무트 자매님, 켄슨 자매님, 듀 자매님, 그리고 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4,900,000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가진 조직입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삶에 것처럼 놀라운 유익을 주는 그러한 조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님들, 그 동안 수고해 주시 것에 감사드립니다. 파킨 자매님과 보좌분들, 그리고 앞으로 임원으로 선택하실 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 대회를 마칩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훌륭한 것들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풍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모임이 대부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제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다음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낮도 다간 이 저녁에
황혼의 그림자
어둔 밤 밀려 오나니
함께 거합소서
제 집에 유하옵소서
내 반가운 손님
주여 이 밤 나와 함께
머물어 줍소서”(찬송가, 72장)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마음의 느낌을 너무나 잘 정리해 주는 노래 같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 머무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날이 어떨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위대한 성취의 날이 올 테지만, 어떤 이에게는 낙담의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건강과 은혜로운 삶일지 모르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질병과 많은 슬픔의 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압니다. 하늘의 북극성처럼, 미래가 아무리 어둡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우리 불멸의 삶의 님으로 굳건히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 곧 힘ियो, 위안ियो, 신앙의 중심이십니다.



겔 때나 흐릴 때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분은 늘 그곳에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미소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예배의 핵심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장자이며, 육신을 입은 독생자로서 하늘 궁전을 떠나 가장 미천한 환경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의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마태복음 8:20)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사도행전 10:38)

그분은 기적의 주인공이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사랑을 가져오셨음에도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이사야 53:3 참조)

우리는 견줄 데 없는 그분의 삶을 돌아보며 예언자 이사야의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 53:4~5)

천국 전쟁이 있었을 때, 아침의 아들 루

시퍼가 한 가지 계획을 제안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셨던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해주는 더 좋은 계획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분의 장자요, 우리의 맏형이신 주님이 그 계획의 열쇠였습니다. 인간은 선택 의지를 갖게 되고 그 의지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서 죄짓고 비틀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으셨으며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 그분은 인류의 위대한 구속주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 비할 데 없는 은사, 곧 그 구속의 은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경의에 찬 사랑으로 고개 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몇 가지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지식은 고대 전통, 곧 한정적인 이해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거의 끝없이 행해 온 인간들의 토론 결과로 나온 강령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지식은 이 경륜의 시대에 위대하신 우주의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면전에서 본 한 예언자의 간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분들

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 시현에 대해 공개적으로 솔직하고 당당하게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정도로 영광스러우나 그 지식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명료한 전능자와 세상의 구속주에 관한 시현이었습니다. 그 간증은 바로 다음과 같은 현대의 계시라는 깊은 도양에 뿌리 내린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니파이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 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니파이서서 25:26)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작별을 고하면서 우리의 확고하고 굳건한 간증을 다시 드립니다. 각자 확고하고 분명한 지식으로 간증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분은 우주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대화하는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독생자요 세상의 구속주로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바치셨으며 그분의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압니다. 저는 그분들이 개체로서 서로 분리되고 구별되나 모습과 본질과 목적은 같으신 분들을 압니다. 저는 이 사업이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전능자의 사업임을 압니다.(모세서 1:39 참조) 저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 곧 이 진리들이 있게 한 이 경륜의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였음을 압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리하고 이끄시는 교회로서, 그분의 기록한 이름을 지니고 있음을 압니다.

이제 저의 사랑과 축복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엄숙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거룩한 곳에 섬

새론 지 라슨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이 혼자 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좋은 환경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곳은 혼자 있던 여러 사람 가운데 있던 성신이 함께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할 때,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란 우리가 안전과 사랑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하늘의 집이 그랬습니다. 거룩한 곳에 서고 함께 잘 지낸다면 우리가 떠나온 집, 때로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집에서 가졌던 느낌과 기억들을 되살려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되고 2년 반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는 요셉 스미스에게 사약함 때문에 오게 될 전쟁과 기근과 역병에 대해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교리와 성약 87:8)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거의 압도적인 세상의 소요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고 우리를 도와 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4:88 참조) 위대한 예언자 모로나이는 사약함과 그들 앞에 놓인 무엇이든 죽이려 하는 레이맨인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로나이를 제외한 모든 니파이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거의 20년을 혼자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 외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문경 마지막 몇 장에 나오는 그의 아름다운 간증과 조인은 천사들과 성신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신은 외로움이나 고립이나 배척 당하는 통렬한 아픈 느낌을 없애고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보혜사라고 불립니다. 그분은 참으로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큰 외로움을 느끼는 때는 의롭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심지어 그러한 친구들 가운데에서, 홀로 서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우려 간다 하더라도 안전하지 못한 곳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곳에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결코 거하지 않는 장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를 피하십시오. 저지시켜야 할 호기심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하면 확실치 않거나 불안한 느낌들이 들 때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헤더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학생들과 함께 갖는 파티에 초대되었던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온통 심 안을 뒤흔드는 커다란 음악 소리가 그녀의 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어두운 방 안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티에서 저는 그들과 저의 표준 사이에서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들이 아무리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들리는 말소리나 영화 장면들이 제 생각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데리러 오시기를 기다리며 창문을 통해 어두운 밤을 내다보는데, 그 언덕 위에 성전이 등대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빛은 주님께서 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 날은 엄마 아빠가 카드스톤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청녀 여러분과 같은 심대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시던 할머니님이 외출 중이셨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집을 봐야 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아빠는 저를 안고 "새론, 함께 잘 지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나 혼자 남아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 바로 그때 저는 아빠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혼자 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 확신시켜 주는 것 같았습니다.(허락을 받아 인용하되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음)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도와 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실천을 통해서 얻게 되는 후천적 덕성입니다.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에 순종하는 일을 실천하십시오. 도덕적으로 깨끗하도록 하십시오. 성스러운 것을 경건하게 대하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그분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분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60:7 참조)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과 용서와 평화로 감싸게 하십시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은 주님의 영이 가득한 자신만의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옷이 얼마나 짧아도 되는지, 끈이 찢어져도 되는지, 노출되어도 되는지, 내비쳐도 되는지 묻는 대신에, 여러분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성신이 나와 함께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보이고 행동해야 하는가?"

정반대의 것들이 끊임없이 막아서며, 훨씬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인기있어 보이는 것에 대한 욕망을 다스려 선과 아름다움을 원하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힘겨운 일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겠

현수막들이 본부 청년 총회를 위해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하고 있는 청년들을 반기고 있다.



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러한 침례 성약과 주님의 영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축복은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여러분은 유혹에 당면하여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딸이 성찬식 시간에 세 명의 어린 아들들을 조용하게 하려고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앉은 줄로 거룩한 상징물인 빵이 전달될 때, 세 살짜리 제이크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우린 간식을 가져왔으니까, 저 빵이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세 살짜리 아이에게 그것은 그저 빵 조각에 불과했으며 그는 자신이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갈구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행복에 있어 필수적인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몰과 별이 가득한 하늘, 이슬에 젖은 장미, 새끼 고양이, 이 모든 것은 다시 한 번 하나님의 것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혼자 있든, 군중 속에 있든, 타인들과 함께 하든, 친구들과 함께 하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거룩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고로 가는 길은 위험하고 무시무시했습니다. 수풀이나 나무 뒤에 몸을 숨긴 도둑들은 여행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친절하고 용기 있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 위험한 곳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평범한 곳에 거룩함을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로에 지친 어머니가 쉴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과 놀아 준다면, 오빠의 차례이지만 오빠를 위해 설거지를 해준다면, 연로한 사람들을 위해 집안을 치워 준다면, 이러한 것들이 비이기심과 희생과 거룩함의 느낌을 가져다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영이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청년, 청년들이 그들의 언어로 부르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듣기 전까지 시베리아에 있는 움스크라는 러시아 마을은 세계 그저 춥고 삭막한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 노

래를 듣는 순간 갑자기 온 세상이, 적어도 우리의 세상이,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정규적으로 드리는 사려 깊은 기도과 경전 공부를 통해 여러분은 지식과 인도와 안전의 보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학교에 가거나 옷을 사거나 인터넷을 이용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곳에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서도록 해줄 것입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결하거나 통제되지 않은 생각을 정화하는 좋은 방법은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리아호나, 2000년 7월 호, 53쪽)

거룩함은 조용하고 평온하여,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쉽게 간과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관해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다른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헨델의 "메시아"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각기 달랐지만, 우리는 모두 자신의 구세주이신 같은 메시아를 찬양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 오라토리오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한 연습 시간에 영은 제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증을 노래하고 있다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사야 53:4) 저는 그분이 저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은 속삭임처럼 들렸고 저는 그 순간 홀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을 느꼈고 그분께서 십대의 마음속에 있는 저의 질고와 슬픔을 거두어 주셨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순종한다면 주님은 남은 여생을 저와 함께 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그러한 축복과 위안과 완전한 사랑을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세상적인
 멋이나 인기의 희생이 요구될지도 모릅니다.
 겸손과 용서 혹은 완전한 회개가 요구될지도
 모릅니다.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이 요구됩
 니다. (시편 24:3~4 참조) 모의를 피하는 사
 람들과 (교리와 성약 89:4 참조) 미디어의
 천박한 피임과 사악함, 의도에 상관없이 거룩
 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진리와 의를 위
 해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하십
 시오. 핑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서며 또 선
 하고 고귀한 성품의 빛이 [여러분의] 생활에
 서 퍼져 나갈 수 있게 하십시오.” (“새로운
 시작,”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07쪽)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과 함께
 견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생애
 동안,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동반자가 되도록
 하여, 여러분이 고대하는 그 집, 무엇보다도
 거룩한 그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도록 하
 십시오.

마치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로
 찬송가의 가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룩함도 더욱
 노력함도 더욱
 인내심도 더욱
 쇠의 비봉과
 주님 생각 더욱
 신앙도 더욱
 기쁨 소망 더욱
 허락함소서 (찬송가, 60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가정과 가족을 강화함

캐롤 비 토마스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세 가지 원리에는 양육, 희생, 기도가
 있습니다.



2002년 동계 올림픽이 끝나
 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집으로 금메달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
 다. 수년 동안 준비했던 매우 많은 운동 선수
 들이, 경쟁하여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의 청년 여러분, 여러
 분 역시 메달을 따기 위해 준비하고 경쟁하
 고 있으며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영은 뜨겁
 게 해줍니다.

청년 프로그램은 여러분 개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놀라운 훈련지를 제
 공합니다. 또한 청년 주제는 우리가 경쟁하
 는 동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
 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팀에 있으며
 그분은 우리가 금메달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늘 그곳에 계시는 것

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만이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는
 많은 재능과 은사를 축복 받았습니다. 가장
 의미 깊은 은사 중 하나는 [여러분의] 가정
 과 가족을 강화시키는 능력이며, 이 구절은
 청년 주제에 새로이 더해졌습니다. 이 말들
 을 기억하십니까? 왕국의 소녀와 여성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의 하나는 가족을 사랑
 하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
 며 여러분들이 현재의 가족을 강화시키고,
 미래의 가족을 위해 준비하고자 더 큰 소망
 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전에는 우리
 에게 어떻게 가족을 강화시키는지 알려 주는
 방법들이 가득합니다. 구세주보다 위대한 교
 사는 없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를 때, 여러분은 가족의 생
 활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
 정과 가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세 가지 원
 리인 양육, 희생,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 양육
- 희생
- 기도

양육

어린아이와 놀거나 갓 태어난 아기를 팔
 에 안으면서 즐거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성으로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
 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천부의 능력을 갖고



3월 30일 청년들이 청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컨퍼런스 센터 입구에 도착하고 있다.

태어났습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서로를 지지하고 북돋아 주며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구세주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우 여러 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를 모으려 하였더냐”(니파이삼서10:4)

여러분이 가족을 함께 모을 때, 가정에 화합의 영을 가져오기 위해 매우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께안고 그분들이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드렸던 마지막이 언제였습니까? 부모들은 대부분의 양육을 담당하지만 그들에게도 양육이 필요합니다.

여성으로서 우리는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우리의 작은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젊은 엄마가 두 살짜리 아기에게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 아이는 울고 있었는데 엄마는 아기가 될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아라, 아기가야. 말을 해봐. 뭐가 불편한지 말해 보렴.” 그녀가 이 두 살짜리 아기에게 매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자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 젊은 엄마는 어떻게 양육하

는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세주를 세상에 소개하셨을 때 그분은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십시오. 훌륭한 양육의 예를 보이셨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는지라. 이는 거친 음성도 아니요 큰 소리도 아니요 비록 적은 음성이었으나 온 몸을 속속들이 파고 드는지라”(니파이삼서 11:3)

이것은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말하는 방식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목소리를 내지 마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희생

두 번째 원리는 희생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희생하는 것을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선행들에 깊이 감명 받습니다.

- 어머니가 일하셔야 할 때, 여러분은 방과 후에 동생들을 돌봅니다. 저녁상 차리는 일을 돕고 아기들을 재웁니다.
- 부적절한 영화를 보지 않는 여러분은 파티에 가지 않고 주말 동안 집에 머물니다.
- 여러분 중 수천 명이 새벽 5시에 일어

나서, 학교에 가기 전 새벽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구세주는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아십니다. 희생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하십니다. 구세주는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부활한 후, 그분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은 그분이 어떻게 희생하셨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였느니라.”(니파이삼서 11: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의로운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직업의 기회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젊은 엄마일 때 저는 어린 딸들이 방에서 춤추는 동안 그들을 위해 노래를 연주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노래 가사는 다소 단순하지만 저의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나는 엄마가 되어 가족을 갖고 싶네
딸 하나 둘 셋 내 아이들
난 이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겠네
가족을 가질 거야
온 종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과량
노란 풍선을 줄거야
일이 잘못되면 그들을 안아 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읽어 주며
멋진 노래를 불러 주겠네
(제닌 브레이디, “나 엄마 되고 싶어”, 사랑스런 노래(1987년, 10~13쪽)*

여러분은 제가 뜻하는 바를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큰 축복입니다.

기도

셋째, 구세주께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을 강화하려고 할 때, 기도는 여러분 일상의 꾸준한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적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 주고 평화를 주며, 가족이 서로 더욱 사랑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니파이 백성들을 방문하셨을 때, 충만한 복음을 가르치실 시간이 며칠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분은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니파이삼서 17장부터 20장까지 기도라는 말이 약 44번이나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차례 그분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였고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상호 향상 모임 동안 아마도 여러분은 경전을 가져와 그 네 장을 소리 내어 읽으며, 기도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밑줄을 긋고 기도의 힘에 대한 간증과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을 느끼고, 기도에 대한 강한 간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예언자들은 하루에 두 번씩 기도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분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루에 두 번씩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금판을 얻으러 간 날 밤에 대해 그 어머니가 들려준 훌륭한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매우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12시쯤 요셉이 들어와서 자물쇠와 열쇠가 달린 상자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런 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걱정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상자가 없어도 잘 할 수 있어요. 걱정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잠시 후에 요셉과 앤마는 말과 마차를 끌고 떠났습니다.(이제 그의 어머니가 한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며 그날 밤을 보냈다. 마음의 근심으로 잠이 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딸인, 한 어머니의 간청은 예언자에게 위안이 되었고 금판을 지켜 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가 드린 끊임없는 기도로 인해 그녀의 가정과 가족은 강화되었습니다.

(Lucy Mack Smith, *History of Joseph Smith*, ed. Preston Nibley [1979], 102 쪽 참조)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간에, 여러분은 무엇에 관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는 것과 같은 가족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가족이 함께 경전 공부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어머니나 아버지와 더 잘 대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형제나 자매에게 더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도울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기도는 여러 번 응답되기도 했으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주님의 시간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가정과 가족을 강화시키는 세 가지 원리인 양육, 희생, 기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양육
- 희생
- 기도

우리의 친구인 구세주께서 그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실행할 때, 여러분이 올림픽 은메달이나 금메달을 딸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받는 청녀 메달은 여러분에게 훨씬 더 크게 보상할 것이며, 여러분의 내면에 성신의 불이 계속해서 환히 타오르게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가족과 가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햇불을 높이 드십시오

마가렛 디 네이들드 자매
본부 청년 회장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을 발전시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가져온 밝은 영의 빛을 흐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선함과 영향력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은 지난 2월 그리스에서부터 솔트레이크시티까지 올림픽 성화를 운반하는 데 사용된 햇불입니다. 이 햇불은 희망과 뛰어난 기량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맨 처음 오래 전 그리스에서 열린 첫번째 올림픽에서 재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년 햇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복음의 빛을 상징합니다. 이 빛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천국에서 재화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배웠으며, 여러분은 그 계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햇불을 드는 영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 안의 신성한 빛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훌륭하게 만드는 빛의 일부는 여성스러움이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여성의, 여자로서의 특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임을 아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일성도 예언자들은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지닌 아름다운 자질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거룩한 축복입니다. 젊거나 늙었거나, 하나님의 여성은 영적이고 민감하며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보살피는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결코 경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을 발전시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가져온 밝은 영의 빛을 흐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선함과 영향력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여러분들께 단순히 선택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진심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햇불을 높이 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선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규칙을 어기고 표준을 낮출 때라야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런 사고 방식에 동조하지 마

십시오. TV나 잡지를 볼 때면 여러분이 특이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정말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입니다.

세계 일곱 자녀가 있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자 아이들을 잘 압니다. 정말 재미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남자 아이나 여자 아이 모두, 그리고 그 애들의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애들의 비밀을 몇 가지라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세계 별 탈이 없었으면 좋겠군요. 남자 아이들은 당황스럽게 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한번은 제가 아는 청년이 무도회에 함께 갈 파트너를 저희 집에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그는 무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파트너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청년은 부엌으로 들어와 카메라를 찾고 있던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파트너가 입은 드레스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소년은 보통으로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는 성격이기에 저는 너무나 무궁해했습니다.

그 소녀를 보았을 때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소녀가 입고 있던 드레스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소녀와 소녀의 어머니가 드레스를 찾기 위해 가게들을 샅샅이 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이 드레스를 찾았을 때 이들은 그 드레스에 천을 덧대고 마지막 손질을 하면 그들의 높은 표준에 꼭 맞는 멋진 드레스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은 참으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단연코 눈부시게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던 것은 드레스가 아니라 그녀의 조용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보았을 때, 저는 이런 경전 구절이 기억났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

워지리니” 그녀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이 청년이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장에 관해서는 이미 몇 주 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이 청년은 매우 편안하게 느꼈고, 그녀의 드레스가 노출이 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렸습니다. 드레스는 어느 모로 보나 단정했고 이것은 그녀를 자신감있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로 인해 당황스럽지 않았고 그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멋진 성화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청년은 항상 높은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무도회에서 뿐만 아니고 일상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와 같은 분들이 매우 많으며 그런 여러분께 오늘 밤 저는 존경을 표합니다. 생애 내내 여러분은 정숙함을 간직해 왔습니다. 그것은 옷 입는 방식 이상의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최소한 여섯 가지가 포함됩니다. (1)여러분은 매우 예의바르게 행동하지만 동시에 재미 있습니다. (2)여러분의 언어는 결코 저속하지 않으나 유쾌하고 재미있습니다. (3)복장

은 단정하며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4)재능을 개발하고 목표를 이루는 일에 집중합니다. 신체에 부적절하게 구멍을 뚫거나 문신을 하지 않으며 야한 복장을 하지 않습니다. (5)열정적으로 스포츠를 하지만 자제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6)가장 최신의 팝 스타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는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신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여러분은 더 높은 표준을 알고 있기에 세상의 표준에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유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기 원하며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명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한다면 그분이 도와주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를 외우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작지만 정말 놀라운 안내서가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것을 “행복을 위한 제언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표준대로 사는 것은 옳은 길에 머물면서 선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끌어올

수 있는 비밀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의 높은 표준대로 살 때 여러분은 햇불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리즈라 부를 소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관한 한 모범입니다. 그녀는 제가 린드세이라 부를 소녀와 함께 수학 수업을 들었는데 린드세이의 말을 빌리면 리즈에게는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린드세이는 리즈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리즈로 인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리즈는 자신이 믿는 바를 수호했으며 늘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린드세이는 리즈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즈가 학교에 오지 않았습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린드세이는 리즈가 뇌막염에 걸려 생명이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그녀는 책상에 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녀와 리즈가 정말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린드세이는 어머니께 그들이 리즈를 도와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린드세이는 가족 모두가 리즈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 중 한 명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수년 동안 이 가정에서는 금식과 기도라는 말이 언급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린드세이와 그녀의 어머니가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나머지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몇몇 식구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린드세이의 간청으로 마침내 모든 식구들은 낯선 친구인 리즈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 리즈가 어느 때와 다름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학교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경험으로 인해 린드세이의 가정에 놀라운 희망의 영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 가정에 몇 가지 중대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가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즈의 선함이 빛을 발했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리즈 자매님,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매님의 선함으로 인해 자매님은 아마도 모르는 사람들이겠지만 최소한 한 가정 전체가 축복을 받았습시다. 자매님이 높이 들어 올린 햇불로 보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길을 찾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기본 좋게 하는 선은 다른 사람 또한 기본 좋게 만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이 선할 때 삶은 훨씬 덜 복잡해집니다.

선해지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장소인 성전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구세주께서 방문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느 날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의 손녀는 스노우 대관장님과 함께 성전에 갔습니다. 스노우 대관장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앨리아, 너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 있단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곳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단다.’ 할아버지께서는 오른손을 제 머리에 올리시고 말씀하셨

습니다. ‘얘야, 이 할아버지가 정말로 성전에서 구세주를 보았고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네게 직접 이야기해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이것이 할아버지의 간증이라다.’”

구세주께서 걸으신 똑같은 복도를 여러분이 걸으며 느낄 경건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 그분의 가장 훌륭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하나님의 딸인 순수하고 깨끗한 여러분 자신이 있는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습니까?

개인 발전 기록부는 여러분이 성전에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영감 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작은 보물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구세주께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 줄 것이며 우리가 말한 바 있는 여성스러움이라는 신성한 은사를 영화롭게 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준비의 시기에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우고 선택한 본보기들과 결정들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를 완성하기를, 여러분의 빛을 밝게 비추어 앞으로 올 세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이유들과 그 밖의 더 많은 이유들로 인해 대관

장단은 “모든 청녀가 청녀 표창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할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고 기능과 자질을 계발함으로써 성전에 가고 평생토록 자신의 가족과 주님을 위해 봉사할 준비를 갖추 수 있게 될 것입니다.”⁵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새 청녀 메달에 있는 성전 첨탑 그림은 여러분이 성전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바로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부활절 전날에 그리스도에 관해 생각합니다. 2000년 훨씬 이전의 이 부활절 전날, 일부 사람들은 그분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을 때 빛이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절이라 부르는 셋째 날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이 되고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영원한 빛이 되기 위해 일어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임을 간증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녀 여러분, 여러분의 빛을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 앞에 밝게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오. 그 햇불을 나르는 것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분의 빛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내내 빛나고, 그 선함으로 인해 언젠가 여러분이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거룩한 장소에서 여러분은 더 큰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5:16.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영문).
3. 교리와 성약 121:45.
4. 수전 애링턴 매드슨, “로렌조 스노우와 성스러운 시현,” *Friend*, 1993년 8월호, 14쪽(영문).
5. 2001년 9월 28일자, 청소년을 강화함에 관한 대관장단 서신.

완전에 이르는 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여러분의 생활에서 실천해 볼 네 가지 구체적인 덕성은 감사하는 태도, 배움에 대한 열의, 수련에 대한 헌신, 그리고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본 부 청년 회장단께서 너무도 잘하
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훌륭한 분들에게서 듣는
모든 것들에 대해 저의 지지와 찬사를 보내
는 바입니다. 그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
지의 종들이며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로움, 성
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
으며, 더욱이 사람이 어떻게 완전에 이르는
길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루이스 캐롤의 고전인 이상한 나라의 앨
리스에서, 앨리스는 서로 반대쪽으로 뻗어
있는 두 갈래 길이 앞에 있는 한 교차로에
이르렀습니다. 앨리스는 체서 고양이에게 물
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그 고양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가에 달렸어. 어느 쪽
으로 가고 싶은지 모른다면, 어느 길을 선택
하든 크게 상관이 없어.”

앨리스와는 달리, 여러분 각자는 어디로 가
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서 여러분이 따라가는 길이 다음 세상에서 여
러분이 가게 될 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에 유행한 한 경쾌한 노래에 다음
과 같은 자극적인 가사가 있습니다. “원한다
면 그렇게 될 수 있네, 그러나 계속 원하기
만 한다면 근심은 사라져 버릴 것일세” 실패
의 또다른 공식이 보다 최근의 노래 Don't
worry, be happy!(걱정 말아요, 행복해지세
요!)에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주제인 “거룩한 곳에
[설지어다]가 더욱 적절해 보입니다. 저 역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거
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

제8대 대관장이신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
관장은 이렇게 촉구하셨습니다. “우리의 발이
이따금씩이 아니라 매일 매 시간에 행복과 해
의 왕국에 이르는 길을 밟고 서 있게 합시다.
이는 우리가 주의 편에 머물러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향 아래 머물러 있다면,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마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 우리는 불행해질 것이며 그 불행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한 해
가 갈수록 점점 커질 것입니다.”

저는 아론 신권을 지닌 청년들에게 말씀
을 하면서 한 아버지가 소중한 아들에게 주
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곳을 빠져 나와라!”
이와 똑같은 진리가 오늘 이 컨퍼런스 센터
에 모여 있는 청년 여러분과 전세계 여러 집
회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떤 일을 일반적으로 다룰 때에는 거의
성공하는 법이 없으나, 구체적으로 다룰 때
에는 거의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항상 느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증명된 다음의 네
가지 구체적인 덕성을 여러분의 생활에서 실
천해 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것들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감사하는 태도
2. 배움에 대한 열의
3. 수련에 대한 헌신, 그리고
4.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

첫째,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가
복음 17장에서 열 명의 문둥병자에 관한 기
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예루
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
아를 지나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마을 외
곽에서 열 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병 때문에 강제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들에 대한 동정심과 사랑
으로 가득 차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하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은 가는 길
에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니 너를 구원하였느니라”⁵

신성한 중재를 통해 문둥병자들은 잔인하게 서서히 진행되는 이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돌아와 감사를 드린 한 사람은 주님의 축복을 받았으나, 감사함을 표하지 않은 나머지 아홉 사람은 주님께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과거의 문둥병처럼 오늘날에도 역병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



며 우리를 약화시키고 파멸시킵니다. 어디를 가나 이것들을 봅니다. 이 역병이 미칠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 중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들어 본다면 이기심, 탐욕, 방종, 잔인성 및 범죄 등이 있습니다.

한 지역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러움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도 있습니다. 거리에, 텔레비전에도, 책과 잡지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홍수처럼 흥하고 더럽고 비열하게 세상을 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 세상은 도덕적인 표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불행만 초래할 뿐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튼튼한 가정 생활과 도덕적인 표준, 곧 오랜 세월을 거쳐 증명된 가치관을 준수하는 일로 되돌아가는 데 있습니다.”⁶

힝클리 대관장의 권고에 따름으로써 우리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것을 훌륭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무한한 기회가 펼쳐져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는 교사와 도움을 주는 친구와 올바른 결혼 생활과 그리고 희생하시는 부모님 등 의로운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가족과 친구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청녀 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봉사합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평화와 사랑을 전해 주십니다. 그분과 그분의 아들 가까이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배움에 대한 열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⁷

오래 전에 대관장단 보좌였던 스티븐 엘리차즈 부대관장께서는 깊은 사색가이셨습니

다.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과 의심이 동시에 한 마음에 공존할 수 없는 데, 이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신앙을 구하고 의심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⁸

우리는 경전과, 예언자들의 가르침, 부모님의 훈육,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오는 영감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별과 같아서 우리는 자신의 이상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으나 그것을 따름으로써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⁹

오늘 저녁 이 자리에는 많은 교사들도 함께 참석해 있습니다. 저는 각 교사가 다음과 같은 설명에 적합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마치 요술을 부리듯, 포근하고 환영 받는 느낌이 가득하며, 성장하고 배우며, 상상이 나래를 펼치고 젊음의 기운이 감도는 교실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¹⁰

셋째, 수련에 대한 헌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생각하고 추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능력과 더불어 자기 수련은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는 각자 선택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결정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결과 없이 영원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을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공식 하나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행하고 의로워질 수 없으며 의를 행하고 잘못될 수도 없다.” 여러분의 양심은 재판관이 되어 여러분을 벌하기 전에 친구로서 항상 경고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사람을 덕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어두움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¹¹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쉽게 변하는 유행과 거짓 인기의 매력과 순간적인 흥분을 따릅니다.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그러한 길을 따르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련을 위한 전쟁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남기고 명을 남길지 모르지만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자기 수련은 엄격한 과정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이나 고통 없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퇴보가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자기 수련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시 시도하겠다는 결의와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1942년 4월 6일에 대관장단이 청년에 대해 말씀한 것보다 더 진실한 설명은 없다고 봅니다. “순결한 청소년은 얼마나 영화롭고 천사에 가까운 존재입니까! 이 청소년들은 현세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후세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갖고 있습니다.”¹²

우리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이며, 여러분이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기 수련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웁시다. 여러 해 전에 대관장단 보좌였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가능한 빨리 우리가 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거나 발전하기를 바라다면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¹³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¹⁴ 라

는 말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한 구절 이상의 것으로 일을 하라는 호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루는 것은 시간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특별히 아주 힘든 일을 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하며 인생의 시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즐기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시험 준비를 미루고 말았습니다. 전날 밤, 그녀는 때는 늦었고 시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행위를 합리화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잠을 요구하는 나의 건강인가,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일인가?” 여러분은 그 결과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이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시험은 개인적인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한 공식입니다.

1. 감사하는 태도
2. 배움에 대한 열의
3. 수련에 대한 헌신, 그리고
4.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

모든 사람의 삶에는 절망의 순간과,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오는 인도를 필요로 하여 도움을 위해 말없는 간구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며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개인적인 소중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저는 주어진 임무 때문에 독일의 한 지역에서 일을 했는데, 그곳은 철의 장막이라 불리는 곳의 뒤편에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통제 하에서, 독일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청소년들의 활동은 제한되었으며 모든 행동은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책임을 맡고 난 직후, 저는 독일의 그 지역에서 개최된 가장 고무적인 한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영감을 주는 노래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저는 낡은 건물 밖에 있는 침대의 소중한 청소년들과 잠시 만나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수는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제 말씀을 모두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도의 말씀과 격려에 굽주려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기 전에 저는 짐을 세 통 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맛의 껌을 샀습니다. 그것은 더블민트, 스피어민트, 그리고 주시 후르트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다 모였을 때 저는 그들에게 각각 그들이 전혀 맛보지 못한 껌을 두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에 대회를 가졌던 드레스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예배당이 있었으며 사람들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성전도 있었습니다. 독일은 더 이상 정치적 장벽으로 분리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청소년들은 자녀를 둔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영적인 대회가 끝난 후에, 한 어머니와 그 딸이 함께 저를 찾아와 말을 건넸습니다. 그 딸은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으며 영어를 조금 했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몬슨 부대관장님, 오래 전에 지방 대회가 끝나고 청소년들과 잠깐 모인 자리에서 그들에게 껌을 두 개씩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 기억하고 말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그때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 중 한 분입니다. 어머니는 그 껌 한 개를 조금씩 나누어서 씹었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맛은 너무나 달고 소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미소 짓는 어머니를 보면서 제게 조그만 상자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 뚜껑을 열어 보았을 때 저는 근 20년이 되도록 아직도 원래 포장으로 쌓여 있는 다른 껌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부대관장님께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오래 전 부대관장님이 대회에 참석하러 오시기 전에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분께서 정말로 저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딸 아이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이 선물을 보관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우리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하늘의 도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증거로서 여러분 앞에 그 선물을 들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저녁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 주신 그분에게 우리의 생각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굿간에서 나시고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을 따라오라고 손짓하십니다. “오 기쁨 주는 이 말씀 내 구주(께서는) 살아계십니다!”¹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9쪽.
2. Lewis Carroll,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1992), 76쪽.
3. 교리와 성약 87:8.
4. Conference Report, 1944년 4월, 31~32쪽.
5. 누가복음 17:11~19.
6. 독일 베를린 지역 대회, 1996년 6월 16일.
7. 디모데전서 4:12.
8. 교리와 성약 88:118.
9. Carl Schurz, 1859년, *Bartlett's Familiar Quotations*, 15판 (1980), 602쪽 참조.
10. Grand Street Boys Club and Foundation, *New York Times*에서 인용.
11. 교리와 성약 50:23~24.
12. 제임즈 알 클라크 편,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150.
13.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Work-Work Always! BYU Speeches of the Year* (1960년 5월 25일), 4쪽.
14. Will L. Thompson,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 찬송가, 161쪽.
15. Samuel Medley,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쪽.

어린이들에 관한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

2002년 4월 6~7일에 개최된 제172차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발췌한,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하늘의 북극성처럼, 미래가 아무리 어둡다 해도,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서 계십니다. ... 깰 때나 흐릴 때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분은 늘 그곳에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웃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십니다.

토마스 에스 문슨, 대관장단 제1보좌: 수 많은 가족에게서 상한 감정과 용서를 꺼려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쟁점이 무엇인가는 사실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상처를 입히도록 남겨질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비난은 상처를 드러냅니다. 오직 용서만이 치유합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대관장단 제2보좌: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

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죄와 범법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며 용서에 대한 간구입니다. 셋째,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입니다. 넷째 창조주께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는 기회입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책임감을 갖고 책임성 있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아버지에게 버금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자녀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확신을 심어 주는 어머니에 버금가는 존재 또한 없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평안, 곧 참된 평안, 여러분이 온 영혼으로 참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평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 달아나야만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빛이 약해지거나 떠나지 않는 한 어둠이 빛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신의 영적인 빛이 존재한다면, 사탄의 어둠은 달아납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서둘러야 하고 겸손한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는 길에 우리는 자신이 받은 많은 복을 세어 보고 다른 사람들이 성취한 것을 치하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새로운 회원들은 완전하신 친구인 구세주를 믿고 침례 받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 그들은 성신의 은사를 받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 그러한 선택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시, 매분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성신이 와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영감을 준다 하더라도 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얼 시 텅기 장로, 칠십인 회장단: 여러분이 온전한 십일조를 낼 때,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특별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올 것입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일 엠 클레그 자매,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 어린이들이 그들의 힘으로 달릴 수 있는 만큼 빨리 달리게 하고, 자기 자신의 간증에 대한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축복입니다. □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주일학교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제1보좌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장로
회장



리처드 제이 메이너츠 장로
제2보좌

청남



글렌 엘 페이스 장로
제1보좌



에프 앨빈 하몬드 장로
회장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제2보좌

상호부조회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제1보좌



보니 디 파킨 자매
회장



앤 시 핑클리 자매
제2보좌

청녀



캐롤 비 토마스 자매
제1보좌



마거릿 디 네이돌드 자매
회장



샤론 지 라슨 자매
제2보좌

초등회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자매
제1보좌



클린 케이 멘러브 자매
회장



게일 엠 클레그 자매
제2보좌

2002년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네 번째 일요일에 갖는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모임에서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해야 한다. 매년 대관장단은 이 모임에서 사용할 참고 자료를 지정하고 열 가지 주제를 정한다. 다음은 2002년을 위한 주제와 지정된 참고 자료이다. 스테이크장단 또는 지방부장단은 추가로 두 가지 주제를 선정한다.

네 번째 일요일 모임의 토론은 지정된 자료들 가운데서 정원하나 그룹 회원들의 필요 사항과 사정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한 가지나 두 가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교사들이 참고 자료들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이 모임이 강의나 발표 시간이 아니라 토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정원회 및 그룹 회원들에게 토론의 원리를 적용하도록 동기를 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정원회 또는 그룹 토론을 준비하고 이끄는 것에 관한 제안은 *교사*, 가장 중요한 부분과 *교수법 지도서*에 나와 있다.

1. 구세주와 왕이신 나사렛 예수

마태복음 1:18~21; 사도행전 4:8~12; 니파이삼서 11:7~17.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2~24쪽 (비디오 선택,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물품 번호 53584).

러셀 엠 넬슨,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며 그 이상의 분이심”,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4~19쪽.

“우리의 확고한 기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일성도 여성상 제2과장*, 제1과, 1~8쪽.

2. 개인과 가족이 진실로 개종됨

누가복음 18:18~30; 모사이야서 4:6~7, 5:2; 엘마서 5:14~35.

고든 비 힝클리, “신앙의 기적”,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82~84쪽.

엘 톰 페리, “제자의 신분”, *리아호나*,

2003년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2003년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위한 주제 목록과 지정된 자료는 2002년 7월 교회 웹 사이트(www.lds.org)에 여러 언어로 나올 것입니다.

2001년 1월호, 72~74쪽.

델린 에이치 옥스,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41쪽.
"사랑", *복음 원리*, 제30장, 197~202쪽.

3. 우리의 침례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

마태복음 3:13~17; 니파이이사서 31:5~20; 모사이야서 18:7~10.

제임스 이 파우스트, "거듭남",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8~71쪽.

로버트 디 헤일즈, "침례 성약: 왕국 안에 있으며 왕국에 속해 있음",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9쪽.

"침례, 영원한 성약", *신권의 의무와 축복 제1과정*, 제 29과, 206~211쪽.

4. 속죄를 통해 기쁨과 화명을 찾음

이사야 1:16~20; 니파이이사서 9:18~21; 엘마서 34:14~16, 38:8~9; 교리와 성약 18:10~13.

보이드 케이 패커, "주님의 손길",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25~27쪽.

리차드 지 스코트, "화명과 기쁨의 길",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31~33쪽.

"회개", *복음 원리*, 제 19장, 122~127쪽.

5.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간증을 키움

요한복음 7:17; 엘마서 5:44~46, 32:27~28; 이터서 12:6; 모로나이사서 10:4~5; 교리와 성약 6:20~23.

제임스 이 파우스트, "커가는 간증",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9~71쪽.

조셉 비 워스런, "순수한 간증",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27~30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 *신권의 의무와 축복 제1과정*, 제 26과, 183~188쪽.

6.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줌

잠언 22:6; 마태복음 5:13~16; 디도서 2:1~8; 니파이이사서 1:1; 교리와 성약 68:25~28.

고든 비 칭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41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튼튼한 연결 고리가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23~25쪽.

"영원한 가족", *복음 원리*, 제 36장, 231~235쪽.

7. 가정과 가족을 악으로부터 보호함

이사야서 52:11; 요한복음 15:1~4; 야곱서 3:10~12; 교리와 성약 121:45.

토마스 에스 몬슨, "외설물-치명적인 매개체",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2~7쪽.

닐 에이 맥스웰, "희망의 쟁기질",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72~74쪽.

"도덕적 순결", *신권의 의무와 축복 제1과정*, 제34과, 240~245쪽.

8. 개인과 가족으로서 선교 사업에 참여함

마가복음 16:15; 교리와 성약 18:15~16, 34:4~6, 60:1~2, 88:81, 123:12.

엠 러셀 벨라드, "회원들이 열심입니다",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12~23쪽.

제프리 알 홀런드, "증인이 되어",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5~17쪽.

"선교 사업", *복음 원리*, 제33장, 211~217쪽.

9. 주님의 잃은 양을 찾고 먹임

누가복음 10:25~37; 에베소서 2:19; 엘마서 31:34~35; 교리와 성약 18:15~16.

토마스 에스 몬슨, "영원한 항해",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56~58쪽.

헨리 비 아이어링, "돌아보며 격려하라",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79~81쪽.

"우정 증진: 신권 책임", *신권의 의무와 축복 제2과정*, 제10과, 86~91쪽.

10. 성전의 축복을 받음

시편 24:3~5; 교리와 성약 109:12~23, 110:6~10.

보이드 케이 패커, "The Holy Temple(거룩한 성전)", *앤서인*, 1995년 2월호, 32~37쪽.

러셀 엠 넬슨,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7~40쪽.

"계보 및 가족 기록", *신권의 의무와 축복 제2과정*, 제8과, 66~75쪽. □

대회가 열리고 있는 컨퍼런스 센터 발코니 층



교사 참고 자료

아론 신권 교재 3용 참고 지도서

(제26~49과는 대체 자료가 아닌 보충 자료로 사용됨)

인쇄된 순서대로 공과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 교재에는 성탄절 특별 공과가 들어 있지 않다. 성탄절(12월 22일) 특별 공과를 가르치고 싶다면, 구세주의 탄생, 속죄, 부활, 생애 및 사명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차 대회 말씀, 기사, 찬송가 사용을 고려한다.

제 26 과: 순결의 축복

“순결과 정절에 대한 예언자들의 가르침”, *리아호나*, 1999년 10월호, 26~29쪽.

제프리 알 홀런드, “개인적인 순결”,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5~77쪽.

로버트 레이튼, “절제는 어떻습니까?”, *리아호나*, 1999년 11월호, 42~43쪽.

테런스 디 올슨, “도덕적 순결에 관한 진리”, *리아호나*, 1999년 10월호, 30~39쪽.

제 27 과: 몸은 성전임

보이드 케이 패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5~88쪽.

폴린 위틀러, “난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아”, *리아호나*, 2000년 3월호, 40~42쪽.

제 28 과: 유혹을 이김

보이드 케이 패커, “계시의 영”,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26~29쪽.

닐 에이 맥스웰, “세상의 유혹”,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3~46쪽.

대린 리스코, “유혹에 맞서”,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7쪽.

브래드 윌콕스, “위험한 질문”, *리아호나*, 2000년 5월호, 32~35쪽.

제 29 과: 안식일을 지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주님의 날”,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38~41쪽.

브라이언 루이스, “초등회 목적”, *리아호나*, 1999년 2월호, 46~47쪽.

디 켈리 옥든, “안식일을 기억하라”, *성도의 벗*, 1998년 5월호, 16~23쪽.

“불러라 고요히 성가”, 찬송가, 94장.

제 30 과: 여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아론 신권 소유자

토마스 에스 몬슨, “보라 네 어머니라”, *성도의 벗*, 1998년 4월호, 2~7쪽.

러셀 엠 넬슨, “여성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45~48쪽.

“오 높은 영광 보좌”, 찬송가, 139장.

제 31 과: 영원한 동반자를 선택함

고든 비 힝클리, “인생의 책임”,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2~7쪽.

리처드 지 스코트, “의의 일 하세”, *리아호나*, 2001년 3월호, 10~17쪽.

알폰소 카스트로 바즈케즈, “나는 영원한 가족을 원해요”, *리아호나*, 2000년 8월호, 26~28쪽.

제 32 과: 성전 엔다우먼트를 준비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여호와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리아호나*, 2001년 8월호, 2~5쪽.

칼로스 이 에이시, “성전 가먼트”, *리아호나*, 1999년 9월호, 32~39쪽.

에프 데이비드 스테리, “가장 중요한 단계”, *리아호나*, 2001년 10월호, 34~37쪽.

캐롤 비 토마스, “가족을 성전에 가도록 준비 시킵”,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3~15쪽.

제 33 과: 해의 왕국의 결혼~영원을 위한 준비

리처드 지 스코트, “성전 축복을 받음”,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29~31쪽.

“영원히 지속될 사랑을 키움”, *리아호나*, 2000년 5월호, 25쪽.

래리 이 달, “더 높은 율법”, *리아호나*, 1999년 8월호, 16~24쪽.

“가족은 영원해”, 찬송가, 189장.

제 34 과: 순종

제임스 이 파우스트, “순종: 자유에 이르는 길”,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53~56쪽.

캐네스 존슨,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많은 ... 알리라”, *리아호나*, 1999년 6월호, 11~15쪽.

디넬리 체프먼, “3가지 질문”,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46~47쪽.

“제명을 지키라”, 찬송가, 191장.

제 35 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든 비 힝클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리아호나*, 2000년 10월호, 26~29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42~43쪽.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 찬송가, 70장.

제 36 과: 축복사의 축복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신권 축복”,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62~64쪽.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리아호나*, 2001년 8월호, 22~24쪽.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25쪽.

제 37 과: 영의 열매와 은사

토마스 에스 몬슨,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성도의 벗*, 1997년 6월호, 3~6쪽.

존 비 더슨, “가장 소중한 선물”, *리아호나*, 1999년 10월호, 18~24쪽.

“기적의 하나님”, *리아호나*, 1999년 11월호, 8~11쪽.

로날 나바로 구티레스, “영에 이끌려 나아감”, *성도의 벗*, 1998년 11월호, 8~9쪽.

제 38 과: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토마스 에스 몬슨,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리아호나*, 1999년 3월호, 2~7쪽.

토드 던, “호세, 안녕하세요?”, *리아호나*, 2000년 2월호, 43쪽.

린다 에이 피터슨, “나만의 영웅”,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34~35쪽.

지니 머켈리스터,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리아호나*, 1999년 2월호, 26~31쪽.

제 39 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김

로버트 디 헤일즈, “영과 육신의 치유”,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14~17쪽.

트리샤 스완스 데이튼, “나의 전쟁에서 이김”, *리아호나*, 2001년 8월호, 26~28쪽.

조지 에이 호튼 2세, “경전을 우리 삶에 비추어 봄”, *리아호나*, 2000년 8월호, 44~45쪽.

“기록하신 경전으로”, 찬송가, 143장.

제 40 과: 선교 사업을 행함

데이비드 비 헤이트, "여러분의 선교 사업-영적인 모험", *리아호나*, 2001년 10월호, 12~16쪽.

엠 러셀 벨라드,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8~91쪽.

바바라 진 존스, "당신의 부름", *리아호나*, 2001년 10월호, 20~23쪽.

"주 섬기라", *찬송가*, 145장.

제 41 과: 좀 더 구세주와 같이 됨

델린 에이치 옥스,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43쪽.

리차드 시 에즐리, "'보라 이 사람이로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9~51쪽.

에시카 델핀 살리나스, "너희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8~10쪽.

제 42 과: 겸손하며 잘 받아들임

제임스 이 파우스트, "풍성한 삶을 얻음",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6쪽.

닐 에이 맥스웰,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하고(교리와 성약 56:8)",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26~28쪽.

샘 자일즈와 크리스티 자일즈, "'우리는 네가 오는 걸 원치 않아'", *리아호나*, 1999년 6월호, 38~40쪽.

"약한 자여 겸손하라", *찬송가*, 85장.

제 43 과: 생각과 언어

제임스 이 파우스트, "극기의 힘",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52~55쪽.

크리 엘 코포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안전합니다",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96~98쪽.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신권을 존중하십시오",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46~48쪽.

제 44 과: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고든 비 힝클리, "'선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리아호나*, 2000년 2월호, 2~5쪽.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신권 정원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40~42쪽.

로저 테리, "'지극히 작은 자'", *리아호나*, 2000년 12월호, 18~24쪽.

"풍성한신 주 은혜로", *찬송가*, 138장.

제 45 과: 간증을 전함으로써 간증을

강화시킴

고든 비 힝클리, "나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82~85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커 가는 간증",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9~71쪽.

조셉 비 워스린, "순수한 간증",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27~30쪽.

"간증", *찬송가*, 58장.

제 46 과: 효과적인 가정 복음 교육

러셀 엠 넬슨, "목자, 양, 그리고 가정 복음 교사",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42~48쪽.

말콤 더블류 왓슨, "끝까지 충실한 가정 복음 교육",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43~44쪽.

켈린 리스 애덤즈, "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됨", *성도의 빛*, 1998년 9월호, 34~45쪽.

제 47 과: 정지

제임스 이 파우스트,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 *성도의 빛*, 1988년 5월호, 43~46쪽.

고든 스웬슨, "명예를 지킨 손", *리아호나*, 2001년 3월호, 8~9쪽.

로버트 제이 매튜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성도의 빛*, 1998년 11월호, 14~21쪽.

리차드 리 드레이퍼, "'너희는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6~31쪽.

제 48 과: 교육을 통한 봉사를 준비함

고든 비 힝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41쪽.

앤 엘빙턴 린치, "날개", *리아호나*, 2000년 2월호, 26~29쪽.

대린 리스고, "배움의 보상", *리아호나*, 1999년 11월호, 48쪽.

제 49 과: 훌륭한 유산을 지닌 우리

제프리 알 홀런드, "마치 비둘기처럼 우리의 창가로",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90~93쪽.

스티븐 비 오브슨, "우리의 유산",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34~36쪽.

"만약 여러분이 교회 개척자와 친척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까?", *성도의 빛*, 1998년 3월호, 30~32쪽. □



청년 교재 3용 참고 지도서

(제26~47과는 대체 자료가 아닌 보충 자료로 사용됨.)

인쇄된 순서대로 공과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 교재에는 성탄절 특별 공과가 들어있지 않다. 성탄절(12월 22일) 특별 공과를 가르치고 싶다면, 구세주의 탄생, 속죄, 부활, 생애 및 사명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차 대회 말씀, 기사, 찬송가 사용을 고려한다. 어=어린이란.

제 26 과: 회개

리차드 지 스코트, "화평과 기쁨의 길",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31~33쪽.

렌리 비 아이어링, "미루지 마십시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38~41쪽.

"마음의 평화를 찾음", *리아호나*, 2000년 6월호, 32~33쪽.

"예수께 오라", 찬송가, 77장.

제 27 과: 자신을 용서함

고든 비 힝클리,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을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12~115쪽.

"용서 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리아호나*, 1999년 11월호, 26~28쪽.

패트리샤 에이치 모델, "절 용서해 주시겠어요?", *성도의 빛*, 1998년 9월호, 7쪽.

로더릭 제이 린튼, "용서하는 마음", *성도의 빛*, 1998년 6월호, 28~33쪽.

제 28 과: 헌납과 희생

제임스 이 파우스트,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2~6쪽.

엠 러셀 벨라드, "희생의 율법",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10~20쪽.

도널드 엘 앤더스, "충실한 최초의 신자들", *리아호나*, 2001년 2월호, 38~44쪽.

로리 리브시, "가서 행하겠나이다", *성도의 빛*, 1998년 2월호, 8~11쪽.

제 29 과: 마음의 변화

제임스 이 파우스트, "거듭남",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8~71쪽.

스펜서 제이 콘디, "계속하여 선행하려는

마음",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14~21쪽.

로버트 엘 밀렛,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림", *리아호나*, 2000년 8월호, 6~10쪽.

후안 안토니오 플로레스, "나의 삶을 돌이킴", *성도의 빛*, 1998년 5월호, 40~41쪽.

제 30 과: 경전 공부

엘 톰 페리,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 *성도의 빛*, 1996년 11월호, 어 2~3쪽.

트리샤 스완스 데이튼, "나의 전쟁에서 이김", *리아호나*, 2001년 8월호, 26~28쪽.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리아호나*, 2000년 10월호, 22~24쪽.

조지 에이 호튼 2세, "경전을 우리 삶에 비추어 봄", *리아호나*, 2000년 8월호, 44~45쪽.

제 31 과: 교회 안에서 봉사함

토마스 에스 몬슨,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겠느냐?", *성도의 빛*, 1998년 2월호, 2~7쪽.

엠 러셀 벨라드, "신앙과 헌신의 뜻을 내리고", *리아호나*, 2001년 8월호, 30~40쪽.

피터 비 가드너, "무대 뒤에서", *리아호나*, 2000년 2월호, 22~23쪽.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 찬송가, 161장.

제 32 과: 지역 사회에서 봉사함

토마스 에스 몬슨,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성도의 빛*, 1993년 11월호, 97~99쪽.

로저 테리, "지극히 작은 자", *리아호나*, 2000년 12월호, 18~24쪽.

"너희가 내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 ...", *성도의 빛*, 1998년 8월호, 14~15쪽.

"중상하신 주 은혜로", 찬송가, 138장.

제 33 과: 모든 사람은 신성하며 영원하다

고든 비 힝클리, "여러분 내부의 빛",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98쪽.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한 사람씩",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36~37쪽.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46~47쪽.

"세상을 이기기",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26~27쪽

제 34 과: 부정 행위를 피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정직-도덕 나침반",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41~44쪽.

로버트 제이 매튜즈,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성도의 빛*, 1998년 11월호, 14~21쪽.

리차드 리 드레이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6~31쪽.

제 35 과: 데이트 결정

리차드 지 스코트, "의의 일 하세", *리아호나*, 2001년 3월호, 10~17쪽.

태머리 리덤 베일리, "성전 참석 유형",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46~48쪽.

"가족은 영원해", 찬송가, 189장.

제 36 과: 결혼 표준

"순결과 정결에 대한 예언자들의 가르침", *리아호나*, 1999년 10월호, 26~29쪽.

제프리 알 홀런드, "개인적인 순결",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5~78쪽.

로라 비 윌티, "자몽 신드롬", *리아호나*, 1999년 9월호, 24쪽.

"해의 왕국의 결혼", *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5쪽.

제 37 과: 표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리차드 지 스코트, "중대한 질문, 신중한 대답", *성도의 빛*, 1997 9월호, 28~32쪽.

래리 이 달, "더 높은 율법", *리아호나*, 1999년 8월호, 16~24쪽.

졸트 솔트라, "어느 쪽이 무거운 짐인가?",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29쪽.

"내 말을 연구하라", *성도의 빛*, 1998년 3월호, 25쪽.

제 38 과: 좋은 건강 습관

고든 비 힝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41쪽.

닐 에이 맥스웰, "지혜롭게 순리대로", *리아호나*, 2001년 12월호, 18~23쪽.

제니퍼 페리, "받아들여짐", *리아호나*, 2000년 3월호, 11~12쪽.

콜린 위틀리, "난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아", *리아호나*, 2000년 3월호, 40~42쪽.

제 39 과: 개인적 가치를 인정함

러셀 엠 넬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85~87쪽.

샘 자일즈와 크리스티 자일즈, "우리는 네가 오는 걸 원치 않아", *리아호나*, 1999년 6월호, 38~40쪽.

잭 와일런드, "훌륭한 성품", *리아호나*, 1999년 3월호, 40~45쪽.

"승리", *성도의 빛*, 1998년 8월호, 40~41쪽.

제 40 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3~56쪽.

스티븐 에이 웨스트, "작은 일에서",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32~34쪽.

앤 빌링즈, "인기", *리아호나*, 1999년 2월호, 24쪽.

"서로 사랑해", *찬송가*, 193장.

제 41 과: 신뢰할 만하게 됨

고든 비 힝클리, "탁월함을 추구함", *리아호나*, 1999년 9월호, 2~8쪽.

고든 비 힝클리, "공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성도의 빛*, 1998년 9월호, 어 2~3쪽.

디널리 채프먼, "3가지 질문",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46~47쪽.

제 42 과: 변화를 준비함

고든 비 힝클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리아호나*, 2000년 10월호, 26~29쪽.

랜스 비 위크먼, "여러분의 미래",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2~24쪽.

아냐 물러, "인생의 폭풍우에 대비함", *리아호나*, 2000년 3월호, 12~13쪽.

제 43 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토마스 에스 몬슨, "주님의 등대: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2~7쪽.

에시가 델핀 살리나스, "너희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8~10쪽.

린다 에이 피터슨, "나만의 영웅",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34~35쪽.

지넷 웨이트 베넷, "난 어울릴 수가 없어", *리아호나*, 1999년 6월호, 41쪽.

제 44 과: 위기의 삶을 피함

고든 비 힝클리, "여러분의 가장 큰 과제, 어머니",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13~116쪽.

제프리 알 홀런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리아호나*, 2000년 6월호, 34~42쪽.

풀러 제이 루이스, "스트레스를 줄이는 다섯 가지 방법",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24쪽.

"복음이 지닌 평화", *찬송가*, 7장.

제 45 과: 직업을 선택함

고든 비 힝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41쪽.

고든 비 힝클리, "인생의 책임",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2~7쪽.

제 46 과: 재산 관리

고든 비 힝클리, "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1~54쪽.

마빈 제이 에쉬튼, "가족 재정 지침",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42~47쪽.

조 제이 크리스티슨, "탐욕과 이기심과 지나친 방종",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9~12쪽.

"수입 내에서 생활하라",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25쪽.

제 47 과: 말일성도 예언자들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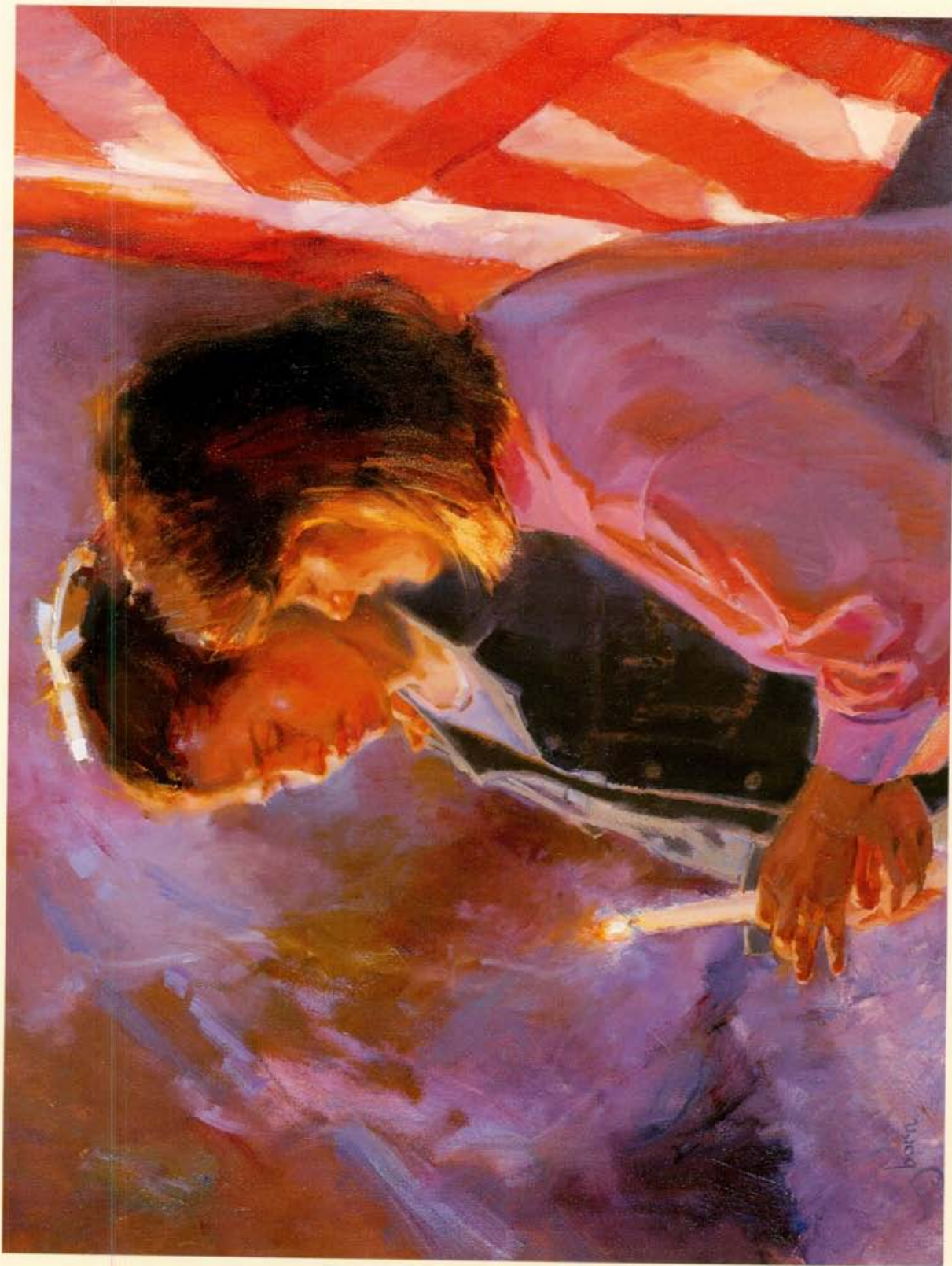
엠 러셀 블라드, "너희는 저의 말을 받아들이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9~82쪽.

데니스 비 노인슈안드, "살아 계신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9~51쪽.

닐 에이 앤더슨, "예언자들과 영적인 땅강아지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8~20쪽.

"날마다 주님 보이신 진리의 말씀", *찬송가*, 152장. □





2001년 9월 14일 회상의 날, 앤 마리 오본

2001년 9월 11일 화요일에 테러리스트들이 공격한 이후, 미국의 조지 더블류 부시 대통령은 9월 14일을 회상의 날로 선포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공격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촛불을 켜도록 독려 받았다.

이 그림은 화가와 그녀의 딸이 이 회상의 날을 지키는 것을 보여준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 사업의 역사는 위
대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온갖 고
난을 견뎌 냈습니다. 그 희생은 형언할 수 없
을 정도였습니다. 그 수고는 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
다. 하지만 이 모진 시련 속에서 영광이 싹틔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대의 절정에 서서 우리 주변을 둘러봅니다. 과거
라는 용단을 펼쳐놓고 보니 마침내 아름다운 무늬가 나타납
니다. 행복하고 훌륭한 성도들의 삶에서 묻어 납니다. 앞으
로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조 같습니다.”라고
연차 대회 첫 모임에서 말씀 하셨다.

